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비매품/무료

93340

ISBN 979-11-96651-3-2-9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김학재 · 김병로 · 문인철 · 엄현숙 · 조동준 · 천경효 · 임경훈 · 조용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집필진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목 차

제1장 서장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 14
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 16
3.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 21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 40
2.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42
3. 통일에 대한 기대감 ····· 46
4.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 51
5. 통일의 시기와 방법 ····· 56
6.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 59
7. 소결 ····· 63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 68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70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 75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 83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87
6. 소결 ····· 97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 104
2.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 106
3.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 116
4.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 123
5. 소결 ····· 132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 138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 주민의 마음 ····· 140
3.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의 미미한 영향 ····· 147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 152
5. 소결 ····· 156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1. 서론 ····· 162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감 ····· 164
3. 남한생활의 만족도 ····· 167
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원인 ····· 169
5. 지원정책과 적응의 어려움 ····· 172
6. 소결 ····· 176

제7장 결장

결장 ····· 182

부록 집계표 2019 ····· 190
설문지 2019 ····· 266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18
〈표 1-2〉 통일부의 탈북자 통계 20
〈표 1-3〉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20
〈표 1-4〉 성별, 연령별 분포 21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3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4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6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7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8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29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32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3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4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5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36
〈표 2-1〉 통일 방법 58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72
〈표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74
〈표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76
〈표 3-4〉 남한문화 경험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81
〈표 3-5〉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83
〈표 3-6〉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5
〈표 3-7〉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87
〈표 3-8〉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89
〈표 3-9〉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91
〈표 3-10〉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93
〈표 3-11〉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95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140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42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1-연도별 144
〈표 5-4〉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2-2011-2019 145
〈표 5-5〉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47
〈표 5-6〉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48
〈표 5-7〉 성별 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0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0

표목차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152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53
〈표 5-11〉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155
〈표 5-12〉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156
〈표 6-1〉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2018) 166
〈표 6-2〉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2019) 166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에 대한 후회도 교차분석 169

그림목차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2
〈그림 2-2〉 통일 의지 44
〈그림 2-3〉 통일 이유 45
〈그림 2-4〉 통일 내용 46
〈그림 2-5〉 통일 집단 이익 47
〈그림 2-6〉 통일 개인 이익 48
〈그림 2-7〉 통일 거주 지역 50
〈그림 2-8〉 빈부 격차 52
〈그림 2-9〉 실업 문제 53
〈그림 2-10〉 지역 갈등 54
〈그림 2-11〉 이념 갈등 55
〈그림 2-12〉 통일 시기 56
〈그림 2-13〉 통일 방식 58
〈그림 2-14〉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60
〈그림 2-15〉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61
〈그림 2-16〉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62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72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74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76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78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79
〈그림 3-6〉 남한문화 경험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80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82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5
〈그림 3-9〉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86
〈그림 3-1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88
〈그림 3-11〉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90
〈그림 3-12〉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93
〈그림 3-13〉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95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96
〈그림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106
〈그림 4-2〉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109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111
〈그림 4-4〉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113
〈그림 4-5〉 핵무기 보유 평가 114
〈그림 4-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115
〈그림 4-7〉 필요 월 소득 수준 117
〈그림 4-8〉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118
〈그림 4-9〉 경제 악화의 원인 120
〈그림 4-10〉 경제체제 선호도 122

그림목차

〈그림 4-11〉 사회통제 유지 정도 123
〈그림 4-12〉 생활총화 출석률 125
〈그림 4-1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126
〈그림 4-14〉 외부소식 접촉 경로 127
〈그림 4-15〉 언론에 대한 신뢰도 129
〈그림 4-16〉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130
〈그림 6-1〉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 164
〈그림 6-2〉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포용성 165
〈그림 6-3〉 남한생활 만족도 168
〈그림 6-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2018) 171
〈그림 6-5〉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2019) 171
〈그림 6-6〉 지원정책 만족도 172
〈그림 6-7〉 남한생활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정부지원 제외) 173
〈그림 6-8〉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75

제1장 서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1.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해오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떠하고 남한주민의 통일의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의 의식 부문 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을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식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의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인식이다. 통일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2018년도에는 인권에 대한 항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한 거주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적응에 도움을 받은 경로,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2018년도에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1]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셨습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1] 2019년 설문지는 책 뒤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6/8-8/6	7/20-8/31	8/9-9/6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	-	-	-
2011			1	127	-	-	-	-	-	-	-
2012			-	-	133	-	-	-	-	-	-
2013			-	-	-	149	-	-	-	-	-
2014			-	-	-	-	146	-	-	-	-
2015		-	-	-	-	-	-	135	-	-	-
2016		-	-	-	-	-	-	3	-	-	-
2017		-	-	-	-	-	-	-	132	84	-
2018		-	-	-	-	-	-	-	-	3	114
2019		-	-	-	-	-	-	-	-	-	2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Y	Y	Y	Y	Y	Y	Y	Y
대남의식	Y	Y	Y	Y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Y	Y	Y	Y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Y	Y	Y	Y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실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2〉 통일부의 탈북자 통계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2 (잠정)
남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여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합계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여성 비율(%)	71	73	76	78	80	79	83	85	51

자료 : 통일부 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

〈표 1-3〉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자료 :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올해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다소 줄어들었던 표본 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연도의 총 입국자 수, 눈덩이표집 과정에서의 변수 등 당해 조사의 표본 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표 1-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본 조사의 전체 모집단인 탈북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조사의 표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 1-4〉는 8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9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5.3%, 여성 64.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8.4% 감소했고, 여성의 비율은 약 8.4% 증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여성 비율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31.9%, 30대 22.4%, 40대 20.7%, 50대 17.2%, 60대 이상 5.2%로 집계되었다.

〈표 1-4〉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10대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3 (7.9)	1 (2.0)	0 (0.0)	3 (100.0)
20대	22 (51.2)	21 (66.7)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36.8)	19 (38.8)	20 (54.1)	17 (45.9)
30대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28.9)	10 (20.4)	9 (34.6)	17 (65.4)
40대	10 (32.3)	21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13.2)	5 (10.2)	7 (29.2)	17 (70.8)
50대	6 (35.3)	11 (64.7)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13.2)	14 (28.6)	5 (25.0)	15 (75.0)
60대 이상	7 (53.8)	6 (46.2)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7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2015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6명은 모두 2014년도에 탈북했으며, 이 중 129명은 2014년도에 입국했으며, 17명은 2014년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5년에 입국했다. 2016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8명 중 135명이 2015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99명이 같은 해 입국하였고 36명이 2016년 입국하였다. 2016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입국한 응답자는 3명이었다. 2017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2명 중 132명이 2016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113명이 같은 해에 입국하였고, 19명은 2017년에 입국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87명 중 83명이 2017년도에 탈북하였고 이 중 19명이 이듬해인 2018년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16명 중 114명이 2018년, 2명이 2019년도에 탈북하였고 이 중 77명이 2018년도, 그리고 39명이 2019년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 2015년 평균 2.49개월, 2016년 3.33개월, 2017년은 2.82개월, 2018년은 3.06개월, 2019년은 2.90개월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5년 69.8%, 2016년 44.9%, 2017년 61.4%, 2018년 51.7%, 54.3%를 보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소요기간 \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4	1.5	2.3	0.9
1개월	2.9	1.6	0.0	26.8	30.8	21.0	27.3	27.6	22.4
2개월	25.7	18.1	29.3	48.3	39.0	22.5	32.6	21.8	31.0
3개월	38.1	48.8	47.4	8.1	14.4	15.2	12.1	10.3	11.2
4개월	14.3	14.2	8.3	2.0	6.8	14.5	8.3	20.7	18.1
5개월	1.0	6.3	5.3	4.7	2.1	15.2	8.3	5.7	8.6
6개월	2.9	4.7	1.5	2.7	1.4	2.9	2.3	4.6	5.2
7개월	5.7	0.8	3.8	2.0	0.7	1.4	0.8	1.1	0.9
8개월	1.9	2.4	1.5	1.3	0.0	0.7	3.8	4.6	0.9
9개월	0.0	0.8	0.8	0.7	1.4	1.4	2.3	0.0	-
10개월	2.9	1.6	2.3	0.0	3.4	0.7	0.0	0.0	-
11개월	1.9	0.8	0.0	0.0	0.0	1.4	0.8	0.0	-
13개월	-	-	-	-	-	-	-	1.1	-
14개월	-	-	-	-	-	-	-	-	0.9
무응답	2.9	0.0	0.0	0.0	0.0	1.4	0.0	0.0	0.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3.33	2.82	3.06	2.9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6〉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 2017년 88.6%, 2018년 82.8%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두 지역 비중이 더욱 상승하여 90.5%를 보이고 있다.[2]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0 (0.0)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1 (0.9)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0 (0.0)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0 (0.0)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0 (0.0)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5 (4.3)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18 (15.5)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87 (75.0)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0 (0.0)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1.3)	0 (0.0)	0 (0.0)	0 (0.0)	2 (1.7)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2 (1.7)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2]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59.2%, 17.5%를 차지한다.

(3) 교육수준·직업 분포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 2015년 61.0%, 2016년 74.6%, 2017년 72.0%, 2018년 73.6%, 2019년 70.7%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7.8%, 2014년 31.6%, 2015년 36.3%, 2016년 24.6%, 2017년 25.0%, 2018년 19.5%, 2019년 29.3%로 나타나 올해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7.6	5.7	6.9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17.4	13.8	22.4
고등 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72.0	73.6	70.7
인민학교	1.0	3.2	0.0	1.6	2.1	0.7	2.3	6.9	0.0
무학	0.0	1.6	0.8	0.6	0.7	0.0	0.8	0.0	0.0
무응답	-	1.6	-	-	-	-	-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116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8〉에서 보이듯 2018년보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직업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 2012년 37.0%, 2013년 31.6%, 2014년 30.6%, 2015년 26.0%, 2016년 22.5%, 2017년 43.9%, 2018년 32.2%, 2019년 26.7%이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2015년에는 장사(20.5%), 2016년에는 주부(13.0%), 2017년에는 주부(10.6%), 2018년에는 주부(21.8%), 2019년 역시 주부(21.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12.3%), 2017년(9.8%), 2018년(0.0%)로 하락하였으나 올해는 8.6%로 상승하였다.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43.9	32.2	26.7
농민	8.6	8.7	3.8	7.5	4.8	9.4	3.8	11.5	3.4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6.1	6.9	8.6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7.6	0.0	1.7
학생	6.7	6.3	6.0	7.5	4.8	4.3	2.3	13.8	7.8
군인	5.7	3.9	4.5	4.8	4.8	8.0	5.3	3.4	3.4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1.7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9.8	0.0	8.6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10.6	21.8	21.6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6.8	10.3	16.4
무응답	5.7	1.6	-	-	0.7	-	-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116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9〉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9년 조사에서 11.2%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7.1%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원 30.8%, 노동자 19.2%, 군인 19.2%의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게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왔다. 2016년에는 사무원의 수가 가장 높았고 노동자와 군인의 비중이 같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 비교적 높았던 전문가의 수는 2016년 3.8%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장사,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이는 없었다. 2017년도는 노동자(45.8%)〉사무원, 군인(12.5%)〉전문가, 학생(8.3%) 순으로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노동자(33.3%)〉사무원(25.0%)〉농민(16.7%) 순으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노동자(46.2%)와 가정부인(15.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원,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인구, 장사가 모두 7.7%를 차지하였다.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18.2	13.8	11.2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0.9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80.3	85.1	87.1
무응답	3.8	1.6	-	-	0.7	-	0.8	1.1	0.9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116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8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응답률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35.2%,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 2017년 40.9%, 2018년 20.7%, 19.8%이다. 또한,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 역시 2011년 25.7%, 2012년 25.2%,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 2017년 47.0%, 2018년 51.7%, 올해 2019년에는 66.4%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원	27 (25.7)	32 (25.2)	69 (51.9)	91 (61.1)	80 (54.8)	80 (58.0)	62 (47.0)	45 (51.7)	77 (66.4)
1,000원 이하	7 (6.7)	10 (7.9)	2 (1.5)	13 (8.7)	7 (4.8)	7 (5.1)	8 (6.1)	8 (9.2)	5 (4.3)
5,000원 이하	37 (35.2)	46 (36.2)	49 (36.8)	39 (26.2)	52 (35.6)	37 (26.8)	54 (40.9)	18 (20.7)	23 (19.8)
1만원 이하	2 (21.9)	4 (3.1)	5 (3.8)	2 (1.3)	1 (0.7)	4 (2.9)	0 (0.0)	0 (0.0)	2 (1.7)
10만원 이하	6 (5.7)	9 (7.1)	0 (0.0)	3 (2.0)	4 (2.7)	5 (3.6)	2 (1.5)	9 (10.3)	2 (1.7)
50만원 이하	2 (1.9)	5 (3.9)	4 (3.0)	0 (0.0)	0 (0.0)	3 (2.2)	3 (2.3)	5 (5.7)	6 (5.2)
100만원 이하	1 (1.0)	0 (0.0)	2 (1.5)	0 (0.0)	1 (0.7)	2 (1.4)	2 (1.5)	1 (1.1)	1 (0.9)
100만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0 (0.0)	1 (0.8)	0 (0.0)	0 (0.0)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0 (0.0)	0 (0.0)	1 (1.1)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11〉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 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 2015년 29.5%, 2016년 26.8%, 2017년 34.1%, 2018년 31.0%, 2019년 32.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응답과 '100만 원 초과'의 응답으로 전자의 비중은 2011년 5.7%에서 2015년(24.7%), 2016년(23.9%), 2017년(13.6%), 2018년(13.8%)로 감소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8%를 차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은 2011년 5.7%에서 2015년 23.3%, 2016년 15.2%, 2017년 26.5%, 2018년 14.9%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23.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10만 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4년 17.4%, 2015년 6.2%, 2016년 8.0%, 2017년 8.3%, 2018년 16.1%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6.9%를 기록하였다. 종합하면, 올해조사에서는 '0원 이하' 비중과 '100만원 초과' 비중이 모두 상승하여 비공식 월수입에서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원	18 (17.1)	21 (16.5)	32 (24.1)	33 (22.1)	24 (16.4)	32 (23.2)	18 (13.6)	18 (20.7)	26 (22.4)
1,000원 이하	6 (5.7)	0 (0.0)	3 (2.3)	4 (2.7)	0 (0.0)	2 (1.4)	1 (0.8)	0 (0.0)	0 (0.0)
5,000원 이하	7 (6.7)	2 (1.8)	0 (0.0)	2 (1.3)	0 (0.0)	1 (0.7)	4 (3.0)	1 (1.1)	1 (0.9)
1만원 이하	2 (1.9)	2 (1.6)	3 (2.3)	2 (1.3)	0 (0.0)	1 (0.7)	0 (0.0)	1 (1.1)	0 (0.0)
10만원 이하	18 (17.1)	25 (19.7)	9 (6.8)	26 (17.4)	9 (6.2)	11 (8.0)	11 (8.3)	14 (16.1)	8 (6.9)
50만원 이하	19 (18.1)	44 (34.6)	52 (39.1)	43 (28.9)	43 (29.5)	37 (26.8)	45 (34.1)	27 (31.0)	38 (32.8)
100만원 이하	6 (5.7)	8 (6.3)	12 (9.0)	17 (11.4)	36 (24.7)	33 (23.9)	18 (13.6)	12 (13.8)	16 (13.8)
100만원 초과	6 (5.7)	7 (5.5)	19 (14.3)	15 (10.1)	34 (23.3)	21 (15.2)	35 (26.5)	13 (14.9)	27 (23.3)
무응답	23 (21.9)	18 (14.2)	3 (2.3)	7 (4.7)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2〉를 보면 매년 약 60%에서 70%의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 2017년 69.7%, 2018년 60.9%, 2019년 64.7%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8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8.6%, 농민 48.0%, 사무원 69.9%, 전문가 61.8%, 학생 37.3%, 군인 53.6%, 외화벌이 83.3%, 가정부인 85.5%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있다	68.6	69.3	74.4	69.8	76.7	68.8	69.7	60.9	64.7
없다	27.6	29.9	25.6	30.2	23.3	31.2	30.3	39.1	35.3
무응답	3.8	0.8	-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6) 탈북 후 정보 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3〉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 2017년 76.6%, 2018년 82.7%, 2019년 77.6%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16년 기준으로 360여 만대에 이르며, 휴대전화가 도입되었을 때 평양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목격하기 어려웠던 2002년도와는 달리, 평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통보문)를 보내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3]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행탈북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탈북 후 입국의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26.1	20.5	19.5	22.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50.7	56.1	63.2	55.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23.2	23.5	17.2	21.6
무응답	2.9	-	-	-	0.7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3]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7), p.227.; 미국의소리, "북한은 '통신혁명 중… 휴대전화 가입자 370만 명," (2017.2.6)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4〉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9.0%, 2012년 37.8%로 50% 미만이었다가 2013년 65.4%, 2014년 69.1%, 2015년 58.2%, 2016년 60.9%, 2017년 51.5%, 2018년 50.6%로 50%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019년도에는 같은 비율이 70.7%를 기록하여 조사가 시작 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남한의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추가 탈북자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없다	58.1	62.2	34.6	30.9	41.8	39.1	48.5	49.4	29.3
있다	39.0	37.8	65.4	69.1	58.2	60.9	51.5	50.6	70.7
무응답	2.9	-	-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5〉에서 보이듯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계속 감소했다. 2015년 39.0%로, 2016년에는 42.0%, 2017년 40.2%로 다소 하락했다가 2018년 50.6%로 10.4%p 증가하였지만 올해 다시 33.6%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47.1%, 2017년 45.5%, 2018년 41.4% 다소 하락하였지만 올해 52.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 2012년 9.4%, 2013년 9.0%, 2014년 14.1%, 2015년 17.8%, 2016년 10.9%, 2017년도에는 13.6%, 2018년은 다소 큰 폭으로 5.7%로 하락하였지만 올해 조사결과는 13.8%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40.2	50.6	33.6
결혼 (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47.1	45.5	41.4	52.6
이혼	0.0	9.4	9.0	14.1	17.8	10.9	13.6	5.7	13.8
무응답	5.7	0.8	-	-	0.7	-	0.8	2.3	-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6〉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여전히 가장 많다. 자녀의 수는 결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혼자의 수와 자녀의 수가 0명인 응답률이 동반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과 같이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7.4% 하락하였으나 전체 비중

으로는 세 번째로 전년과 같게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 2014년에 21명, 2015년에는 26명, 2016년에 15명, 2017년 18명, 2018년 5명, 2019년 16명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명	22.9	24.4	38.4	34.2	39.7	43.5	43.2	52.9	43.1
1명	27.6	27.6	32.3	27.5	35.6	33.3	36.4	24.1	39.7
2명	17.1	19.7	24.1	29.5	21.2	18.8	18.9	19.5	12.1
3명	5.7	7.1	4.5	6.7	2.1	4.3	0.8	3.4	0.9
4명	3.8	1.6	0.8	1.3	1.4	0.0	0.8	0.0	2.6
5명	-	-	-	0.7	-	0.0	-	0.0	0.0
무응답	22.9	19.7	-	-	-	-	-	-	-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제2장 통일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1. 서론

북한은 2018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와 그들 주민을 향하여 전략국가로서의 북한의 지위 선양과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2018년의 역사적 사변들을 마주하였던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2018년은 남한의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경사가 있는 해이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북한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이자 "민족적 대사" 등의 표현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통한 적극적 대외 행보를 펼쳤다. 이에 주목되는 점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는 2017년 11월 30일 '화성-15' 발사 후 '우리 국가 제일주의' 천명, 12월 12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달라진 것이다.

새해 첫날 발표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두고 북한은 "긴장완화와 평화, 관계개선에로 돌려놓은 주동적인 제안"이자 "진심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북한은 핵강국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범한 아량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관계를 파국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온갖 성의를 기울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기쁨과 희망"이라는 언급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계 개선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대결과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에서의 만남, 가을 하늘 아래 평양에서의 만남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이어진 회담들, 남북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의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행사 조명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노력한다면 민족의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에 대하여서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것이 탄생하는 력사의 한순간",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주도권은 대화국면을 마련한 조선에" 등으로 그 공이 다름 아닌 북한에, 그들의 지도자 김정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하여 "우리의 진정과 아량을 외면하고", "북남 화해의 극적인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는", "찬물을 끼얹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미국의 눈치만 보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를 북한에 둠으로써 통일 이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당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이유와 생각은 무엇일까?

본 조사는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과 관련된 설문에 기초한다. 설문이 진행된 시기는 2019년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이다. 응답 시점은 2018년으

로 응답자가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질문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에 대한 기대감',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등 통일에 관련된 것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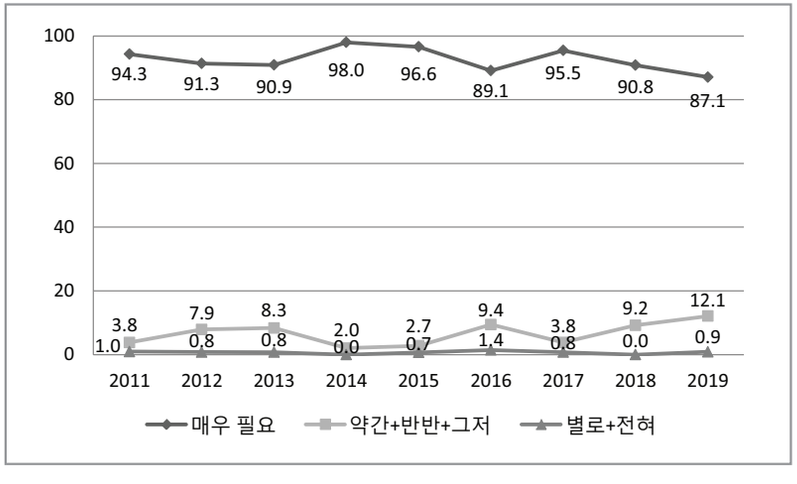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은 87.1%로 '약간 필요하다' 6.0%, '반반/그저 그렇다' 6.0%, '별로 필요하지 않다' 0.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다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9년 87.1%로 2011년 94.3%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2018년 90.8%에 비하여 7.2%p 낮다. 반면, '약간 필요하거나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의 의견은 2011년 3.8%에서 2019년 12.1%로 지난해 9.2%에 이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의 필요성은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세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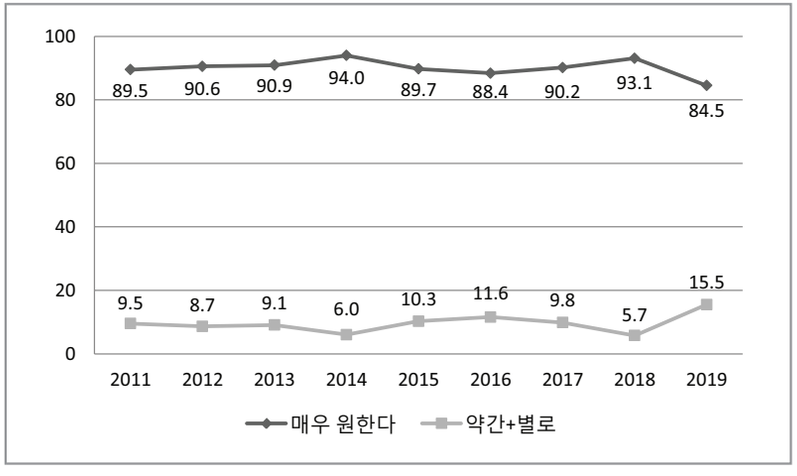
(2) 통일 의지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를 살펴보면 "귀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원한다' 84.5%의 응답이 나왔다.

통일을 '약간 원한다'는 13.8%,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1.7%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인식이 2018년 93.1%에서 2019년 84.5%로 8.6%p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통일을 약간 원하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5.5%로 9.8%p,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림 2-2〉 통일 의지

(단위: %)



미비하기는 하나 통일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김정은 시대 달라진 사회문화적 변화를 짐작케 한다. 즉 공동체성과 개인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이념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개인의 의지가 아닌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의 성격상 통일에 대한 북한 사회 지배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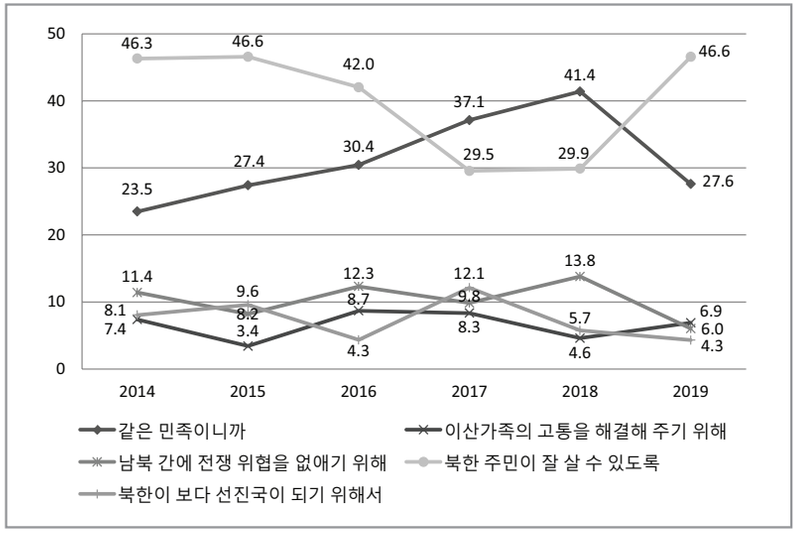
(3) 통일 이유

그렇다면 통일의 이유는 무엇일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6.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16.7%p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같은 민족이니까'는 27.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6.9%,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6.0%,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4.3%로 나왔다. 2018년 41.4%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았던 '같은 민족이니까'는 2019년 27.6%로 13.8%p 하락하였다. 여기에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7.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통일 이유

(단위: %)



이상의 결과는 첫째로, 지난해 남북한 간 여러 차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며 둘째로, 남북한 간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이유로 내세운 미국과 남한의 위협이 사라진 감소했기 때문이다.

3. 통일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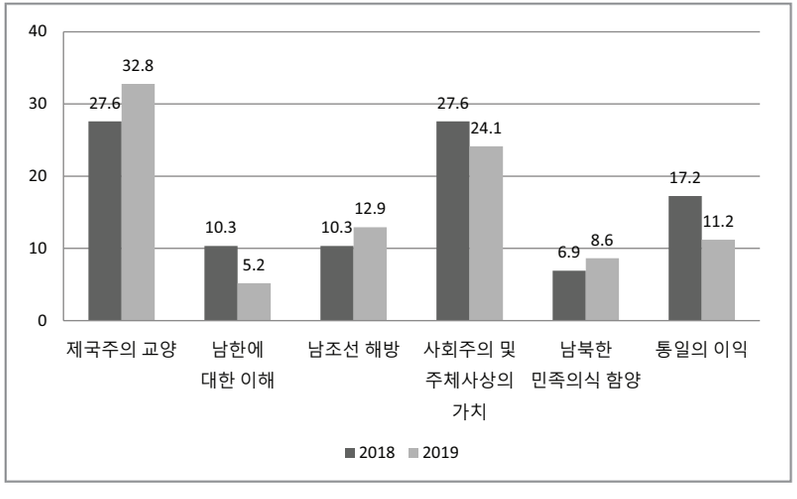
(1) 통일 내용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제국주의 교양' 32.8%,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4.1%, '남조선 해방' 12.9%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되는 것으로는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제국주의 교양'이 5.2%p, '남조선 해방'이 2.6%p.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이 1.7%p 높다. 반면, '남한에 대한 이해'는 5.0%p, '사회주의 가치'는 3.5%p, '통일의 이익'은 6.0%p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통일 내용

(단위: %)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에 기초한 통일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에 대한 이해나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과 같은 실질적 이해보다 체제 이념적 항목이 우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 주민이 느끼는 집단적, 개인적 이익의 기대는 어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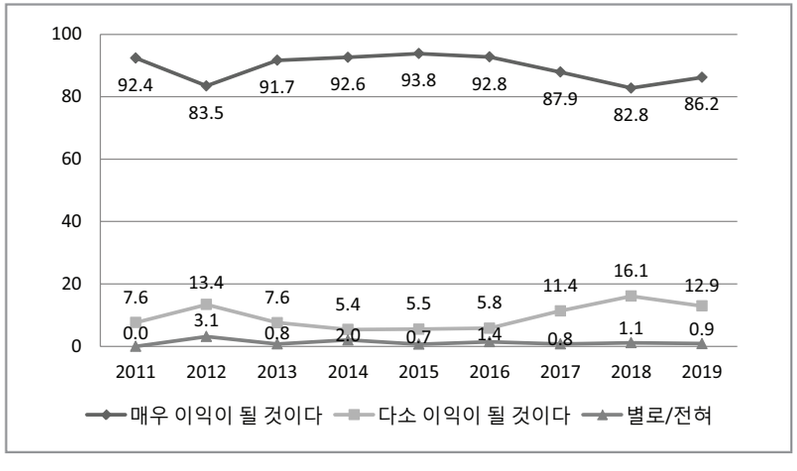
(2) 통일 집단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의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86.2%로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12.9% 보다 73.3%p 높다. 또한,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2.8%에서 2019년 86.2%로 3.4%p 소폭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의 인식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2%에 미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림 2-5〉 통일 집단 이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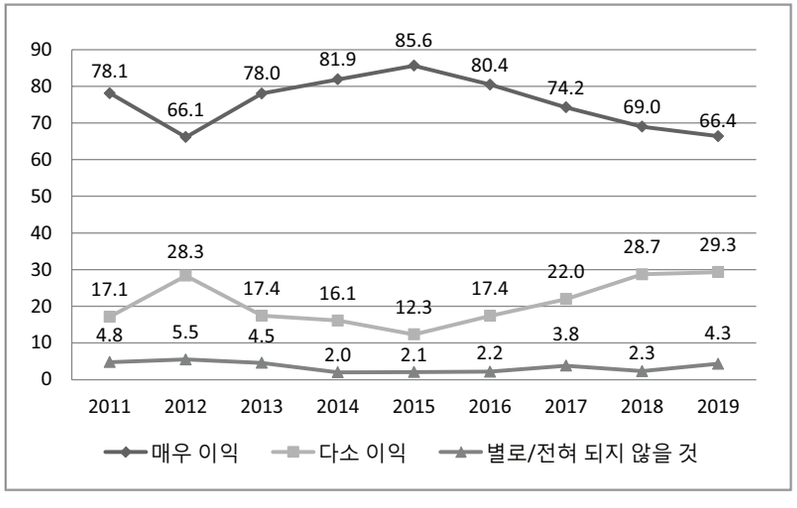
이 인식은 분단으로 인한 외세의 간섭 내지는 분단 후 군사력 강화로 인한 경제적 궁핍, 대북 제재 등의 요인들이 통일과 동시에 사라질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이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을 확인시킨다.

(3) 통일 개인 이익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개인 이익은 어떠한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6〉 통일 개인 이익

(단위: %)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이익의 집단 이익에 비한 차이이다. 앞서 집단이익은 86.2%인 반면, 개인 이익은 66.4%에 머문다. 특히 집단이익이 2018년에 비하여 3.4%p 상승한 반면 개인 이익은 2015년 이후부터 감소하여 2018년 69.0%에서 2019년 66.4%로 2.6%p 하락하였다. 여기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5년 12.3%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9.3%로 2018년 대비 0.6%p 상승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집단에 비하여 개인의 이익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통일을 국가 주도의 정치적 문제로만 여기고 개인의 이익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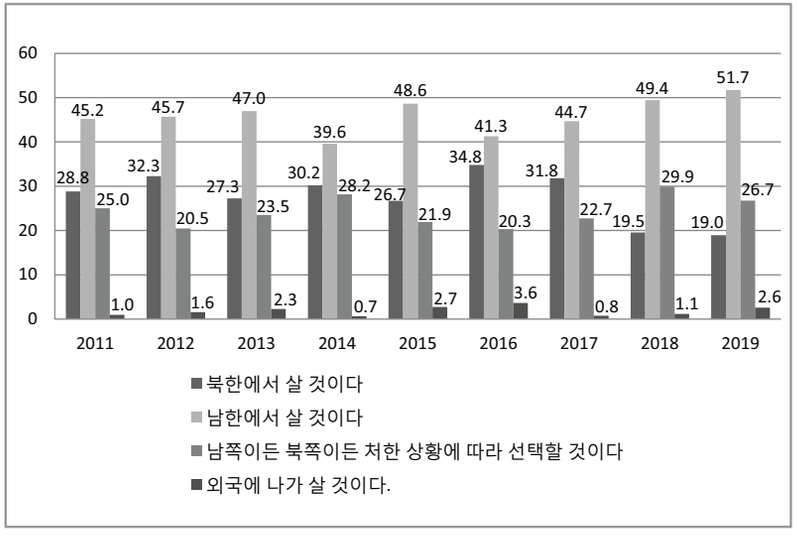
(4) 통일 거주 지역

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하나로 통일 이후 거주 지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살펴보자. 이 경우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의 질문에 '남한에서 살 것이다' 51.7%로 과반이 남한을 지목하고 있다. 북한주민 중 과반은 남한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 49.4%에서 2019년 51.7%로 2.3%p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에서 살 것이다'의 응답은 19.0%,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는 응답은 26.7%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0.5%p 감소하였다. 여기에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인식은 미비하긴 하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7〉 통일 거주 지역

(단위: %)



이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북한보다는 남한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북한 주민은 통일이 되면 삶의 터전을 북한에서 타 지역, 타 국가로 옮길 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4.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한국에 들어온지 1년 미만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 알고 대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조사가 남한 내 사회적 문제들이 1년 미만의 탈북민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 조사는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의 네 변수를 설정하고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의 다섯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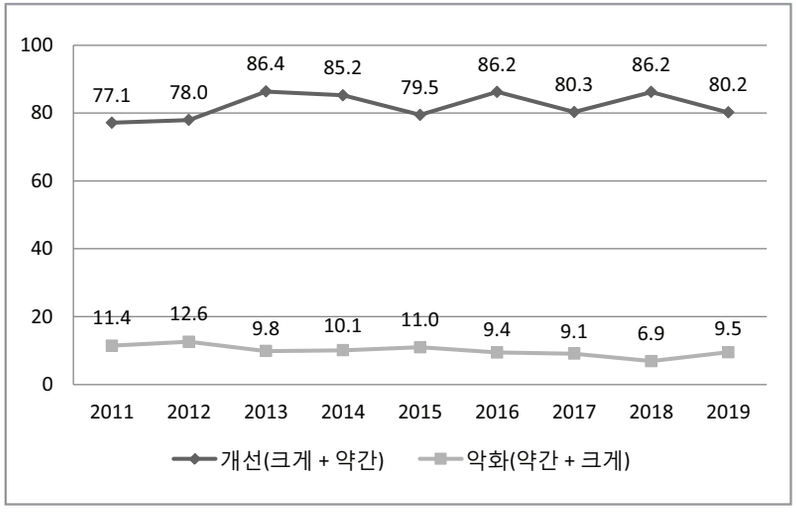
(1) 빈부 격차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중 빈부 격차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80.2%의 응답자들은 그렇다고 보았다.

'크게 개선' 된다는 응답은 49.1%, '약간 개선'은 31.0%로 개선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이에 빈부 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80.2%는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 9.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다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2018년 86.2%보다 2019년 80.2%로 0.6%p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낸다.

〈그림 2-8〉 빈부 격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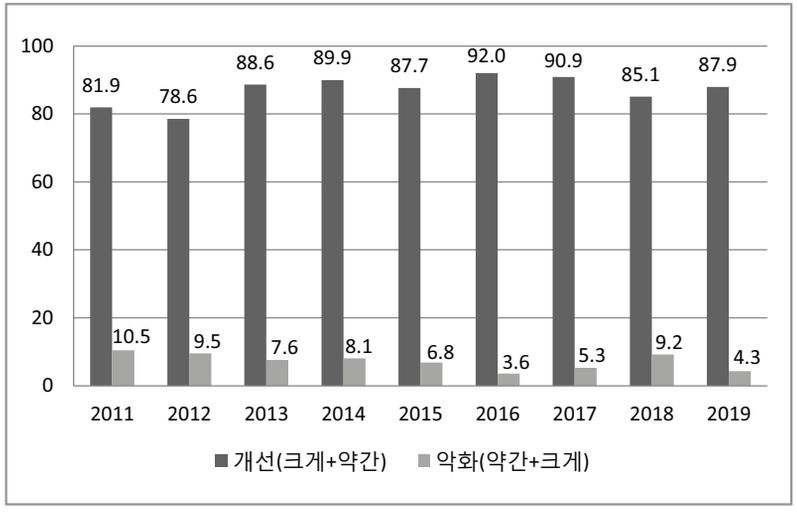
'빈부 격차가 악화' 될 것이라는 인식은 '약간 악화' 3.4%, '크게 악화' 6.0%로 미비한 수준이다. 여기에 '차이 없음'을 나타내는 응답도 9.5%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통일이 사회적 문제인 빈부 격차를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실업 문제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실업문제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림 2-9〉 실업 문제

(단위: %)



구체적으로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에 비하여 83.6%p 높다. 실업 문제가 '크게 개선' 될 것이라는 인식은 66.4%, '약간 개선'은 21.6%를 나타냈다. 또한, 실업 문제가 통일로 인해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5.1%에서 2019년 87.9%로 2.8%p 높아졌다. 반면, '악화(약간+크게)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9.2%에서 2019년 4.3%로 4.9%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차이 없음'에 대한 응답은 7.8%이다. 이에 2019년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면 실업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2018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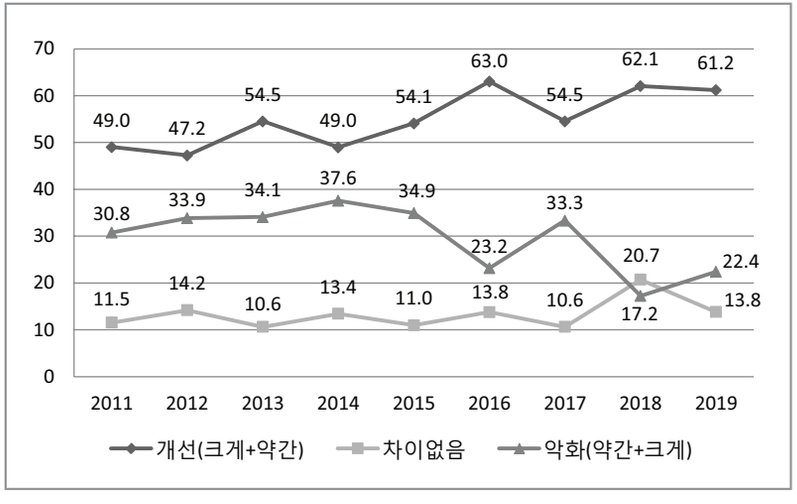
빈부 격차와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통일이 남북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 갈등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지역 갈등에 관한 인식이 앞선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이념 갈등에 비하여 낮다.

〈그림 2-10〉 지역 갈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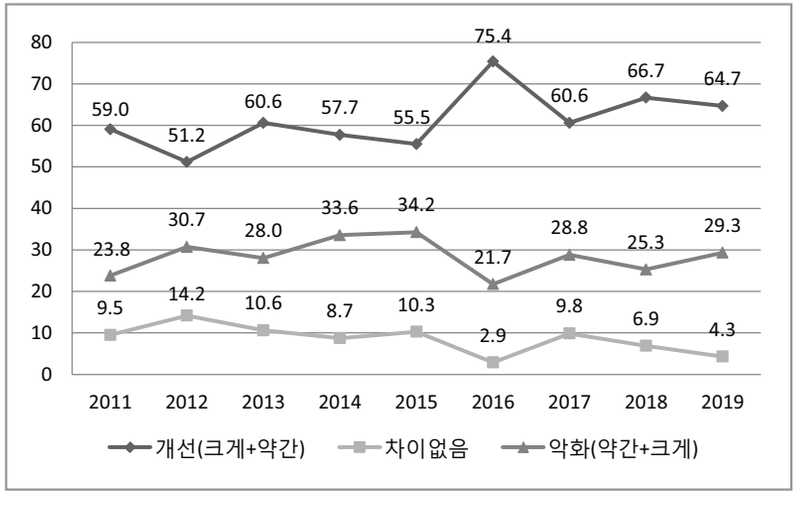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61.2%는 빈부 격차 80.2%, 실업 문제 87.9%, 이념 갈등 64.7%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2018년 20.7%에서 2019년 13.8%로 6.9%p 하락하였다. '약간 악화' 된다는 인식은 8.6%, '크게 악화' 된다는 인식은 13.8%이다. 통일로 인한 지역 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는 경제적 개선의 기대보다는 낮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이념 갈등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이념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차이 없음이라는 인식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이념 갈등에 관하여서는 '개선(크게+약간)된다'는 인식이 2018년 66.7%보다 2019년 64.7%로 2.0%p 소폭 하락하고 있다. '차이 없음'에 관한 인식 역시 2018년 6.9%에서 2019년 4.3%로 2.6%p 하락하고 있어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약간 악화'의 경우 12.9%, '크게 악화'는 16.4%로 나타났다.

〈그림 2-11〉 이념 갈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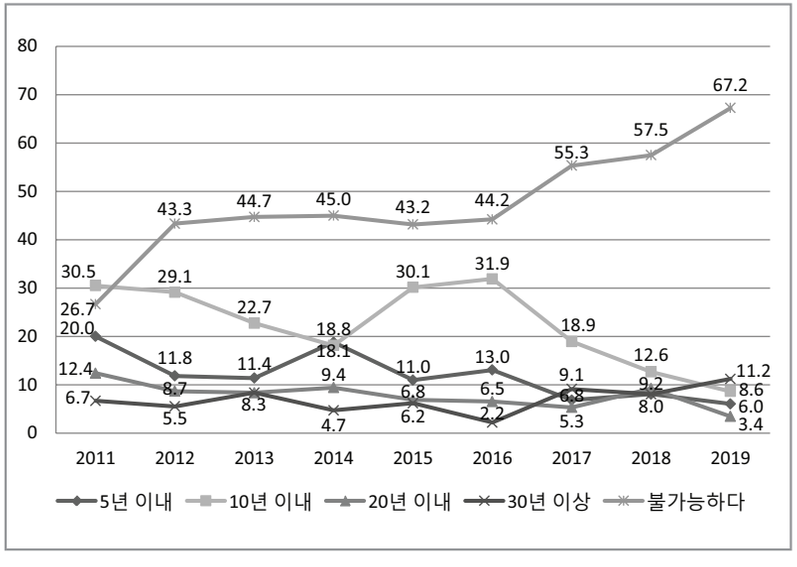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이념 갈등이 개선된다는 인식에 60%이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5. 통일의 시기와 방법

그렇다면 통일의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하여 북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67.2%로 2018년 조사에서 나온 57.5%보다 9.7%p 높게 나왔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1년 26.7%에서 2019년 67.2%로 41.1%p 상승하고 있다. 앞서 확인한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 의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림 2-12〉 통일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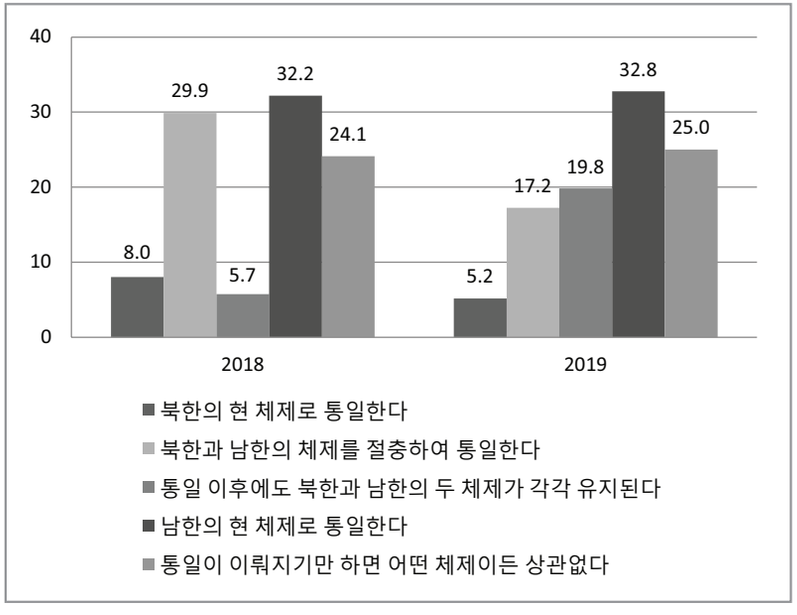


즉 통일은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이는 다음의 결과로도 확인이 되는데, '30년 이상'은 11.2%로 2018년 8.0%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20년 이내'는 3.4%, '5년 이내'는 6.0%이다. 2011년 30.5%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게 출발한 '10년 이내'는 2019년 8.6%로 2018년 비하여 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 주도의 통일 방식에 비하여 북한 내부의 통일 역량이 미비하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자력갱생', '자력자강'을 외치는 북한의 현실이 통일이라는 이상과는 먼 것임을 인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방식에 있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확인된다.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은 2018년 8.0%에서 2019년 5.2%로 2.8%p 하락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인식도 2018년 29.9%에서 2019년 17.2%로 12.7%p 낮아졌다. 반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은 32.8%로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여기에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은 2018년 24.1%에서 2019년 25.0%로 상승하였다. 이 경우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고 보는 시각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9.8%로 14.1%p의 격차를 나타낸다.

〈그림 2-13〉 통일 방식

(단위: %)



주목되는 지점은 두 체제 각각 유지된다는 인식이다. 2018년 5.7%에서 2019년 19.8%로 14.1%p 상승하였는데,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2-1〉 통일 방법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4.7	6.8	8.0	9.1	5.7	19.8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단기간에 활발하였으나 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남북한의 격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격차가 두 체제의 차이를 확인시키는 결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심리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 시기를 떠 올릴 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며 결국은 북한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풀이된다.

6.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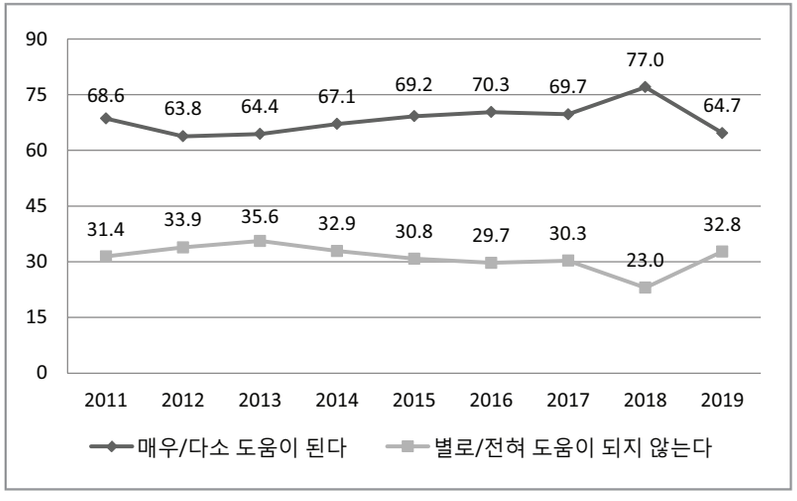
끝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는 다음의 질문과 보기를 제시하였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의 세 변수를 설정하고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네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사의 시점에서 응답자들의 견해를 묻는 것이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64.7%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2018년 77.0%에서 2019년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별로/전혀) 되지 않는다'의 인식은 2018년 23.0%에서 2019년 32.8%로 9.8%p 상승하였다.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도움이(매우/다소) 된다'는 평균 68.3%이며 '도움이(별로/전혀) 되지 않는다'의 평균은 31.2%를 나타냄으로써 과반 이상이 도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2-14〉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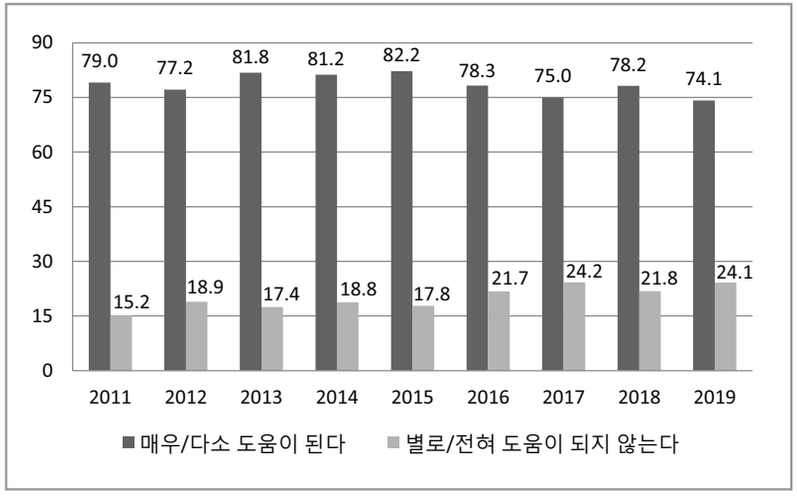
여기에 32.8%의 인식은 이는 이러한 지원이 응답자 개인에게 영향을 덜 주었거나, 그 지원의 횟수가 제제 등으로 도움받는 대상이 줄어드는 등의 외부 자극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사회문화 교류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78.2%에 비하여 2019년 74.1%로 4.1%p 낮다. '도움이(별로/전혀) 되지 않는다'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조사 초기 15.2%에서, 2019년 24.1%로 꾸준히 상승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5〉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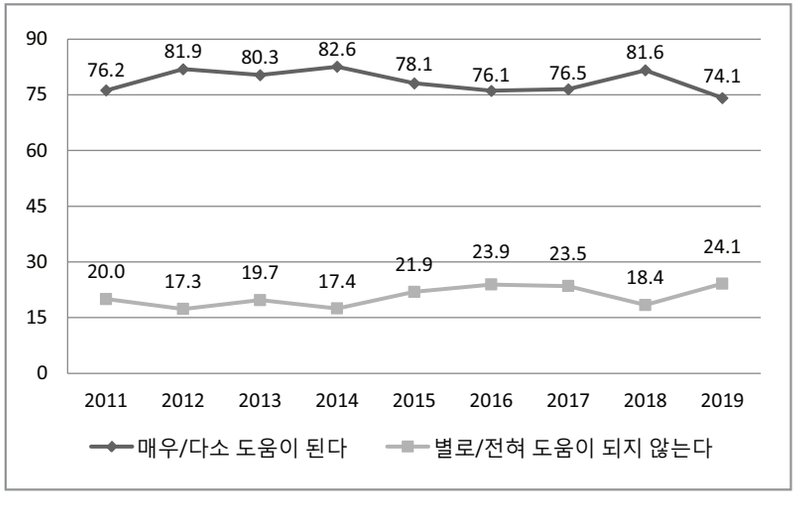
주목되는 지점은 2018년 예술인들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교류가 있은 2018년 조사가 교류가 없었던 과거의 조사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회성 교류의 파급력은 낮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3) 경제협력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2018년 81.6%에서 2019년 74.1%로 7.5%p 감소하였다. '도움이(별로/전혀) 되지 않는다'의 경우 앞선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의 사례와 유사성을 보이며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5.7%p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림 2-16〉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단위: %)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감소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등의 사항이 정치적 변수에 반응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잦은 부침을 겪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7. 소결

본 조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의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응답자들이 2018년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 통일 인식에 주목한다. 조사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에 대한 기대감',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아닌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의 성격상 본 조사는 통일에 대한 북한 사회 지배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의 경우 2018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속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며 그 이유로 북한 주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은 87.1%로 '약간 필요하다' 6.0%, '반반/그저 그렇다' 6.0%, '별로 필요하지 않다' 0.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매우 원한다' 84.5%의 응답이 나왔다. 통일을 '약간 원한다'는 13.8%,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1.7%로 응답자의 대 부분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의 이유에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6.6%로 가장 높다.

둘째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서 응답자들은 국가 주도의 정치적인 문제이자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 살 때 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제국주의 교양' 32.8%,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4.1%, '남조선 해방' 12.9% 순으로 많이 접하였는데, 이는 남한에 대한 실질적 이해보다 체제 이념적 항목이 우선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의 86.2%가 통일은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인 이익은 66.4%에 머문다. 즉 통일이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을 확인시킨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하나로 통일 이후 거주 지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은 51.7%가 남한에서 살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은 통일이 되면 삶의 터전을 북한에서 타 지역, 타 국가로 옮길 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들은 실업문제 87.9% 〉 빈부격차 80.2% 〉 이념 갈등 64.7% 〉 지역 갈등 61.2%의 순으로 보고 있다. 즉 빈부 격차와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통일이 남북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는 경제적 개선의 기대보다는 낮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넷째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서 응답자들은 통일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어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 의지와는 상반되는 지점을 나타냈다. 통일 시기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1년 26.7%에서 2019년 67.2%로 41.1%p 상승하고 있다. 즉 통일은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 주도의 통일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북한 내부의 통일 역량이 미비하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방식에 있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은 32.8%로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하락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소폭 상승하였다.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의 64.7%는 인도적 지원이, 74.1%는 사회문화 교류가, 74.1%가 경제협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도움이(별로/전혀) 되지 않는다'의 인식은 인도적 지원에서 2018년 23.0%에서 2019년 32.8%로 9.8%p 상승, 사회문화 교류에서 조사 초기 15.2%에서, 2019년 24.1%로 상승, 경제 협력에서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5.7%p 상승하는 등의 지표를 보여준다. 그 이유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등의 사항이 정치적 변수에 반응하는 대표적인 것이자 남북관계에 잦은 부침을 겪는 것으로 부정적 인식을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의 역사적 사변들을 마주하였던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으로써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 일부는 통일 인식의 지속성을, 일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사 시점 상 2018년 격변의 시대가 가고 2019년 경색된 남북관계의 상황이 응답자의 인식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을 필요로 한다.

제3장 대남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대남인식

| 문인철 서울연구원

1. 서론

2018년 '한반도의 대전환 시기'라고 일컬어지던 긴장완화 분위기와 달리 2019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남북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북미 핵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북미 간 핵협상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2016년에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완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핵협상 진전을 전제로 '새로운 길'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북한은 부정적 의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에 예고하기도 하였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대미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고, '새로운 길'도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 무엇이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미 간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불신이 상존해 있다. 그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의 인식과 방법, 방향 등 북미 간 인식 간극이 매우 크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체제생존의 수단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핵개발에 쏟아 부었다. 이는 다시 말해 핵 포기에 따른 이익이 핵 개발 과정에서 얻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미 핵 개발 과정에서 얻은 손실과 핵 포기에 따른 이익이 체제생존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미국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제생존을 위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결국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이에 필요한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원하는 체제생존과 핵 폐기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정리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 상황은 지금과 같이 부침을 반복할 것이며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한반도를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남한은 방관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한이 배제된 북핵 협상과 북미 관계 문제는 한반도 평화·통일, 나아가 우리의 안보 및 경제에 있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될 것이고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주민의 상호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번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조사'는 2019년의 한반도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질문은 2019년 남한 입국 이전 응답자들의 북한

거주 당시 대남 인식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응답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한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응답에는 2018년과 2019년의 남북관계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휴리스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최근 경험일수록 편안하고 친숙하게 생각하며, 이를 자신의 평소 생각이라고 믿는 인식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4] 본 장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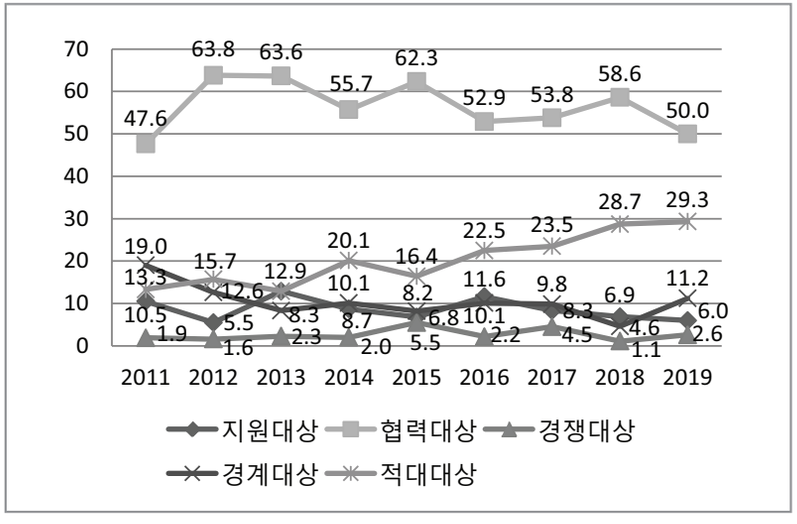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는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0.0%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협력대상)'라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대비 8.6%p 감소한 것이다. 반면,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적대대상)'라는 답변은 29.3%였다. 이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것이다.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답변은 2011년 이후로 각각 가장 낮은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이밖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경쟁대상)'라는 응답은 1.1%에서 2.6%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경계대상)'라는 응답은 4.6%에서 11.2%로 각각 1.5%p와 6.6%p 상승했다. 또한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지원대상)'라는 답변은 6.9%에서 6.0%로 0.9%p 감소했다. 즉, 전년대비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점은 2012년 이후로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로 지원대상과 경계대상에 관한 응답률 순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남한을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감소하고, 적대대상과 경계대상,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상승한 이유는 본 조사가 응답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8년 이전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급격히 감소된 남북교류협력과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의 지속은 북한주민의 부정적 대남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력대상에 대한 응답률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적대대상에 대한 응답률은 2012년 이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률은 두 배 이상 급증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 Slovic, P., Fischoff, B., and Lichtenstein, S., "Facts versus Fears: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in D. Kahneman, P. Slovic and A. Tversky(Eds.),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463-492.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단위: %)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N	11	7	17	13	10	16	11	6	7
	%	10.5	5.5	12.9	8.7	6.8	11.6	8.3	6.9	6.0
협력대상	N	50	81	84	83	91	73	71	51	58
	%	47.6	63.8	63.6	55.7	62.3	52.9	53.8	58.6	50.0
경쟁대상	N	2	2	3	3	8	3	6	1	3
	%	1.9	1.6	2.3	2	5.5	2.2	4.5	1.1	2.6
경계대상	N	20	16	11	15	12	14	13	4	13
	%	19	12.6	8.3	10.1	8.2	10.1	9.8	4.6	11.2
적대대상	N	14	20	17	30	24	31	31	25	34
	%	13.3	15.7	12.9	20.1	16.4	22.5	23.5	28.7	29.3

(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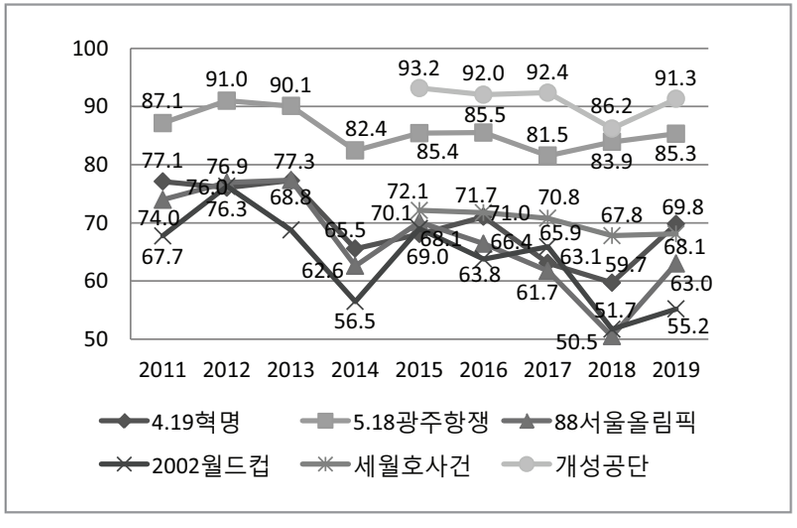
북한주민이 남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질문 하에 '4.19혁명', '5.18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등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모두 상승했다. '5.18광주항쟁'은 83.9%에서 85.3%로 1.4%p, '개성공단'은 86.2%에서 91.3%로 5.1%p, '세월호사건'은 67.8%에서 68.1%로 0.3%p, 2002월드컵은 51.7%에서 55.2%로 3.5%p, '88서울올림픽'은 50.5%에서 63.0%로 12.5%p, 4.19혁명은 59.7%에서 69.8%로 10.1%로 상승했다. 특기할 점은 2019년도 조사는 2018년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즉 2018년도 조사에서는 '5.18광주항쟁'이 2017년도와 같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의 응답률은 감소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고, 개성공단은 2016년까지 가동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반면에 4.19혁명은 1960년, 5.18광주항쟁은 1980년, 88서울올림픽은 1988년, 2002월드컵은 2002년에 일어났다. 즉,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오래전 일들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개성공단(91.3%) 〉 5.18광주항쟁(85.3%) 〉 4.19혁명(69.8%) 〉 세월호사건(68.1%) 〉 88서울올림픽(63.0%) 〉 2002월드컵(55.2%)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건 발생순서와 상관없는 응답률을 보인다. 이러한 순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1년 이후로 큰 틀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70대 3명, 60대 3명, 50대 20명, 40대 24명, 30대 26명,

20대 37명, 10대 3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은 개성공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각 항목에 관한 응답률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기, 남북관계 관련성, 응답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남한 정보 유인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단위: %)



〈표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구분		2018	2019
4.19혁명	N	52	81
	%	59.7	69.8
5.18광주항쟁	N	73	99
	%	83.9	85.3
88서울올림픽	N	44	73
	%	50.5	63.0
2002월드컵	N	45	64
	%	51.7	55.2
세월호 사건	N	59	79
	%	67.8	68.1
개성공단	N	75	106
	%	86.2	91.3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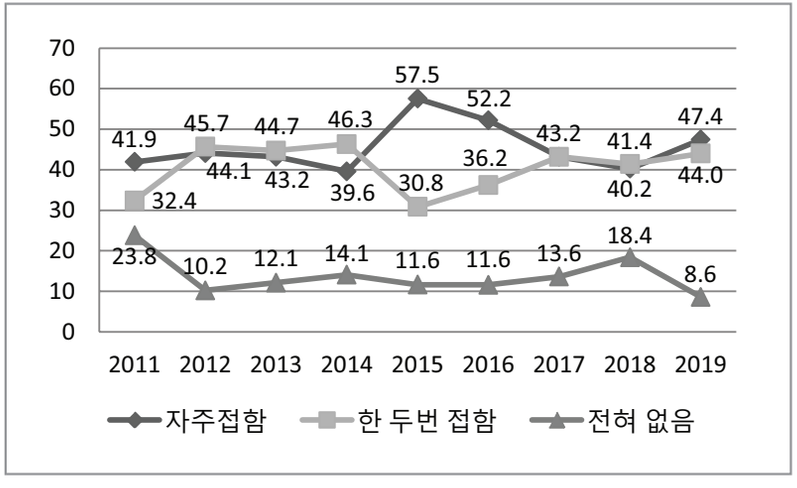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남한문화를 '자주 접했다'라는 응답은 40.2%에서 47.4%로 전년과 비교할 때 7.2%p 상승했다. 또한 남한문화를 '한두 번 접했다'라는 응답은 41.4%에서 44.0%로 전년대비 2.6%p 상승했다. 반면, '전혀 없다'라고 한 응답은 18.4%에서 8.6%로 9.8%p 급감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조사와 정반대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 점은 2012년 이래로 10%대를 유지하던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과 높은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사회통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문화를 접해 보았다는 응답률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간, 기업 간

또는 국가적 차원의 북중 교역 과정에서 중국에 퍼져있는 한류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는 북한의 시장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단위: %)



〈표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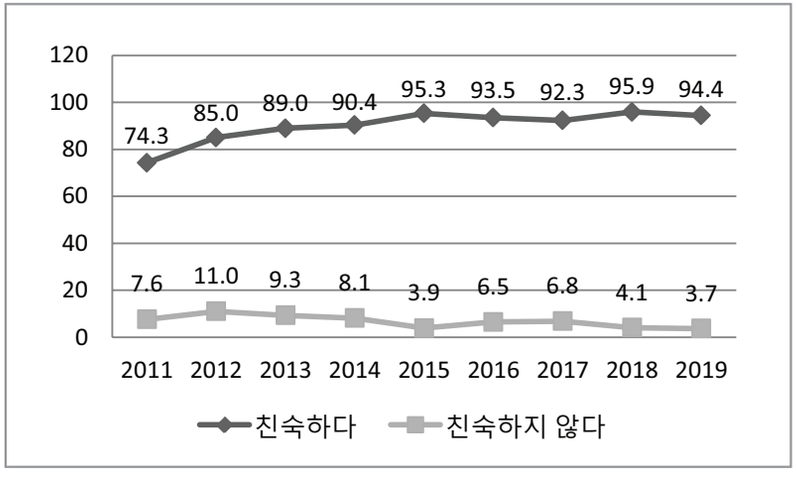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자주 접함	N	35	55
	%	40.2	47.4
한두 번 접함	N	36	51
	%	41.4	44.0
전혀 없음	N	16	10
	%	18.4	8.6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한문화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하였다. 그 결과 94.4%가 '친숙했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5%p 하락했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2011년 이후로 남한문화 친숙도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2014년부터는 9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남한문화를 한 두 번이라도 경험했던 북한주민은 남한문화를 매우 친숙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숙하지 않았다(별로+전혀)'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3.7%로 0.4%p 소폭 하락하였다. 2011년(7.6%) 조사 이래로 2012년(11.0%)을 제외하고 2013년(9.3%)부터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로 남북 교류협력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높은 친숙도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동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오랜 분단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화는 물론이고 일본 및 중국 문화보다는 문화적 공통점이 더 많고 또한 언어적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이를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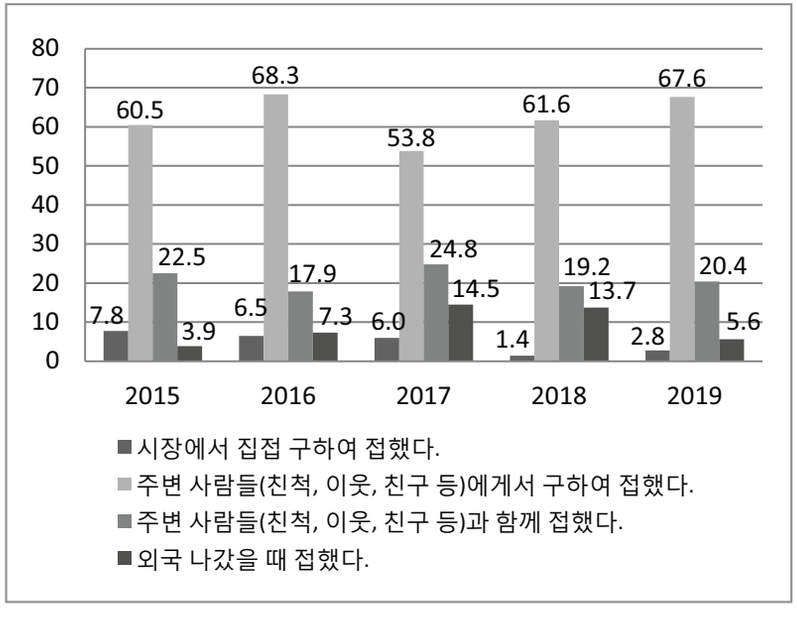


(3) 북한주민은 남한문화 유통경로

앞서 두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어떠한 경로로 남한문화를 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문화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67.6%로 다수를 차지했고,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20.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5.6%로 세 번째를 차지했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순서로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지만,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2016년 68.3%에서 2017년 53.8%로 급감했다가 2018년 61.6%, 2019년 67.6%로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2015년 7.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8년 1.4%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는 2.8%로 다시 상승했다.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9년에 들어가 급감했다. 주목할 점은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라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과 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화된 사회통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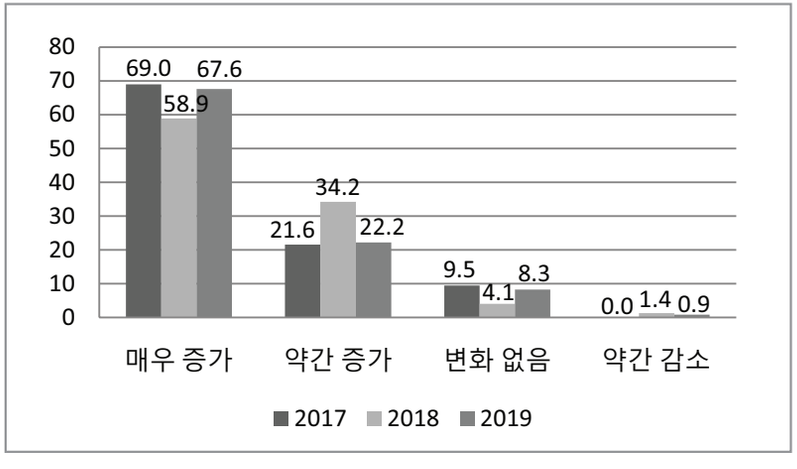


(4)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 변화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진은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남한문화를 접한 이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은 58.9%에서 67.6%로 8.7%p 상승했다. '약간 높아졌다'는 응답은 34.2%에서 22.2%로 12%p 급감했다. 한편, '약간 감소했다'는 응답도 1.4%에서 0.9%로 0.5%p 감소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4.1%에서 8.3%로 4.2%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매우 증가+약간 증가)는 응답은 2018년 93.1%에서 2019년 89.8%로 3.3%p 감소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9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6〉 남한문화 경험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단위: %)



〈표 3-4〉 남한문화 경험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구분		2018	2019
매우 증가	N	43	73
	%	58.9	67.6
약간 증가	N	25	24
	%	34.2	22.2
약간 감소	N	1	1
	%	1.4	0.9
변화 없음	N	3	9
	%	4.1	8.3

(5)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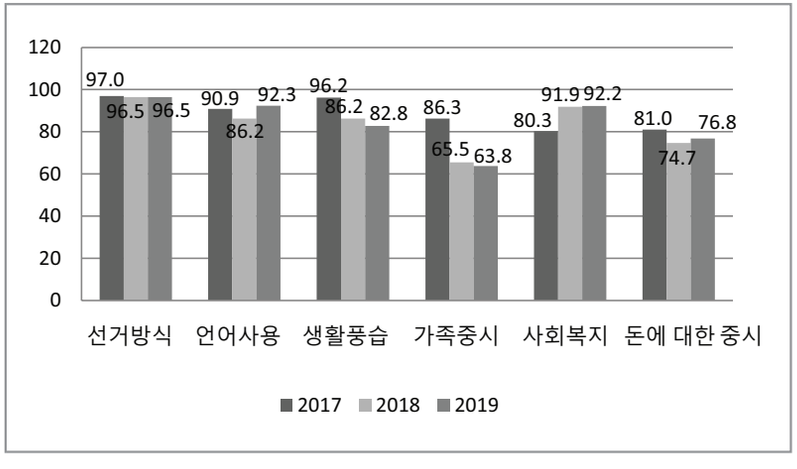
부침은 있었으나 크게 보아 분단 7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갈등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조사들에 따르면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 및 친숙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문화적 이질성 문제는 결코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면 정치·군사적 차원과 별개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북 간 문화적 이질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선거방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가족중시', '사회복지', '돈에 대한 중시' 등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것들이 남한과 북한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선거방식

(96.5%)' > '언어사용(92.3%)' > '사회복지(92.2%)' > '생활풍습(82.8%)' > '돈에 대한 중시(76.8%)' > '가족중시(63.8%)'의 순서로 등 남북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간 이질성 비중은 이전 조사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선거방식'이 가장 이질성이 크고, '가족중시'가 가장 이질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사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언어사용'은 86.2%에서 92.3%로 6.1%p, '사회복지'는 91.9%에서 92.2%로 0.3%p, '돈에 대한 중시'는 74.7%에서 76.8%로 2.1%p로 상승했다. 반면 '생활풍습'은 86.2%에서 82.8%로 3.4%p, '가족중시'는 65.5%에서 63.8%로 1.7%p 하락했다. 한편, '선거방식'은 2018년 96.5%에서 2019년 96.5%로 변화가 없었다.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3-5〉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구분		2018	2019
선거방식	N	84	112
	%	96.5	96.5
언어사용	N	75	107
	%	86.2	92.3
생활풍습	N	75	96
	%	86.2	82.8
가족중시	N	57	74
	%	65.5	63.8
사회복지	N	80	107
	%	91.9	92.2
돈에 대한 중시	N	65	89
	%	74.7	76.8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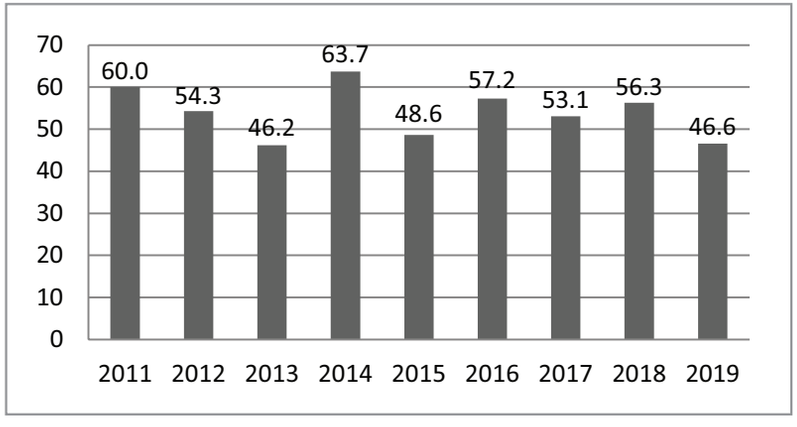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18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응답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8년 이전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2018년과 2019년에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한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 의식은 2018년 56.3%에서 2019년 46.6%로 9.7%p 감소했다. 남한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이 감소한 것과 '적대대상' 및 '경계대상' 인식이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50%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긴 어렵지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 당국이 주장하듯이 핵무기가 남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2012년 이후로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매년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표 3-6〉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구분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N	%
2015	71	48.6
2016	79	57.2
2017	70	53.1
2018	49	56.3
2019	54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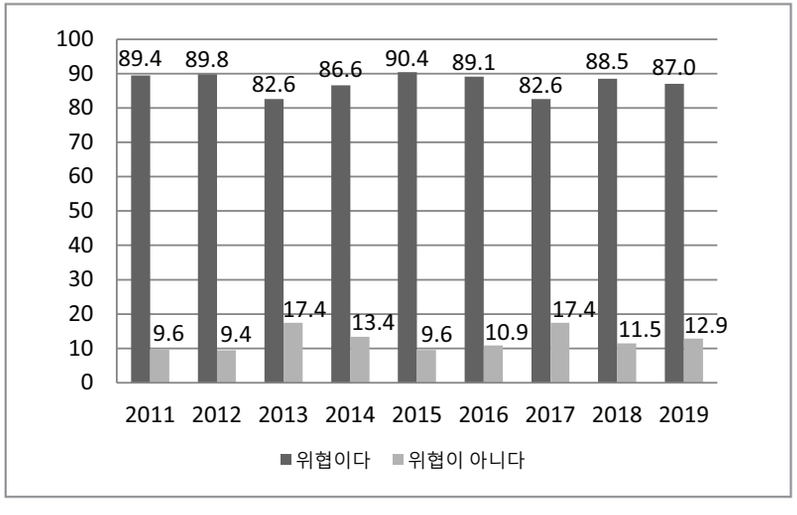
(2) 북한주민의 대남 북핵 위협 인식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만 명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북

한 핵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이 이전과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으로 생각했었나?"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87.0%가 '위협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12.9%의 응답자들만 '위협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즉,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전년대비 1.5%p 감소하고, '위협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전년대비 1.4%p 상승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시기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위협이다'라는 응답률은 80%대, '위협이 아니다'라는 응답률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정 시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2018년 이전의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긴장 완화와 갈등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인해 응답자들이 2018년의 상황을 아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림 3-9〉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단위: %)



〈표 3-7〉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구분	위협이다		위협이다	
	N	%	N	%
2016	123	89.1	15	10.9
2017	109	82.6	23	17.4
2018	77	88.5	10	11.5
2019	101	87.0	15	12.9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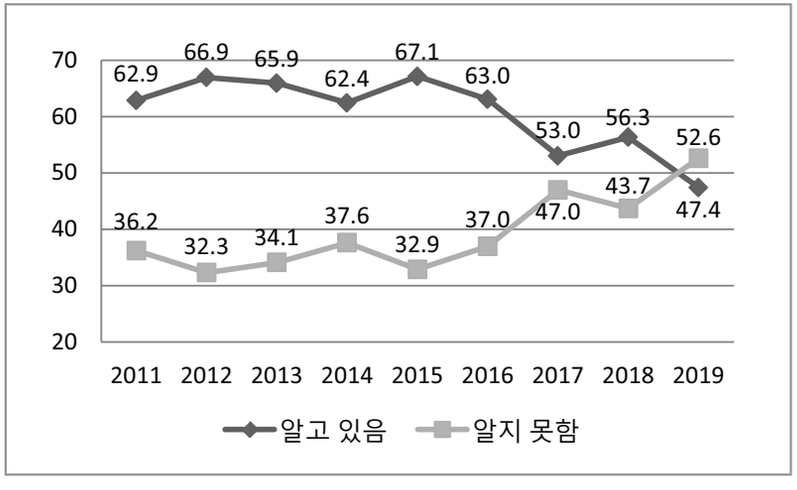
(1)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들 기구에 따르면 2019년 북한에 필요한 식량은 최소 136만 톤이다. UN주재 북한대사는 UN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베트남 정부에 식량 차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단호히 거절했다. 남한의 지원에 대한 북한 정부의 거부는 북한주민의 의사라기보다는 순전히 정치적 문제 때문이다.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 비정치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북한 정치문제에 종속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2008년부터 대북지원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56.3%에서 2019년 47.4%로 8.9%p 하락하였다. 반면,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은 2018년 43.7%에서 2019년 52.6%로 8.9%p 상승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번 조사에서 '알고 있다'와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률이 서로 역전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3-8〉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N	%	N	%
2016	87	63.0	51	37.0
2017	70	53.0	62	47.0
2018	49	56.3	38	43.7
2019	55	47.4	61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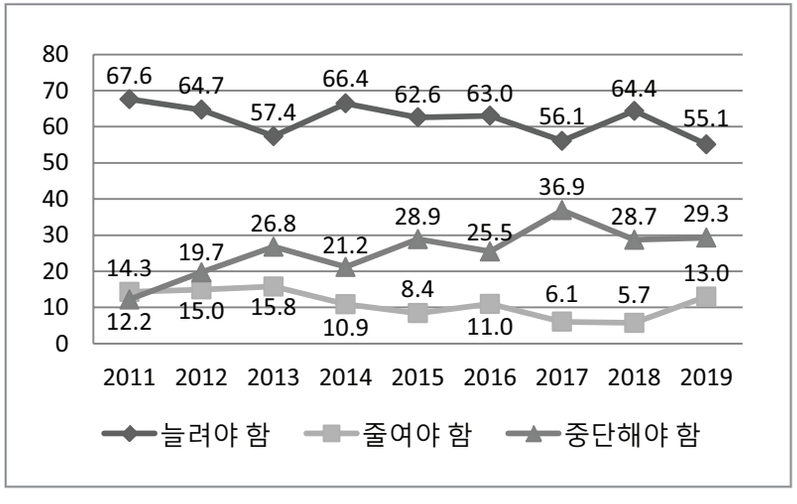
(2)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경제협력은 남북 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식량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 당국은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의 실질적 주체는 북한주민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북한주민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 64.4%에서 2019년 55.1%로 9.3%p 감소했다. 반면, '남한의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3.0%로 7.3%p 증가했다. 또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018년 28.7%에서 2019년 29.3%로 0.6%p 증가했다.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따르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줄여야 한다'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주장대로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경제 및 식량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각에서는 2018년 초 북한이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경제제재를 못 견뎌 대화를 제의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주장대로 핵무력 완성에 따른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일련의 국가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 이상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단위: %)



〈표 3-9〉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구분	늘려야 함		줄여야 함		중단해야 함	
	N	%	N	%	N	%
2016	87	63.0	15	11.0	35	25.5
2017	74	56.1	8	6.1	48	36.9
2018	56	64.4	5	5.7	25	28.7
2019	64	55.1	15	13.0	34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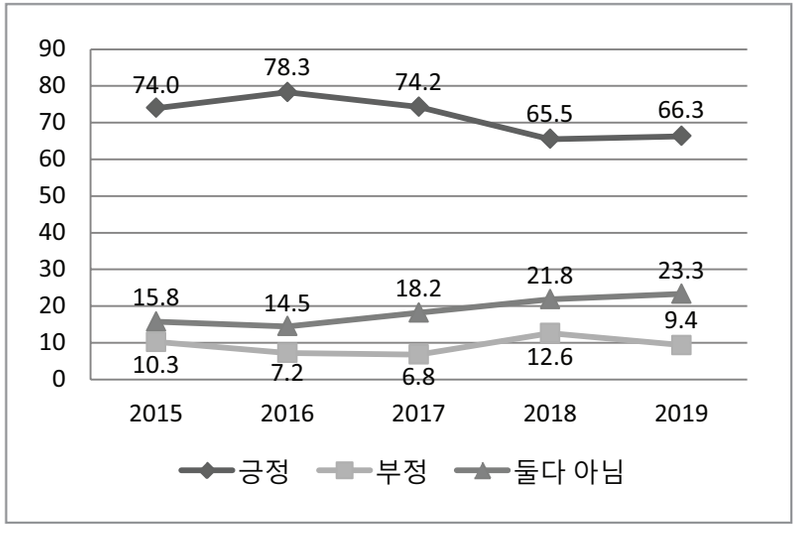
(3)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핵협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미국과의 핵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였고, 미국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미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현 국무부 부장관)가 서울에 방문하였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끝내 북미 대화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태풍피해 복구 지원 및 식량지원 의사를 다시 한 번 북한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남북관계는 철저히 북핵문제에 종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

한은 점차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남한은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당장에 시작할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경제 및 식량 사정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주민은 대북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8년 65.5%에서 2019년 66.3%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12.6%에서 9.4%로 감소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평가'는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조사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주민은 '지원'이 갖는 의미 그 자체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대북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길 바라지만, 과거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림 3-12〉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단위: %)



〈표 3-10〉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N	%	N	%	N	%
2016	108	78.3	10	7.2	20	14.5
2017	98	74.2	9	6.8	24	18.2
2018	57	65.5	11	12.6	19	21.8
2019	77	66.3	11	9.4	27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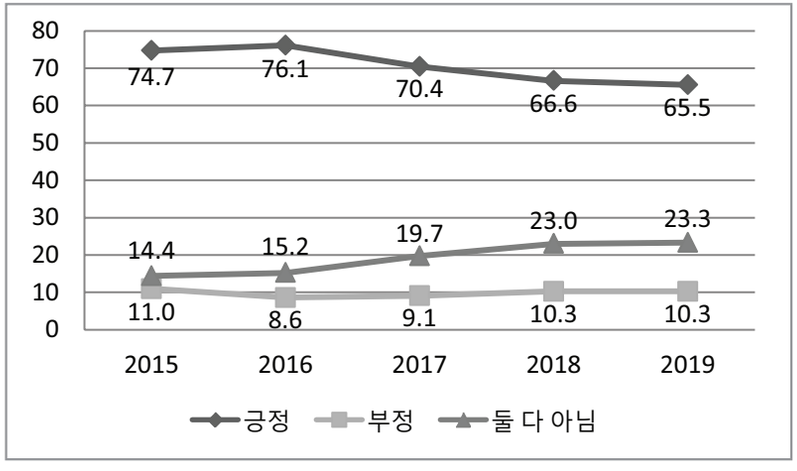
(4)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 평가

현재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거부하는 반면, 남북 경제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오랜 기간 경제난을 겪고 있

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은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이는 북한 시장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018년 66.6%에서 2019년 65.5%로 1.1%p 감소하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전년도와 같은 10.3%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응답은 23.0%에서 23.3%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시장화로 인해 북한주민 개개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충분히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긍정평가는 2016년 이래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긍정평가가 여전히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 대다수는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단위: %)



〈표 3-11〉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N	%	N	%	N	%
2016	105	76.1	12	8.6	21	15.2
2017	93	70.4	12	9.1	26	19.7
2018	58	66.6	9	10.3	20	23.0
2019	76	65.5	12	10.3	27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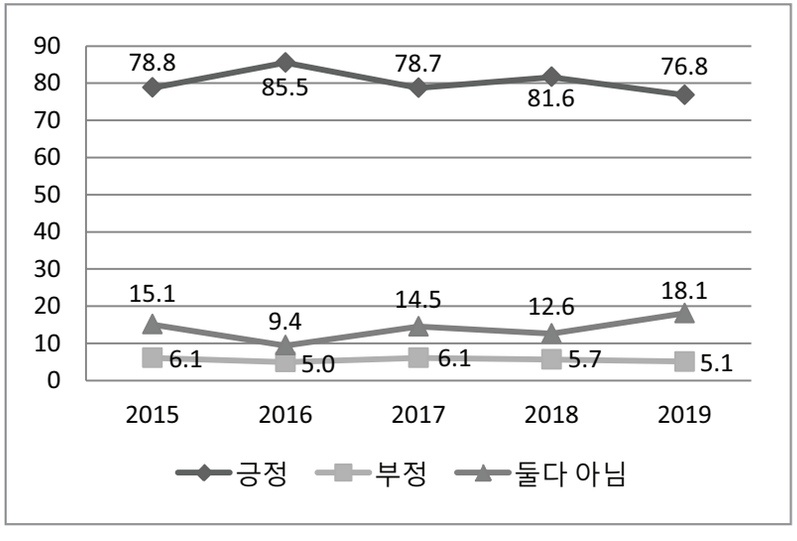
(5)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개성공단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매우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개성돈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76.8%가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8년 81.6%에서 4.8%p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 평가도 5.7%에서 5.1%로 0.6%p 감소했다. 한편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는 12.6%에서 18.1%로 5.5%p 증가했다. 긍정 평가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7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례로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단위: %)



6. 소결

본 조사는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남인식의 경우 2018년 개선된 남북관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58.6%에서 50.0%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28.75에서 29.3%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남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도 4.6%에서 11.2%로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등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두 증가하였다. '5.18광주항쟁'은 83.9%에서 85.3%로 1.4%p, '개성공단'은 86.2%에서 91.3%로 5.1%p, '세월호사건'은 67.8%에서 68.1%로 0.3%p, 2002월드컵은 51.7%에서 55.2%로 3.5%p, '88서울올림픽'은 50.5%에서 63.0%로 12.5%p, 4.19혁명은 59.7%에서 69.8%로 10.1%로 상승했다.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오래전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에 관한 응답률은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이기

보다는 개인 경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한문화를 '자주 접했다'라는 응답은 40.2%에서 47.4%로 상승했다. 또한 남한문화를 '한두 번 접했다'라는 응답은 41.4%에서 44.0%로 상승했다. 반면, '전혀 없다'라고 한 응답은 18.4%에서 8.6%로 급감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와 같이 2018년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 점은 10%대를 유지하던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본 조사가 특정 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 경색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높아진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94.4%의 응답자들은 남한문화가 '친숙했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주목할 점은 2011년 이후로 남한문화 친숙도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주민은 남한문화를 매우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북한주민이 어떻게 남한문화를 접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7.6%가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20.4%가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로 응답자의 5.6%가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고 답했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전 조사들과 비교할 때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94.4%의 응답자들이 남한문화에 대해 친숙함을 나타냈지만, 이와 달리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경험한 후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67.6%가 남한문화를 접한 이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8.7%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약간 높아졌다'는 응답은 34.2%에서 22.2%로 12%p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남한문화를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설문들이 북한에서의 경험을 묻고 있다면,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응답자들의 남한 경험을 묻고 있다.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간 이질성 비중은 매년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거방식'이 가장 이질성이 컸고, '가족중시'가 가장 이질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6.5%)' 〉 '언어사용(92.3%)' 〉 '사회복지(92.2%)' 〉 '생활풍습(82.8%)' 〉 '돈에 대한 중시(76.8%)' 〉 '가족중시(63.8%)'의 순서로 이질성 차이를 선택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은 분단 70여 년 동안 군사적 대치를 해왔다. 그 때문에 남북 군사 문제는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도 결국 남북한 군사적 문제로 수렴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남한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의 46.6%가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9.7%p 감소한 것이다. 앞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낮아지고, '적대대상'과 '경

계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북핵이 남한에 얼마나 위협인지 질문하였다. 전년대비 1.5%p 감소한 응답자들의 87.0%가 '위협이다'라고 답한 반면, 전년대비 1.4%p 상승한 12.9%의 응답자들이 '위협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위협이라는 응답률이 80% 후반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주민들은 북한 핵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반면, 남한의 지원에는 거절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와 대북지원 규모, 대북 경제 투자에 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응답자들의 전년대비 8.9%p 하락한 47.4%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년대비 8.9%p 상승한 52.6%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년대비 9.3%p 감소한 55.1%의 응답자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년대비 7.3%P 증가한 13%의 응답자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9.3%로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세 번째로 전년대비 0.8%p 증가한 66.3%의 응답자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년대비 3.2%p 감소한 9.4%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년대비 1.1.%p 감소한 65.5%의 응답자들이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저년도와 같은 10.3%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개성공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과 관련해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년대비 4.8%p 감소한 76,8%의 응답자들이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년대비 0.6%p 감소한 5.1%의 응답자들은 개성공단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리하면, 본 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의 인식을 묻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18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억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완전히 2018년의 한반도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남한을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감소하고, 적대대상과 경계대상,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상승했다. 반면,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10%p 가까이 감소했다. 이처럼 조사 항목에 따라 2018년과 그 이전의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남한주민 대상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주요 이유라 보이지만 한편으론 2018년 이전 오랜 기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이라고 보인다.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또 다시 드러났다.

제4장 북한실태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9년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역사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경색된 분위기에 직면하였다. 하노이에서 귀국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을 거세게 비판하며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연초 신년사에서 운을 띄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4일과 9일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가 하면, 7월 25일과 31일, 8월 2일과 6일, 24일에도 방사포 등을 발사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려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올해의 조사는 이처럼 작년에 고양된 한반도 평화분위기와 특히 작년 4월 20일에 선언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 즉 병진노선을 마감하고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에 대상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2019년 국내에 입국한 지 1년 안팎의 북한이탈주민들로, 2018년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의 실태를 물어본 것이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최근의 상황이 영향을 줌으로써 북한실태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최근에는 양강도 지역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적 편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조사에서 총대상자 116명 중 87명이 양강도 출신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16%는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91%라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북한전체를 대변하기보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조중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인식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2014년 한 기관이 단동에 나와 있던 주로 평양출신의 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조사를 비교해 봐도 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전체 주민의식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싶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는 북한연구의 특성상 대상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최대한 북한의 최근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접조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실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18개의 질문을 하였으며, 이 내용을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의 세 범위로 나누어 분석·평가해 본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과거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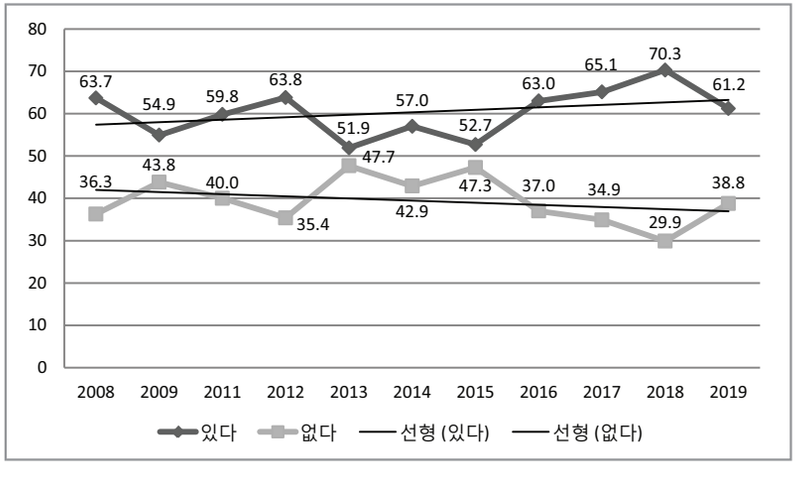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으며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4-1〉에 나와 있듯이 2019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61.2%가 '있다'(매우 큰 자부심 34.5%+약간의 자부심 26.7%)로 응답했고, 38.8%가 '없다'(별로 없다 29.3%+전혀 없다 9.5%)로 응답하여 약 6:4의 비율로 주체사상 자부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별로 없다'가 29.3%, '약간 있다' 26.3%이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9.5%로 매우 적었다.

〈그림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단위: %)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큰 자부심'은 지난 1년 동안 42.7%→34.5%로 8.2%p 감소했으며, '약간의 자부심'은 27.6%→26.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20.7%→29.3%로 8.6%p 상승했으며,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9.2%→9.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70.3%→61.2%로 9.1%p 감소하였다.

2008년-2019년까지 지난 10여년의 추이를 보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하락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2013-2015년 사이에 주체사상 자부심이 하락하다 2016-2018년에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주민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낮아졌다가 2016년 이후 높아졌다. 뒤에서 언급하게 되겠지만 주민들은 2015-2016년에 사회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인식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막 출범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전 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정감 때문에 주체사상 자부심도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경제-핵 병진노선'을 선언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강성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 자부심은 성별, 연령, 직업, 당원여부, 교육 등의 변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의 경우 연령(세대) 변수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0대 연령층을 기준으로 포물선 형태의 의식지형이 형성되어 있었다. 즉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에서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

는 연령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지역(0.05수준), 친척유무(0.01수준), 장사경험(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탈북자가 가장 많은 함경남북도와 양강도의 세 지역을 나눠보면, 양강도 지역에서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함경북도, 그리고 함경남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친척유무로는 남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보다 친척이 없는 사람이 주체사상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있었고,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장사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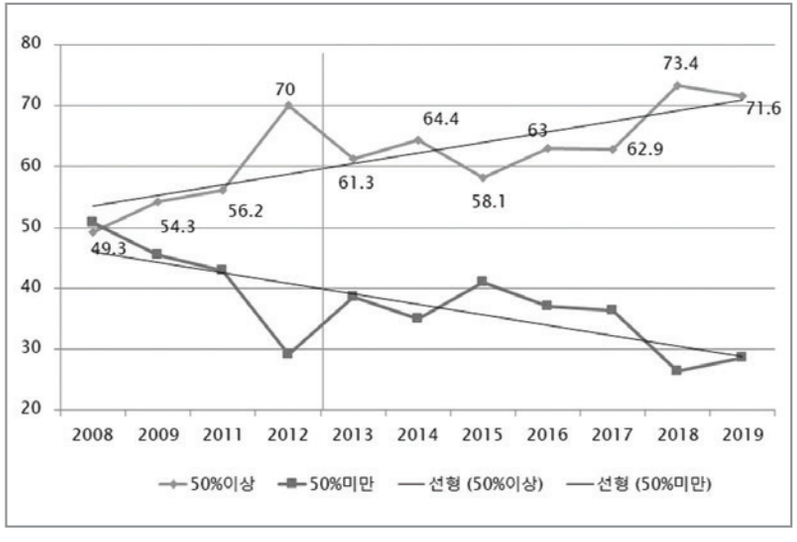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의 변화가 최근 흐름을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1년 동안 북한이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의 자부심은 오히려 9.1%p 하락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뒤에서 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을 뿐,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사회통제력도 떨어지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무평가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주체사상 자부심만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위의 해석을 연장해서 본다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강성국가' 이미지를 약화시켜 주체사상 자부심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10% 미만에서 90%이상까지로 9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2019년의 결과를 보면 '50%'라는 응답자가 2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0%이상'(18.1%), '80%'(13.8%)로 응답하여, 50%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1.6%였다. 반면 50%미만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28.5%였다.

〈그림 4-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단위: %)



2018년과 비교해 보면, 50%라는 응답자가 14.9%→20.7%로 증가한 반면, '90%이상'이라는 응답자는 24.1%→18.1%로 줄었고 '10%미만'이라는 응답도 13.8%→5.2%로 줄었다. 즉 응답자들이 양극단의 평가를 지양하고 50%라는 중간적 평가를 선호하였다.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북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주민지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집권당시 61.3%로부터 올해 71.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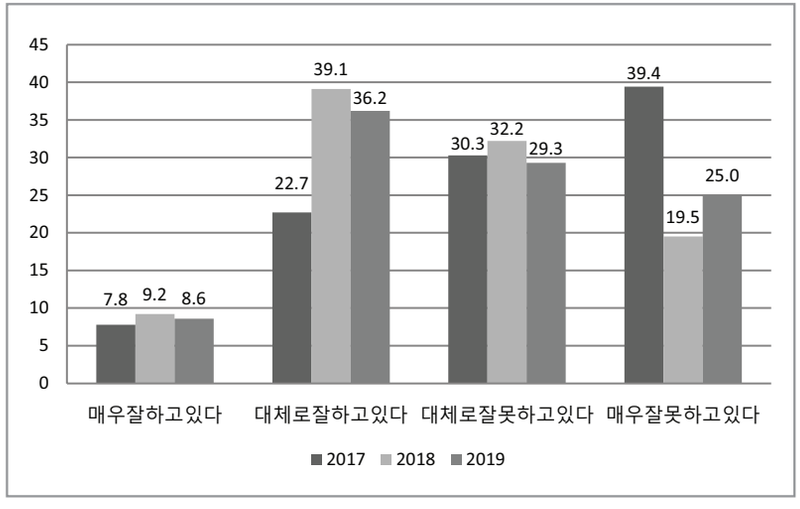
지지도 71.6%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수치라고 보겠지만 일반적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지도는 집권당시 김정일의 마지막 위상(70%)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시 61.3%의 지지도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핵무기 완성 등의 정책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에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이유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 최고조에 달하고 이제 하락 추세에 돌입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직무 평가 항목은 2017년부터 새로 도입하여 지난 3년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단위: %)



2019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대체로)는 44.8%(8.6%+36.2%)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대체로 잘못+매우 잘못) 54.3%(29.3%+25.0%)보다 9.5%p 낮았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해의 48.3%에 비해 3.5%p 하락하였다. 2018년 김정은 직무평가가 16.4%p라는 워낙 높은 차이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올해 3.5%p 하락한 것은 그다지 큰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김정은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직무평가도 올해는 작년까지의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어서 향후 이것이 장기 추세로 진행될지, 아니면 재반전으로 전환될지 향후 1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직무 평가는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양강도에서 가장 낮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순으로 높았다. 양강도 지역주민의 의식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함경북도가 그 다음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함경남도는 가장 더딘 의식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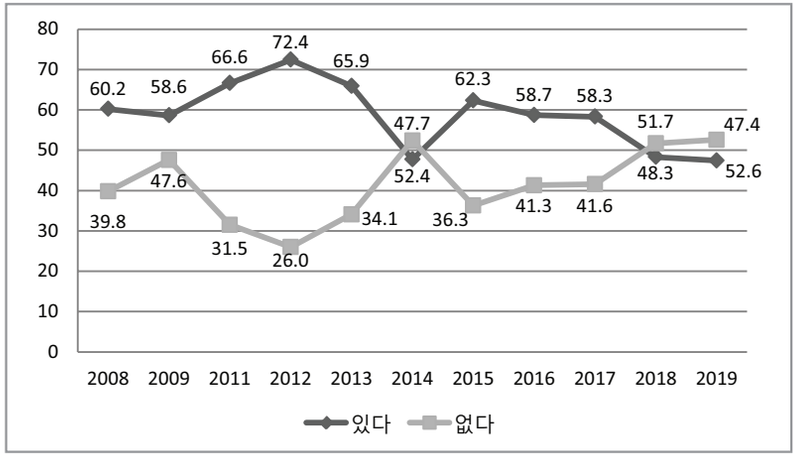
(4)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라 묻고,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2018년 비판행위가 '없다'는 인식 52.6%(대체로 없다+전혀 없다)이 '있다'는 인식 47.4(매우 많다+약간 있다)보다 5.2%p 높았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4〉에 나와 있듯이, 65.9%(2013년)→62.3(2015년)→58.3%(2017년)→47.4%(2019년)로 김정은 집권 이후 비판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비판행위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10%이하로 북한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소극적 행위에 머물로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은 비판행위가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아져 그 이전보다 정치사회가 더 안정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림 4-4〉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단위: %)



그 이유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제와 기업책임관리제 등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여 지방산업 영역에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당국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당7차대회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발표하고 작년 4월 20일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을 제시한 데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부터 급격히 변화되는 평양의 모습, 시장화의 진전, 핵무기의 완성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들로 북한주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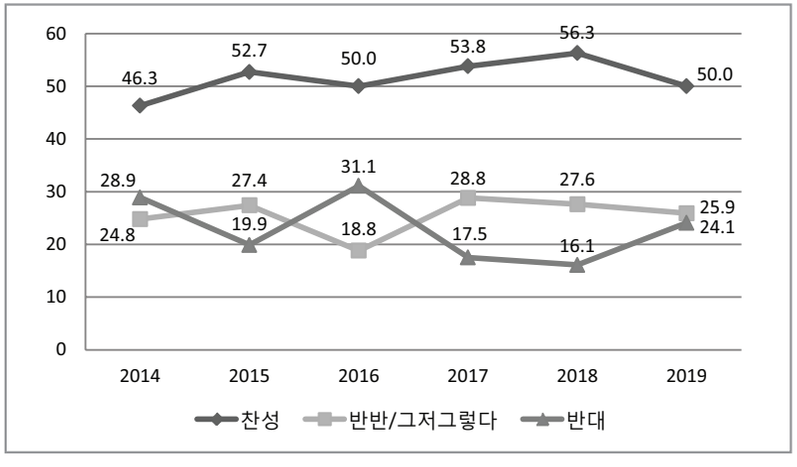
(5) 핵무기 보유 평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의 5개 항목을 보기를 제시하였다. 2019년의 경우, '찬성'이 50%, '반대'가 24.1%, '반반/그저그렇다'가 25.9%로 찬성이 반대보다 약 2배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찬성'이 56.3%→50.0%로 6.3%p 낮아진 반면, '반대'는 16.1%→24.1%로 8.0%p 높아졌다. 지난 수년 동안 상승세를 타던 '찬성' 분위기가 지난 1년 사이에 조금 달라진 것이다.

〈그림 4-5〉 핵무기 보유 평가

(단위: %)



지난 수년간의 변화를 보면 '찬성'이 50%대로 '반대'보다 약 2배가 많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반대' 분위기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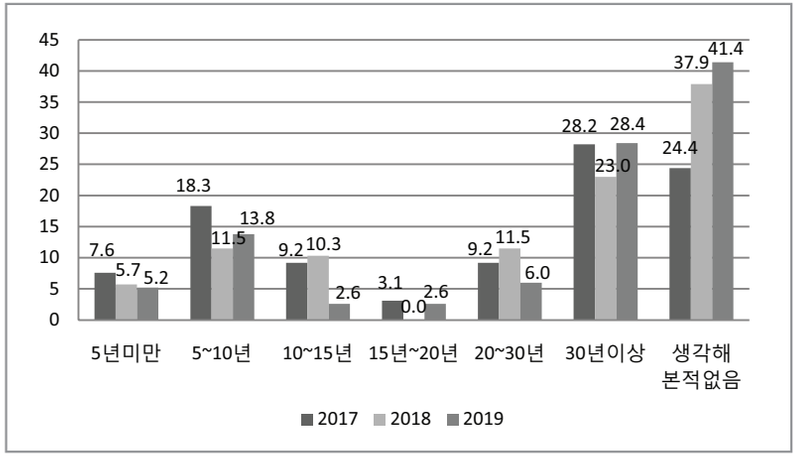
조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살펴보면, '찬성'의 경우 2014년 46.3%에서 2018년 56.3%로 10%p 상승한 반면, '반대'는 2014년 28.9%에서 2018년 16.1%로 12.8%p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2019년에 꺾인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 강행,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등으로 핵무기 보유 논리가 주민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었으나, 작년 비핵화 협상 진행 등으로 핵보유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가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의 각각의 보기 항목에 한하여 아래 〈그림 4-6〉 과 같이 나타냈다. '생각해 본적 없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28.4%)이 그 다음으로 많아 약 70%가 북한 정권 지속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5년 미만'은 5.2%로 단기 붕괴 가능성을 예상하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그림 4-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단.%)



지난 3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에 장기유지 예상 쪽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2019년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정권유지 예상 기간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24.4%→37.9%→41.4%로 가장 현격한 상승변화를 보였고, '5년 미만'(7.6%→5.7%→5.2%)과 '5-10년'(18.3%→11.5%→13.8%)이라는 단기예상과 '10-15년'(9.2%→10.3%→2.6%)이라는 중기예상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북한정권의 장기유지를 예상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면서 초기의 불안정감이 다소 해소됨과 동시에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주민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정권에 거는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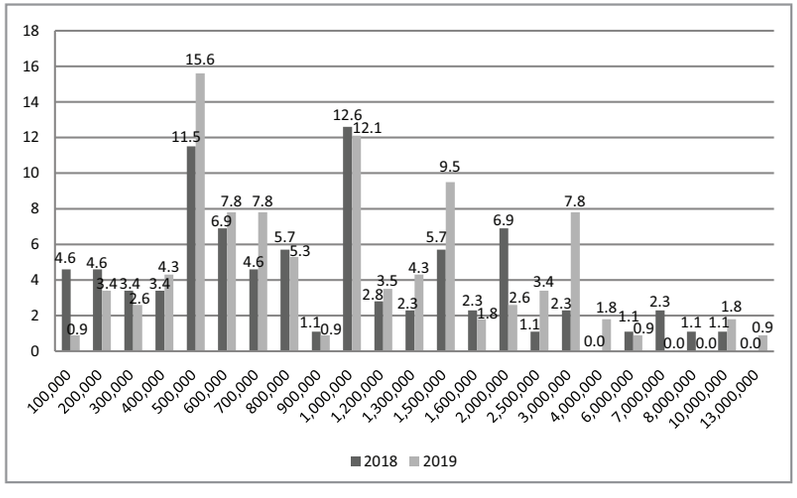
(1) 필요 월 소득 수준

이에 "가족이 만족할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 50만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15.6%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2.1%), 150만원(9.5%), 300만원(7.8%) 순으로 많았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년 전에는 필요 월 소득 수준이 1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만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5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졌고, 150만원, 300만원 등으로 고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즉 3년 전에 비해 50만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동시에 150만원, 300만원 등 이전보다 훨신 높은 소득수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 기대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 4-7〉 필요 월 소득 수준

(단위: %)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득수준과 시장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시장의 가격도 큰 변동이 없고 환율도 1달러 당 8,100원 선으로 안정되어 있다. 2013년 이후 이러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외화통용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5] 위에서 보았듯이 지난 1년 사이

5] 김규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절인가 지속인가?," 『KDI북한경제리뷰』(2019.9),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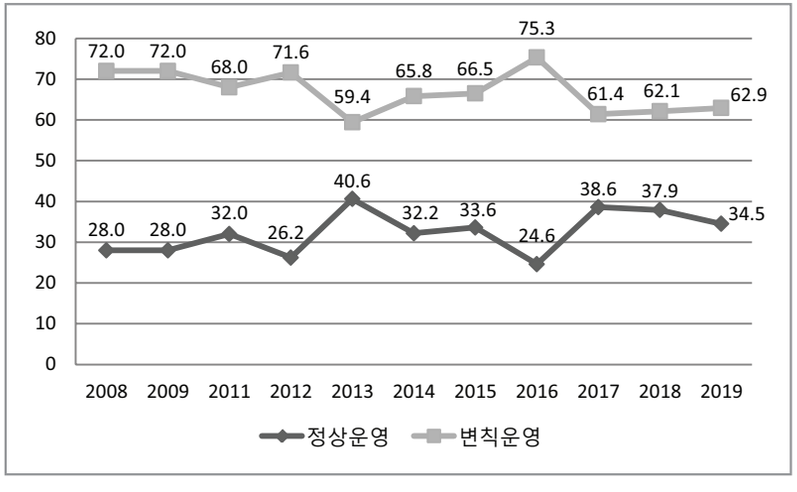
에도 북한주민들의 기대소득이 낮아지고 고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경제는 제재국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방경제는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고 적용되어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연구진의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의 4가지 항목의 보기가 제시되었다.

〈그림 4-8〉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단위: %)



〈그림 4-8〉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을 '지킨다'는 항목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에 비하여 낮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가 34.5%(9.5%+25.0%)인 반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62.9%(33.6%+29.3%)로 나타났다. 생산규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평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정상운영보다 변칙운영이 많은 편이기는 하나,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상운영과 변칙운영이 4 대 6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다.

(3) 경제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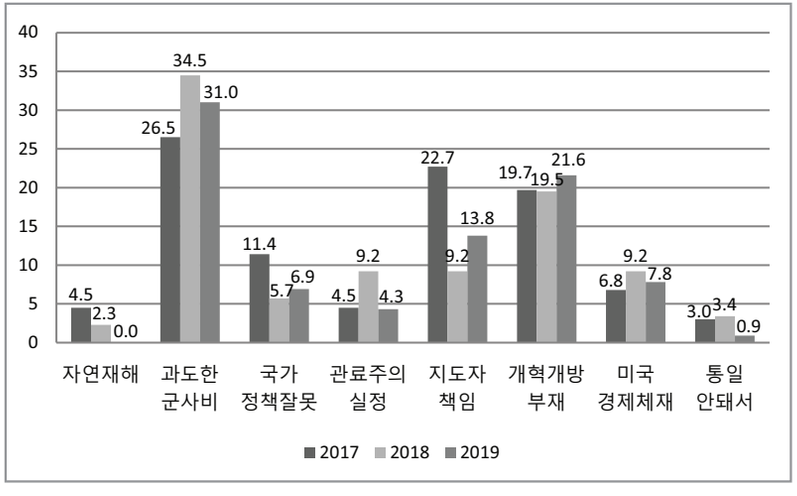
경제 악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의 9개 항목으로 보기를 제시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사비지출'이 31.0%로 가장 많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가 21.6%, '지도자 책임' 13.8%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군사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현실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재정지출이 많아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한편, 개혁개

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데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항목 내에서 변화는 있지만 경제악화 원인을 군사비지출과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순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4-9〉 경제 악화의 원인

(단위: %)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이러한 흐름은 2017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졌다. 2017년에 '군사비지출'이 26.5%로 가장 많았으나, '지도자 책임'이 22.7%로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세 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년에 '군사비지출'이 26.5%→34.5%로 급상승하고 '지도자 책임'이 22.7%→9.2%로 급감하여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두 번째 원인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에 '군사비지출'이 34.5%→31.0%로 떨어졌고 '지도자 책임'은 9.2%→13.6%로 상승했지만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21.6%)라는 응답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지도자 책임'이라는 인식은 세 번째 원인으로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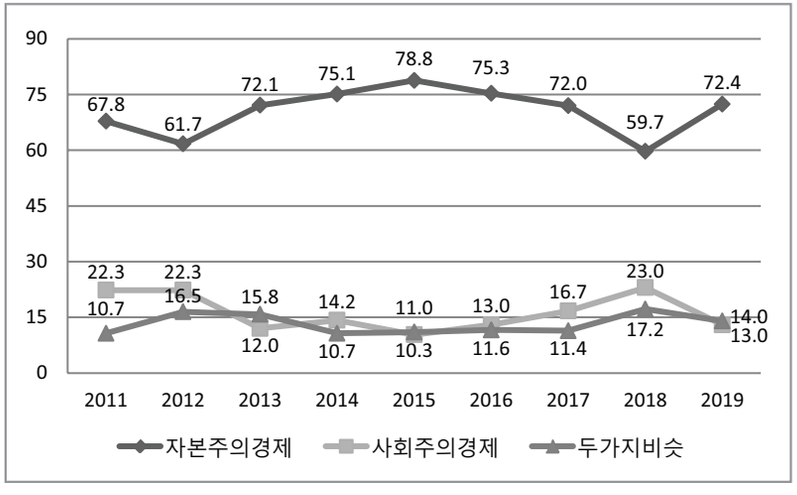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의 경제제재' 항목이 7.8%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을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만큼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 그 배경에는 북한주민들이 북한경제가 자력갱생 체제로 형성되어 있어서 북한경제의 침체가 외부요인과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체제 내부의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의 다섯 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그림 4-10〉 경제체제 선호도

(단위: %)



우선,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훨씬 더 지지+약간 더 지지)'는 항목은 72.4%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약간 더 지지+훨씬 더 지지)' 13.0%보다 5.5배가 높다. 또한,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한다'는 항목은 지난해에 비하여 2019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2018년 23.0%에서 2019년 14.0%로 9.0%p 감소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인식은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급반등하였다. 이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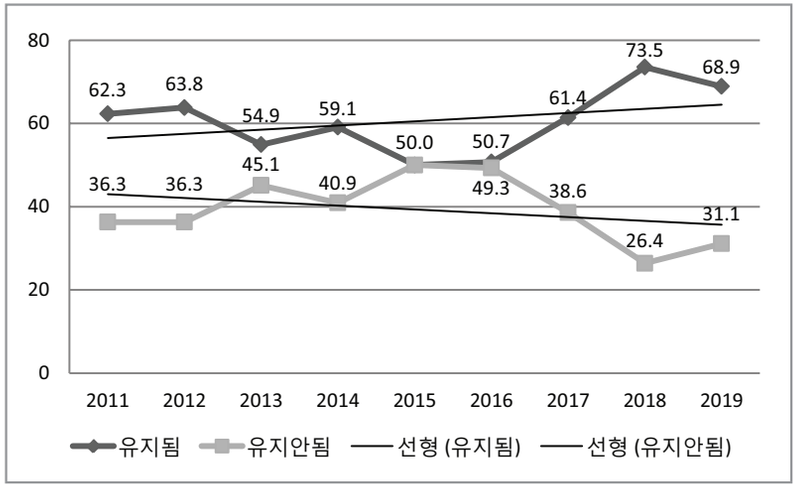
4.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1) 사회통제 유지 정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응답자들에게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의 네 문항으로 보기를 제시했다. 조사결과,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정도는 2018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인식은 2018년 26.4%에서 2019년 31.1%로 4.7%p 상승하였다. 반면 사회통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73.5%에서 68.9%로 감소하였다.

〈그림 4-11〉 사회통제 유지 정도

(단위: %)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은 2015년 50.0%로 상승을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8년에는 26.4%를 찍고 2019년에 31.1%로 다시 올라섰다. 반면 사회통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2015년 50.0%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73.5%에 이르렀다가 2019년 68.9%로 낮아졌다.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제7차 당대회가 있던 2016년까지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가 2016년 이후 통제가 급격히 이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통제가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시장 활동이 일상화되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기존의 사회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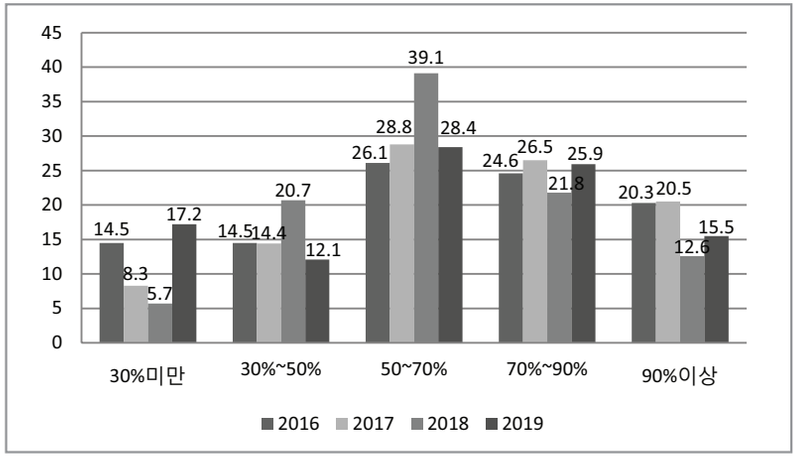
(2) 생활총화 출석률

생활총화는 단순히 '주간 생활을 총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종 강연회, 학습회 등 국가주도의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총화 출석률은 국가의 의도를 주민에게 해설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각종 정치행사의 참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직장 내 생산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생활총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70%가 28.4%, 70-90%가 25.9%, 90%이상이 15.5%로 약 70%가 생활총화에 50%이상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작년과 비교하여 보면, 50-70% 출석률이 39.1%→28.4%로 10.7%p 급감한 반면, 70-90%와 90%이상에서 각각 21.8%→25.9%, 12.6%→15.5%로 늘어났다. 한편, 30%미만에서 5.7%→17.2%로 급상승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생활총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얘기다. 생활총화 참석에도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참여 가능한 사람들의 생활총화가 활발해진 반면, 장사 등 여러 필요한 활동으로 생활총화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4-12〉 생활총화 출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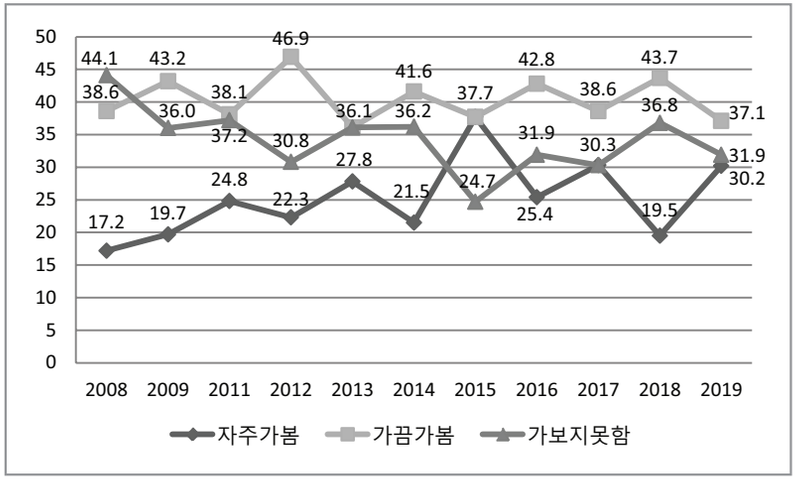
(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지역 간 방문 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월 종합시장을 도입하고 김정은 집권이후 시장 활동과 농장 및 기업 활동의 자

율성을 허용한 이후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인적, 물적 교류의 양이 많아졌다. 다른 지역에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19.5%에서 30.2%로 크게 늘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큰 폭으로 반복하였다. 북한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이 활발해 졌음을 보여준다.[6] 그러나 각종 정치행사와 건설사업, 농촌동원 등으로 주민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그림 4-13〉의 전체적인 흐름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4-1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단위: %)



6]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8년 12월 평양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시 발급받아야 하는 여행증명서를 폐지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명철, "북, 평양 등 특정지역 제외하고 여행증명서 폐지," RFA, 2018.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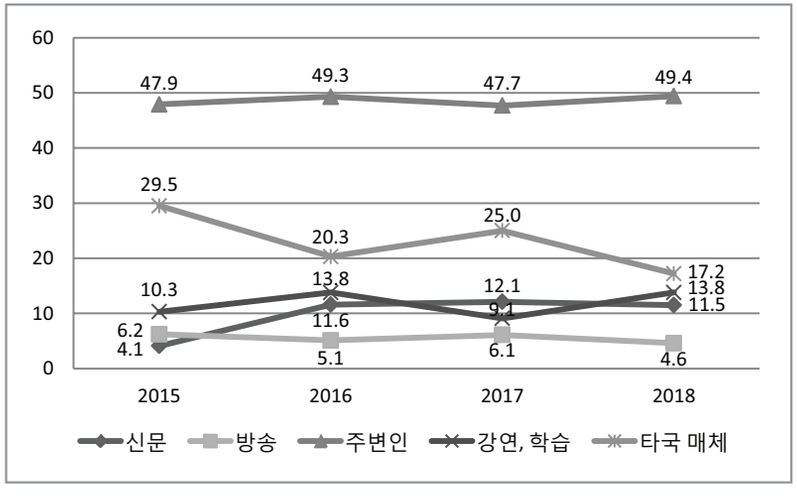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l-12202018095351.html?searchterm:utf8:ustring=%20%EB%B6%81%ED%95%9C%20%EC%97%AC%ED%96%89%EC%A6%9D (검색일: 2019.5.6.)

(4) 외부소식 접촉 경로

"외부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의 질문에 '조선신문(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방송, 통신, 삐라 등)'의 항목이 보기로 제시되었고, '주변인'을 통한 외부접촉이 58.6%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외부소식 접촉 경로

(단위: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은 지난 1년 동안 49.4%에서 58.6%로 9.2%p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에서 볼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방송'을 통한 접촉이 2018년 4.6%에서 2019년 10.3%로 증가하였다. 방송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이 증가한 것은 북한이 국가의 공식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행보와 해외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상황을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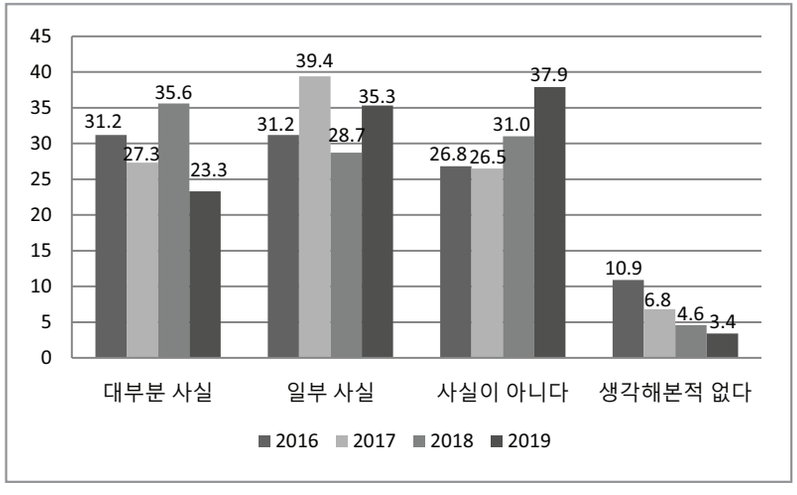
반면, 강연 및 학습'을 통한 접촉이나 '타국매체'를 통한 접근은 각각 13.8%→7.8%, 17.2%→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국매체' 항목은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29.5%에서 2019년 9.5%로 20%p가 감소한 것이다. 타국매체는 주로 남한의 방송이나 삐라 등을 통한 소식의 접촉인데, 남한의 북한민주화 활동가들이 과거에 한동안 활용했던 삐라 살포 등의 활동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의 4가지 보기 중에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23.3%,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35.3%로 총 58.6%가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를 어느 정도 사실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람도 37.9%로 많았다.

〈그림 4-1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지난 1년 동안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8년 35.6%에서 2019년 23.3%로 감소하였고 '일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8.7%에서 35.3%로 상승하였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의 정도가 약화된 것이다. 반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이후 26.5%→31.0%→37.9%로 지속 상승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달하는 보도내용에 대해 불신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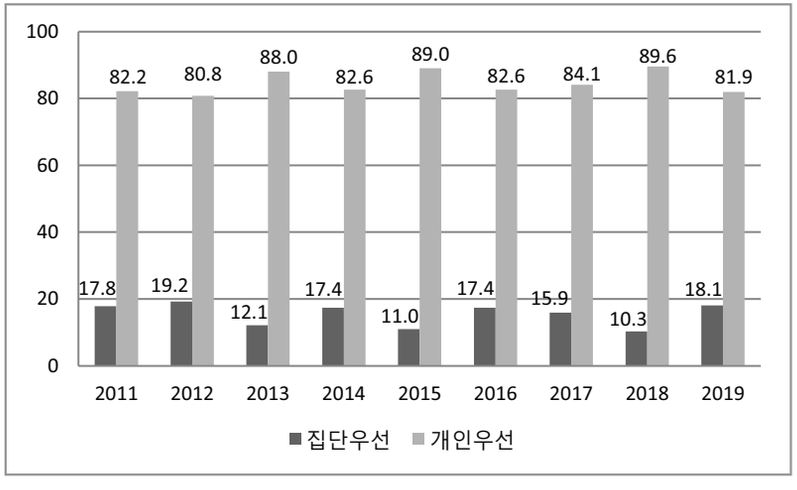
(6) 집단과 개인 우선순위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

이다'의 4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2018년 89.6%에서 2019년 81.9%로 떨어졌고, '집단'을 중시하는 태도는 10.3%에서 18.1%로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에는 개인주의가 조금 약화되고 집단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난 9년 동안을 살펴보면, 개인을 우선하는 태도는 2011년 82.2%에서 2019년 81.9%로 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집단을 우선하는 태도 역시 17.8%에서 18.1%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대체로 개인우선과 집단우선의 태도는 8:2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4-16〉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단위: %)



이는 사회통제 및 생활총화 참여 등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 사회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이다. 그것은 1960년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7]라는 구호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2002년 '실리 사회주의'로 노선 전환을 꾀한 이후 개인주의적 가치가 북한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에서 이전까지 헌법에 명시했던 '집단주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즉 1992년 헌법 82조에 있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문장을 삭제한 것이다. 물론 뒷부분에 서술되어 있던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고,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라는 조항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단주의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2009년 개정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함으로써 또 한번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집단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것은 그만큼 집단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7]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배격하고 근로자들을 나라와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로 교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만들며 우리의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90.

5.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 북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은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던 추세와는 약간 다른 흐름이 형성되었다. 즉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높아지던 주민의 정치의식이 꺾이거나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과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김정은 직무, 핵무기 보유 등의 평가가 낮아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도 낮아지다 멈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안정과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김정은 집권 7년차에 접어들어 주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권의 붕괴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장기유지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파격적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회담과 정상회담으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정치적 불안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둘째, 북한주민의 경제의식에서는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면서 생활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작년의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 왔으나, 150만원 혹은 300만원으로 고액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의식도 높아진 것을 보면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대소득의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의 생산규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으로 미진한 개혁개방과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정책적 비판의식이 높아졌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선호도도 한층 높아졌다. 북한당국이 작년 4월 국가전략을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전반적인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유동성은 증대하고 대내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다.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식이 4.7%p 높아졌고 생활총화 출석률도 소폭 높아졌으며, 집단의식도 7.8%p 높아져 조직생활과 사회질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간 이동이 많아졌고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주민유동성은 더 증대하였다. 시장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과 주변사람들을 통한 외부접촉면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공식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인적 접촉을 통한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나이와 직종, 살았던 지역과 국경지대 거주 여부의 지역적 편중성으로 인하여 성급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전체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장과 개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결과 이동의 기회가 늘고 외부정보 접촉면도 넓어져 정치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정은 집권 7년차라는 시점과 지난해에 일었던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들이 기존과는 다른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올해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지형이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19년 형성된 주민의식의 전환적 계기가 김정은 집권 7년차에서 오는 정치적 피로감 때문이었다면 향후에도 올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드러난 의식의 전환적 계기가 작년 한반도에서 진행된 평화의 대전환 때문이라면, 2019년 한해동안 진행된 남북 및 북미 간 냉각국면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주민의 의식지형이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9년 북한주민 의식의 흐름에서 보였던 전환적 계기가 향후 1년간 지속될지, 아니면 기존의 흐름으로 다시 환원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 관계 인식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 서론

2018년 남북관계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듯 보였다. 2018년 신년사부터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임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변화된 태도는 남북고위급 회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3차례 남북정상회담,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졌다. 2018년 남북관계는 획기적 변화처럼 보였다. "한반도의 봄"이 동결된 대치국면을 녹이는 듯 보였다.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급변하는 듯 보였다.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전후하여 진행된 남북접촉 경로를 통하여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8]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움직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북중관계도 급하게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북중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고, 김정은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도자로서 외국을 방문하였다. 2018년 북한발 소식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이목을 끌었다.

2018년 북한발 변화는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2019년 전반기에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오고 있다.[9] 탈북 이후 관점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귀하가 북한에 살고계실 때"라는 문항에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가지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려 한다. 주변국 인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 위협감,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된다.

8] 2018년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평양 방문 결과를 기자에게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알렸다.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White House. "Remarks by Republic of Korea National Security Advisor Chung Eui-Yong" (2018.3.8)].

9]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후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을 "직행"이라고 표현한다. "직행"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직행" 북한이탈주민이 현 단계에서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다.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 주민의 마음

북한 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북한 주민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북한의 과거 동맹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대하여 전통적 친밀감이 유지되는지 여부, 북한의 개방과 한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1.6	1.5	1.4	2.1	0.0	0.0	2.3	0.9
일본	1.0	0.0	0.0	0.07	0.07	0.0	4.56	0.9
한국	24.0	13.1	16.2	22.9	15.0	22.7	13.8	22.1
중국	70.4	83.1	79.7	72.9	76.8	71.2	66.7	70.8
러시아	3.2	2.3	2.7	1.4	6.5	6.1	12.6	5.3
합계(명)	127	132	149	138	132	87	87	116

최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 중 중국에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표 5-1이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은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중국의 대북한 지원, 특히 냉전 이후 북한 정권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을 통해 견딘 경험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인다. 대중 친밀감이 전년도에 비하여 더욱 증가했다(66.7%에서 70.8%, +4.1%p). 북한이탈주민이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12.6%에서 5.3%, -7.3%p).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 주민 다수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추정된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3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반등했다. 2018년 북중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외국으로 외교 행사를 전개하는 등 북중관계가 개선되었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를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감도 줄어들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북중관계가 호전되자, 중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이 회복되었다고 추정된다.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13.8%에서 22.1%, +8.3%p). 한국과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가졌지만, 민족적 유대감이 일부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추정된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이후 2018년까지 한국을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과 중국을 향한 친밀감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2019년 조사에는 양국을 향한 친밀감이 처음으로 동

시에 증가했다. 이 현상은 북한 주민의 마음이 한국과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미국, 일본, 한국 등 전통적 자유진영을 향한 일부 북한 주민의 마음이 한국으로 모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통적 우호진영을 향한 다수 북한 주민의 마음이 중국으로 모인다.

성별은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8년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더 가지는 반면, 2016년과 2017년 조사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성별 차이가 있는 듯 보여 성별 차이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후 조사는 일관된 현상을 보이지 못한다. 이처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하고 성별 친밀감의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성별 차이가 가지는 관계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10]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명)
2014	남성	79.6	12.2	8.2	50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7
	여성	78.7	19.1	2.2	89
2016	남성	83.0	13.2	3.8	53
	여성	72.9	17.6	9.4	85
2017	남성	72.9	21.4	5.7	70
	여성	69.4	24.2	4.8	62
2018	남성	60.5	13.2	5.2	38
	여성	71.4	14.3	0.0	49
2019	남성	70.0	22.5	7.5	42
	여성	71.2	21.9	5.5	74

10] 2011년 조사 이후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지만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는 사례가 매우 희귀하다(총 남성 응답자 413명 중 8명이 미국에 대하여 6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반면, 총 여성 응답자 709명 중 4명이 미국에 대하여 2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함). 현재 상태로는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관련성을 가질까? 북한에서의 교육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교육이 강한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 중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고, 북중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에서 받는 교육이 외부 세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상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교육은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약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진다는 과거 조사 결과가 이번 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11]

11] 김병로 외 2017, p.132.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4년 조사에서 예외적으로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보다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까지는 고등중학 이하 학력자가 전문학교 졸업자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 높은 친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이 정합관계를 보였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1-연도별

(단위: %)

	2014			2015			2016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0.0	0.0	2.2	0.0	0.0	3.4	0.0	0.0	0.0
일본	0.0	0.0	0.0	0.0	4.2	0.0	0.0	0.0	0.0
한국	10.0	9.4	19.8	27.6	20.8	23.0	27.8	0.0	16.5
중국	85.0	87.5	75.8	69.0	75.0	73.6	72.2	93.8	74.8
러시아	5.0	3.1	2.2	3.4	0.0	0.0	0.0	6.3	7.8
합계(명)	20	32	91	29	24	87	18	16	103

	2017			2018			2019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0.0	0.0	0.0	40.0	0.0	0.0	0.0	0.0	1.3
일본	0.0	0.0	0.0	0.0	16.7	3.2	0.0	0.0	1.3
한국	40.0	13.0	24.2	20.0	8.3	12.7	37.5	30.8	17.7
중국	60.0	87.0	69.5	40.0	58.3	73.0	62.5	65.4	73.4
러시아	0.0	0.0	6.3	0.0	16.7	11.1	0.0	3.8	6.3
합계(명)	10	23	95	5	12	63	8	26	82

이 결과는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개별적 지적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12] 만약 북한에서 교육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친밀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진다. 북한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세계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선전과 반대로 세계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추정된다.

〈표 5-4〉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2-2011-2019

(단위: 명(%))

학력	對韓 친밀감 없었음	對韓 친밀감 있었음	계
대학교 졸업	102 (75.0)	34 (25.0)	136
전문학교 졸업	164 (85.0)	29 (15.0)	193
고등중학 이하	253 (32.1)	536 (67.9)	789

북한에 거주할 당시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어떤 연관성을 보일까? 2016년 조선노동당의 당원 규모를 약 346만 명, 북한 인구를 25,368만 명으로 추산하면,[13]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은 전체 북한 사람 중 13.6%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선노동당 가입이 정치적 의

12]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 간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chi^2 = 6.8031, p-value = 0.033).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chi^2 = 2.4972, p-value = 0.287).

13] 조선노동당 당원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 "각급 당 대표회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했다는 공식 보고와 당원 천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관행[3차 당대회(1956) 대의원 916명/당원 106만 명, 4차 당대회(1961) 대의원 1657명/당원 131만 천 명, 5차 당대회(1970) 대의원 1734명/당원 160만 명]으로 조선노동당 당원은 약 346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견과 활동을 반영한다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은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친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체제인 북한에서 당원증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능성이 낮지만, 조선노동당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충원한다면 당원 경력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대중 친밀감의 저하, 대한 친밀감의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다.

2011년 조사 이후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노동당 가입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이 무관한 듯 보인다. 2016-2017년 조사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진 반면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지 않는 듯 보였지만, 조사 연도에 따라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간 주변국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1년 이후 조사자료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14] 또한, 조선노동당 당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중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5인을 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종합하면, 조선노동당 가입 여부와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조선노동당 당원 여부와 중국에 대한 친밀감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 계수가 0.7574이고(p-value = 0.384), 조선노동당 당원 여부와 한국에 대한 친밀감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 계수가 0.1097이다(p-value = 0.740). 이 결과에 기반하면, 조선노동당 당원이 중국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 한국에게 덜 친밀감을 느낀다는 기존 연구는 소수 표본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된다(김병로 외 2017, p.133).

〈표 5-5〉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7.7	0.9	0.0	0.0	0.0	0.0	0.8	1.4	0.0	1.0
일본	3.8	0.0	0.0	0.9	0.0	0.0	16.7	2.7	0.0	1.0
한국	26.9	22.2	7.7	17.9	20.0	23.6	25.0	12.3	21.4	22.4
중국	61.5	75.2	92.3	73.2	80.0	70.0	50.0	69.8	71.4	70.4
러시아	0.0	1.7	0.0	8.0	0.0	6.6	0.0	13.7	7.1	5.1
합계(명)	26	117	26	112	25	106	12	73	14	101

주)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처리함.

3.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의 미미한 영향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위협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주체 노선을 설파하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의식'을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투영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8년 한반도 유화 국면은 예외적 현상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천지 원수'로 표현되던 미국의 대표, '미제의 앞잡이'로 표현되던 한국의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는 현상은 북한 주민에게는 충격일 수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를 선택지로 줌으로써,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북한 주민의 위협감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려 했다.

〈표 5-6〉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65.6	72.0	73.8	65.7	84.1	77.5	84.5	78.3
일본	3.3	6.8	9.7	12.6	3.6	5.4	0.0	5.2
한국	8.2	1.5	2.1	1.4	2.9	1.6	2.4	2.6
중국	22.1	19.7	14.5	19.6	8.0	15.5	13.1	13.9
러시아	0.0	0.0	0.0	0.7	1.5	0.0	0.0	0.0
합계(명)	127	132	149	146	138	132	87	116

2018년 하반기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2017년 한반도 위기로 인하여 증폭된 미국발 위협감이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을 지나며 소폭 줄어들었다(84.5%에서 78.3%, -6.2%p). 한반도 위기의 정도에 따라 미국발 위협감이 변화한다는 기존 연구에 부합하는 현상이다.[15] 하지만, 응답자 중 78.3%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의 위협인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 정치 학습과정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미국발 위협감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추정된다.[16]

2018년 남북관계가 좋아졌지만, 한국발 위협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조사 이후 한국발 위협감은, 2012년 조사 결과를 제외한다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으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하여 위협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또한, 한국 정부를 미국의 허수아비로 이해하는 정치 선전의 결과 북한 주민은 한국을 독자적인 행위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중국발 위협감은 전년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북중관계가 좋아졌지만, 응답자 중 13.9%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1년 조사 이후 2012년 최대 22.1%, 2016년 8.0%로 수치가 조금씩 변동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에 두 번째 위협원이다. 2011년 조사 이후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10% 내외 북한 주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을 꼽는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성별 차이는 위협감 인식과 약하게 연관된다. 2016년 조사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중국에게 더 위협감을 가진다. 성별과 중국발 위협감 간 교차분석의 결과 Pearson chi2(1)가 12.3165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00). 어떤 연유로 인하여 남성이 중국에 대하여 더 위협감을 가지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4개국발 위협감은 성별 차이와 무관하게 드러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발 위협감과 성별 차이가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1) 계수가 2.1080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p-value = 0.147).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오는 위협감과 성별 교차 분석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15] 김병로 외 2017, pp.135-136.

16] 미국발 위협감과 일본발 위협감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미관계가 좋을 때 일부 북한 주민이 일본을 위협국가로 대답하는 경향이 보인다 (정동준 외 2019, pp.132-133).

〈표 5-7〉 성별 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관측 수
2013	남성	62.1	8.6	1.7	27.6	0.0	58
	여성	79.7	5.4	1.4	13.5	0.0	74
2014	남성	77.1	8.3	0.0	14.6	0.0	50
	여성	72.2	10.3	3.1	14.4	0.0	99
2015	남성	53.6	16.1	0.0	30.4	0.0	57
	여성	73.6	10.3	2.3	12.6	1.1	89
2016	남성	90.6	0.0	1.9	5.7	1.9	53
	여성	80.0	5.9	3.5	9.4	1.2	85
2017	남성	75.4	5.8	1.4	17.4	0.0	70
	여성	80.0	5.0	1.7	13.3	0.0	62
2018	남성	77.8	0.0	0.0	22.2	0.0	38
	여성	89.6	0.0	4.2	6.3	0.0	49
2019	남성	66.7	7.1	2.4	23.8	0.0	42
	여성	84.9	4.1	2.7	8.2	0.0	74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4			2015			2016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85.0	73.3	73.1	46.4	75.0	69.2	77.8	75.0	86.5
일본	5.0	10.0	10.8	25.0	4.2	11.0	0.0	12.5	2.9
한국	0.0	3.3	2.2	0.0	4.2	1.1	5.6	6.3	1.9
중국	10.0	13.3	14.0	28.6	16.7	17.6	11.1	6.3	7.7
러시아	0.0	0.0	0.0	0.0	0.0	1.1	5.6	0.0	1.0
합계(명)	20	32	95	28	24	93	18	16	104

	2017			2018			2019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60.0	73.9	80.2	0.0	91.7	89.6	62.5	69.2	82.7
일본	0.0	8.7	5.2	0.0	0.0	0.0	12.5	7.7	3.7
한국	0.0	0.0	2.1	0.0	0.0	3.0	0.0	7.7	1.2
중국	40.0	17.4	12.5	100.0	8.3	7.5	25.0	15.4	12.3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명)	10	23	99	5	12	70	8	26	82

학력은 북한 주민의 위협감과 약하게 연관된다. 2014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한 주민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더 가지는 반면 미국에 대한 위협감을 덜 가진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국발 위협감이 줄고 중국발 위협감이 커진다. 학력과 미국 위협감 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2)가 9.0382이다(p-value = 0.011). 학력과 중국 위협감 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2)가 6.8765로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32). 학력과 정치적 의견과의 관계는 북한 정권의 교육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영향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 간 주변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에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인구의 13.6%를 포함하는 조선노동당 당원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2019년 조사만 보면, 당원이 비당원보다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위협감을 가지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더 강한 위협감을 가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2011년 조사 이후 당원과 비당원간 순위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관측되기 때

문에, 아직 명확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17]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53.8	68.1	88.5	83.0	84.0	75.7	75.0	85.6	64.3	80.0
일본	15.4	12.1	7.7	2.7	4.0	5.8	0.0	0.0	0.0	6.0
한국	0.0	1.7	0.0	3.6	4.0	1.0	0.0	2.9	7.1	2.0
중국	30.8	17.2	3.8	8.9	8.0	17.5	25.0	11.4	28.6	12.0
러시아	0.0	0.9	0.0	1.8	0.0	0.0	0.0	0.0	0.0	0.0
합계(명)	27	118	26	112	25	106	12	73	14	101

주) 응답자 중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처리함.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한민족의 통일은 한민족 내부의 과제인 동시에 주변국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민족의 통일에 필요한 내적 동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부터 최종 지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감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이 통일 과정에서 취할 행동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17] 북한에서 위기를 겪고 북한을 이탈한 조선노동당 당원이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는 듯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질 정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동준 외 2019, 121).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원함	31.7	33.1	21.1	33.1	18.8	23.5	24.1	20.5
	원하지 않음	68.3	66.9	78.9	66.9	81.2	76.5	75.9	79.5
중국	원함	15.0	14.4	14.9	14.4	17.4	14.4	18.4	20.2
	원하지 않음	85.0	85.6	85.1	85.6	82.6	85.6	81.4	79.8
일본	원함	10.5	8.3	6.8	8.3	10.9	10.0	13.8	5.3
	원하지 않음	89.5	91.7	93.2	91.7	89.1	90.0	86.2	94.7
러시아	원함	32.5	26.6	30.1	26.6	34.8	23.5	40.3	21.6
	원하지 않음	67.5	73.4	69.9	73.4	65.2	76.5	59.7	78.4
합계(명)		127	143	146	143	138	132	87	116

2019년 조사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였다. 먼저 유사점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당시 모든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로 생각했었고, 중국이 2순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미국이 3순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이 순위는 변동이 없이 유지된다. 2018년 상대적으로 좋은 북미관계를 경험한 상태에서 북한을 떠난 주민은 여전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지했었다.

2019년 조사는 두 측면에서 이전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첫째, 통일 과

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북한 주민의 평가가 전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 러시아가 한민족의 통일을 원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년 40.3%에서 21.6%로 급락했다(-18.7%p). 2019년 조사 수치는 2011년 조사 이후 최저점을 보였다. 반면, 러시아가 한민족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5%로 2011년 조사 이후 최고점을 보였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감/친밀감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 급증한 이유를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둘째,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 더 강화되었다. 미국이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75.9%에서 79.5%로 증가했고(+3.6%p), 미국이 한민족의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24.1%에서 20.5%로 감소했다(-3.6%p).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 북한을 떠난 주민이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린다는 기존 추정은 2019년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정동준 외 2019, 125).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조사 참여자에게 5개 선택지(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9년 조사는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하향 평가 추세가 심화되었다. 2014년 이후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미국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한다. 통일 과정에서 양국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명확한 추세로 갈린다. 둘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 안정세를 유지한다. 북한 정권의 자립 시도가 북한 주민에게 일정 정도 지지를 얻고 있는 듯 보인다.

〈표 5-11〉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68	48.6	60	43.8	52	39.4	35	40.2	39	33.6
미국	24	17.1	17	12.4	19	14.4	18	20.7	30	25.9
러시아	8	5.7	16	11.7	11	8.3	6	6.9	6	5.2
일본	0	0.0	0	0.0	0	0.0	1	1.1	1	0.9
없음	40	28.6	44	32.1	50	37.9	27	31.0	36	31.0
합계(명)	146	100	138	100	132	100	87	100	116	100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번영에 어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2016년 조사부터 추가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조사 참여자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중국이 1위(47.1%)였지만 2017년 조사 이후 한국이 1위가 되었다. 중국에 대한 선호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반면, 2019년 조사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을 지나면서 북한 주민 중 일부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가지게 된 듯하다. 두 현상을 종합하면, 북한 주민은 발전을 위하여 중국 도움보다는 한국 또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점차 가지는 듯하다.

〈표 5-12〉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2016		2017		2018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국	6	4.3	8	6.1	4	4.6	16	13.8
일본	1	0.7	2	1.5	0	0.0	1	0.9
한국	60	43.5	74	56.1	44	50.6	50	43.1
중국	65	47.1	45	34.1	38	43.7	45	38.8
러시아	6	4.3	3	2.3	1	1.1	3	2.6
합계(명)	138	100	132	100	87	100	116	100

5. 소결

2019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추정하면 두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을 소폭 높였다. 동시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중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도 소폭 높였다. 반면, 미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위협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발 위협감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중국발 위협감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을 변화시킬 힘까지는 가지지 못했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또는 적대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전 조사에서 흥미거리 수준에 그쳤던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심층 조사의 필요성이 보인다. 첫째, 학력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또는 위협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과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반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진다. 위협감 부분에서는 친밀감의 이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의 교육이 정치사회화의 기제로 북한 정권의 선전을 전달하지만,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변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북한의 교육과 정치인식간 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지는 현상이 재확인되었다. 표본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검증 여부가 남아있지만,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 이탈주민이 심지어 미국에 더 친밀감을 가지는 현상이 재확인되었다. 조선노동당 가입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연관된다는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조선노동당 당원의 지적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아 주변국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현상에 대하여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통일과 관련된 인식에 약한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통일을 위하여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한 반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주변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30%를 상회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급증하였다. 반면, 중국의 도움이 북한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이 소폭 옮겨졌다고 추정된다.

참고문헌

White House. "Remarks by Republic of Korea National Security Advisor Chung Eui-Yong" (2018.3.8).

김병로 외. 2017.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동준 외 2019.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 2018.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9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부침을 계속하며 기대와 우려를 자아낸 한 해였다. 어느 순간 희망적이다가 다시금 뒷걸음질 치는 정치상황 속에서, 예측이 어려운 전환마다 가장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남과 북으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촉을 세우게 되는 이들이라고 하면 날로 연로해져가는 이산가족들의 애틋한 사연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명칭에서부터 가족에의 그리움이 한껏 느껴지는 이산가족과는 달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삼만 삼천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남북관계의 긍정적 전환에 희망을 거는 또 다른 집단이라는 점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북한에서 빠져나와 남한에 거주하는 이들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과연 남한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수가 이전에 비해 소강세를 보이면서, 남한으로 새로이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6년 말 삼 만 명을 넘어선 후 매년 천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 매년 그 추세를 기록하여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정부기관 및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사한 조사가 여러 기관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중복적이며 피로하다는 비판이 들리기도 한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의견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들은 그 조사를 행하는 기관의 의도와 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성격, 조사 방식 등에 따라 다소 결이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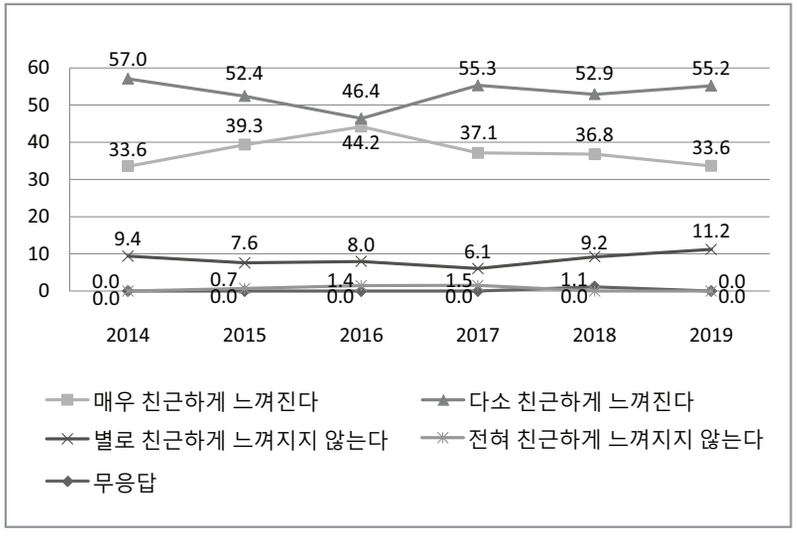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는 북한을 떠나온 지 일 년 미만의 이른바 "직행"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짧은 적응의 기간을 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장기간의 적응도를 측정하는 데는 물론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생활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생활과 대비되는 남한생활에의 체감을 남한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다는 남한주민으로서의 시각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 사이의 호응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가 지니는 의미는 표본 집단의 규모나 설문지의 제한된 문항 수 등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지속하여 해나가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

2. 남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성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에서 남한적응실태에 관한 설문은 다음의 두 질문으로 시작한다. "남한에 살면서 남한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와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질문에 대한 응답 자체만을 보면 친근감에 대한 긍정 응답은 (매우/다소) 2017년 92.4%에서 2018년 89.7%, 2019년 88.8%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인다. 포용성에 대한 응답은 2017년 78.8%에서 2018년에는 71.2%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에 79.3%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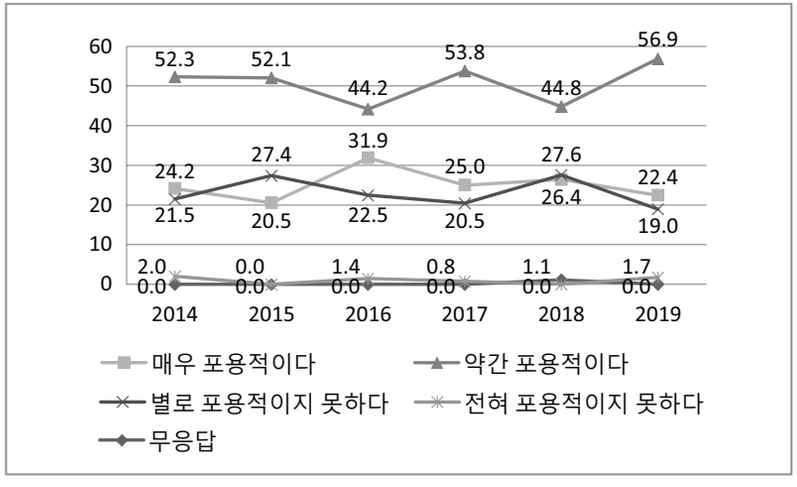
〈그림 6-1〉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

(단위: %)



〈그림 6-2〉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포용성

(단위: %)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2016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들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들로부터 받는 포용성을 교차분석 해오고 있다.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는가는 다소 막연하지만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한주민을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가는 현실생활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게 된 실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볼 때,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응답이 모두 긍정이나 모두 부정으로 정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주목하게 된다. 특히 친근감은 높았으나 포용성은 낮게 대답한 응답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게 가지는 정서적인 거리와 현실적인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당수치의 2018년 분석결과는 44.2%로 2017년의 26.7%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증가

를 보였다. 2019년의 결과는 다시 27.1%로 감소하며 2017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6-1〉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2018)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0.0	40.6	**9.4**	**0.0**	100.0
다소 친근	13.0	52.2	**34.8**	**0.0**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12.5	25.0	62.5	0.0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0.0	0.0	0.0
응답수(빈도)	23.0	39.0	24.0	0.0	86.0

〈표 6-2〉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2019)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8.7	46.2	**2.6**	**2.6**	100.0
다소 친근	9.4	68.8	**21.9**	**0.0**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0.8	53.8	7.7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0.0	0.0	0.0
응답수(빈도)	26.0	66.0	22.0	2.0	116.0

3. 남한생활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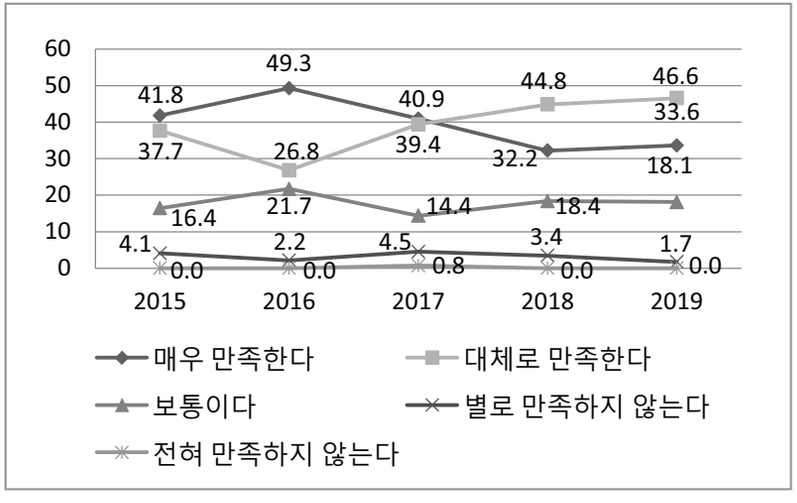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0.2% (매우 만족 33.6%, 대체로 만족 46.6%)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만족도는 전년 7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만족도는 3.4%에서 1.7%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근 3년간 80% 내외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의 동일한 문항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만족 72.5%, 불만족 3.8%로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응답결과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의 경우,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정한 층화변수에 따라 추출된 삼천 명의 표본 집단에 대해 설문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거주 기간과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의 응답자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후자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불만족도는 더 낮게 나오는 이유를 표본집단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생활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하나재단의 같은 조사에 포함된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의 응답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순위 응답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2순위 응답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로 나타난다. 1순위로 지목된 부분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분리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2순위, 즉 치열한 경쟁이라는 부분은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쟁의 환경 속에 놓일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사회

의 전반적의 분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 개발이라는 요인에 의해 심화되지 않고 완화될 수도 있는 측면으로 보인다.

〈그림 6-3〉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년 연속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후회한다는 응답이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 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16명 중,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한 23명 중 남한 생활에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는 2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1명은 보통, 혹은 만족 (매우/다소)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것과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주요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간의 이산(離散)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에 대한 후회도 교차분석

(단위: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안함	응답수
매우 후회	5.1	1.9	9.5	0.0	5.0
약간 후회	2.6	11.1	42.9	100.0	18.0
별로 후회안함	10.3	35.2	28.6	0.0	29.0
전혀 후회안함	82.1	51.9	19.0	0.0	64.0
계	100.0	100.0	100.0	100.0	116.0

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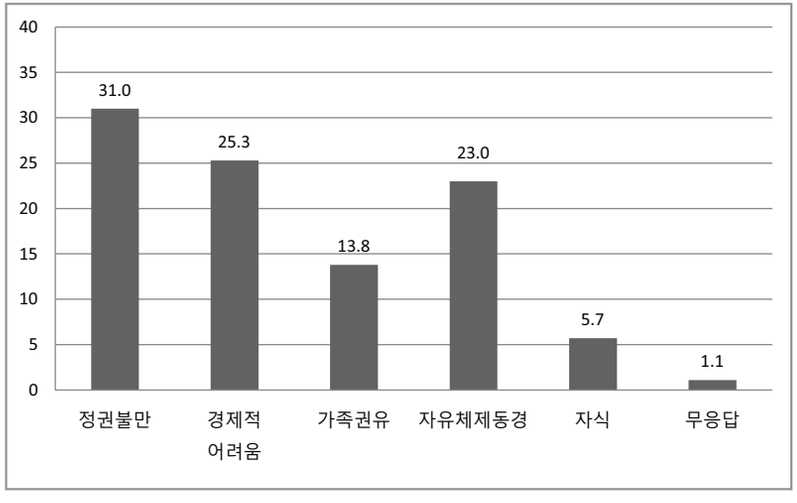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는 응답이 2018년의 31%에서 37.9%로 증가한 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25.3%에서 8.6%로 크게 감소하였다.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는 응답은 2018년 23%에서 15.5%로 감소하였고,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5.7%에서 12.9%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탈북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가 25.3%, "식량이 부족해서"가 22.5%,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가 12.5%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탈북의 이유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비해 정치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난 것을 양측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을 탈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2018년 결과와 대비해 볼 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2019 북한주민의식조사"의 응답집단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시기,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진 "2019년 북한 사회변동"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탈북 직전시기 사이에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층, 중층, 하층 중 어디에 속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8년에는 12.6%에서 2019년에는 14.7%로,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18년에는 55.2%에서 2019년에는 60.3%로 증가한 반면,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8년 32.2%에서 2019년 24.1%로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19년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탈북 전 경제사정이 2018년도 응답자들에 비해 나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탈북의 원인 중 경제적 요인을 낮게 나타나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세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경제적 여건 및 생활수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탈북결심의 이유를 남한 내 친척유무와 교차 분석한 결과, 남한 내 친척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이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은 삼분의 일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 내 친척이나 가족이 이미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송금 등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먼저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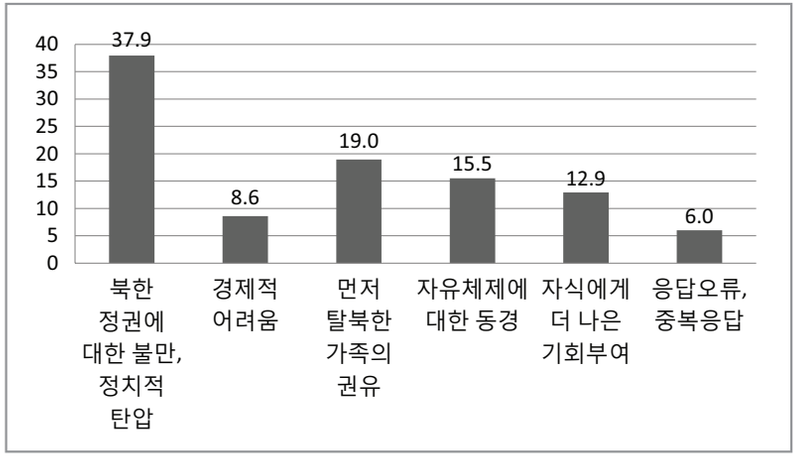
〈그림 6-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2018)

(단위: %)



〈그림 6-5〉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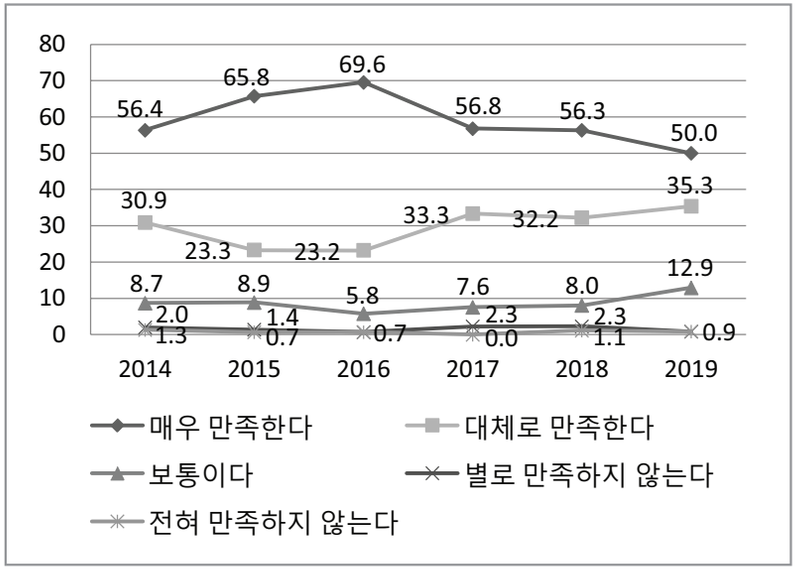


5. 지원정책에의 만족도와 적응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85.3%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자면 2019년 만족도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면서 불만족도는 여전히 1.8%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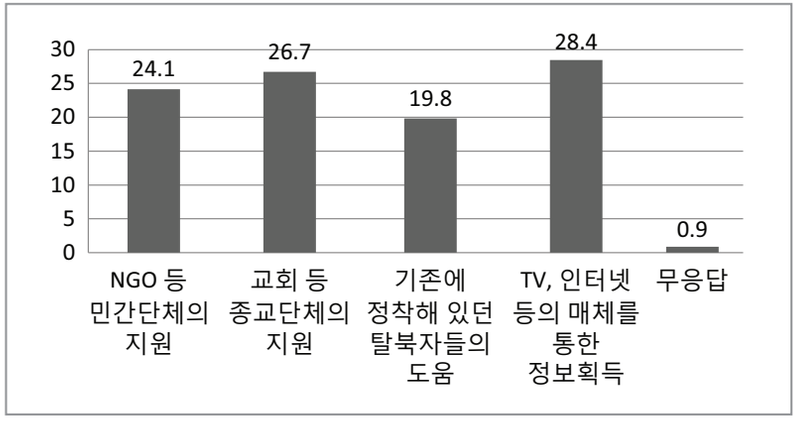
〈그림 6-6〉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



〈그림 6-7〉 남한생활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정부지원 제외)

(단위: %)



정부지원 이외에 남한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2018년에는 종교단체가 33.3%로 1순위였으나, 올해는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28.4%로 나타나며 26.7%를 보인 종교단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부터 종교단체의 도움을 얻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이들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얻는 비율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9년 조사결과에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정착에 도움을 준 1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남한주민 역시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검색에서 얻고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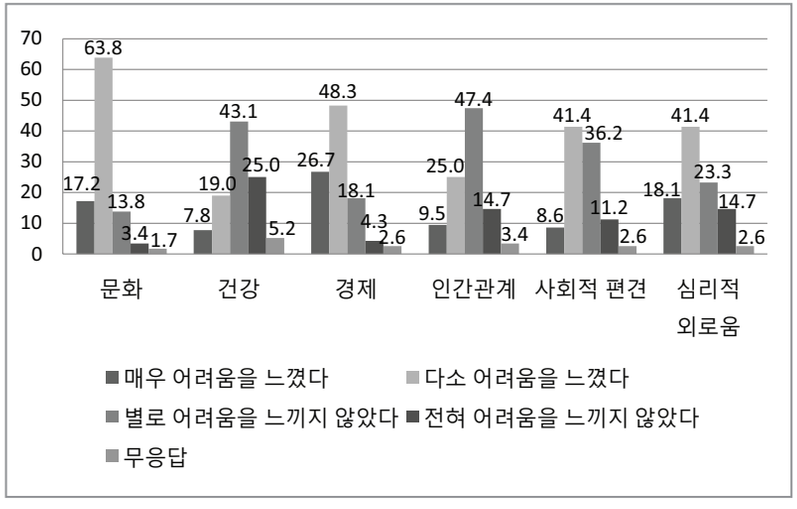
다만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정착과정에서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획득하

는 방법 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정보를 분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할 다른 기회를 통해보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습득과 관련되어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어려움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 부분 뿐 아니라 실제로 검색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경험적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를 통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습득 및 활용과 같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은 2017년에 추가되어 3년째 조사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와 2순위로 일관되게 지목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없음은 79.8%, 있음은 20%로 나타났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로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69.9%로 가장 높게 지목되고 있다. 양 기관의 조사를 통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적 차이를 적응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바가 높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를 현실에서 넘어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림 6-8〉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단위: %)



6. 소결

올해 북한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조사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남한에서의 생활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한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힌 응답 역시 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계속하여 문화적 차이로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속성과 더불어 전년대비 몇 가지 차이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요인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대폭 감소하고 자식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탈북이전의 개인적 경제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정책 이외에 정착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지원에서 TV와 인터넷 등 매체로 1순위가 바뀌었다. 남한에서는 물론이고, 북한 내에서도 점차 휴대폰 보급률과 사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분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적응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여름,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어린 아들이 거주지에서 사망한지 상당 시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전해졌다. 남겨진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의 죽음이 아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듯한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 그리고 그 비극적인 마지막을 향하게 된 삶의 자취에 관한 정확한 사연은 미지의 것으로 남게 되었다.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입국하게 된 경로, 단순하지 만은 않았던 가족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속되었던 이주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등에 기반하여 언론과 미디어는 모자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적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미비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못했던 우리 모두 역시 숙연한 반성을 피하기 어려웠다.

물론 정책적으로 미비했던 점은 지적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남겨진 정황과 주변인들의 구술 등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선정적인 접근과 관심이 없었다고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사망한 모자의 사연을 추적해가며 재구성했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아마도 아이를 위해 엄마가 먼저 굶어 사망한 후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 사망했을 것이라는 확인불가한 주변인의 추측을 근거 삼아 "탈북엄마의 마지막 눈물"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하였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약속의 땅에 물거품 같은 희망을 품고 왔다가 빈곤과 편견에 시달리며 좌절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상(像)으로 그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을 일구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두기보

다 일회성이고 감성적인 관심을 자아내는데서 멈추고 만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른 이들과 구분되지 않는 남한주민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미디어,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응이라는 것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라는 것은 개인의 화려한 성공기 혹은 비참한 실패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복합적 요인이 결부된 장기간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주민의식조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매년 꾸준히 조사하며 추세와 경향을 점검하고 지원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밝혀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7장 결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결장

올해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에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된 평화프로세스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평화의 흐름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협상들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올해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최초의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져서 다시 북미 간 회담의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북한은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발사하며 협상 과정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역사문제와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 되는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이렇듯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큰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한편, 서로가 원하는 변화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오래된 상호 불신과 또 다른 긴장들이 교차 되는 복합적 흐름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주변국 관계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은 대부분의 질문 항목에 대해 상당히 안정적이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주민들의 의견에 비해 매우 높고, 남한을 대체로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정권에 대한 지지도 높은 편이어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김정은 정권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고 있고 오랫 동안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중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친밀감은 바로 남북 상호간에 대한 친밀감이다. 이러한 특징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주곤 했다. 특히 올해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먼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다소 감소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미관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도 미묘하게 변화하였는데, 2018년부터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2019년까지 북미 간 협상이 전개됨에 따라 미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만 인식하던 여론이 다소 변화하며 미국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응답이

약간 감소했고, 대신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했다. 이는 비록 크고 심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지만 오래된 갈등과 불신, 상호간 이질화와 적대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난 2년간의 평화프로세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징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해의 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먼저 통일의 필요성의 경우, 통일을 필요하다 여기고 바라며,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87.1%)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견도 12%로 상승했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5.5%로 상승하여 대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던 통일에 대한 지지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보였는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2018년에 비해 약 13.8%가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대신 '북한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약 16.7% 상승하였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실용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에 남북 간 경협에 대한 강조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구상들이 더 영향을 준 것인지, 북한 내부의 시장화에 따라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인지 이러한 경향을 향후 조사에서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조사에 응한 북한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기대가 높은 반면, 통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의견이 67.2%가 되어 2011년에 26.7%에 불과했던 부정적 인식이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핵개발과 시장화, 북미관계 개선과 개혁개방 노선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한 역량이 미비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된다면 남한 체제로 통일(32.8%)되거나 어떤 체제도 상관없지만(25.0%), 아마도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2019년 19.8%로 상승한 것은, 두 체제의 이질성을 고려한 통일에 대한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50%로 다소 감소했지만,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9%로 다소 증가해 위협인식이 상승한 것이 주목된다. 남북 교류가 지속되고 남한에 대해 알게 될수록 오히려 위협적으로 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을 통해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하고 있었으며, 자주 접할수록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제제로 인해 민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체제에 대한 자부심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61.2%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작년에 비해 약 9.1% 감소한 것이다. 2018년 1년 동안 북한이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

었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의 자부심은 오히려 다소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및 직무에 대한 평가는 50% 이상이라는 의견이 71.6%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권 유지 예상기간을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지속 될 것이라는 의견이 41.4%에 달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자부심의 근거가 주체사상으로부터 핵과 경제, 외교 정책과 같은 다른 분야로 다소 옮겨가고 있는 것인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것은 북한 주민들은 경제 발전과 소득에 대해 좀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경제가 악화된 원인에는 군비지출이나 개혁개방 부재를 꼽았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선호도 72.4%로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변국인식에 지난 2년간의 평화프로세스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한에 대한 친밀감도 22.1%로 상승했다. 한국의 주변국 친밀감이 미국과 북한을 향해 있음을 비교해 보면 남북의 상호 호감이 20% 수준임을 인식할 수 있다. 올해의 유의미한 변화는 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다는 것, 북한의 발전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급증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일부 미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남한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힌 응답 역시 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한사회 적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탈북 이유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대폭 감소하고 자식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경험한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은 TV와 인터넷이 정착이 도움이 된다고 답해 북한 내부에서의 휴대폰 보급률, 한국 사회의 매체 환경 변화가 종교단체나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숨 가쁘게 지속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저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지만,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의 크기에 대해 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더 평화로운 국가 간 관계만이 아니라 북한의 더 나은 경제적 미래라는 점이다.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대는 그것이 내부의 체제와 정책이건 남북관계, 주변국 관계건 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미중간의 정상외교로 추진되는 평화프로세스는 그 과정에서 오랜 냉전적 적대에도 불구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부정적 위협 인식을 줄이고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남북, 북미 간 협상의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상호 간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고 하려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잘 파악하고 어려움을 넘어 다시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록

집계표 2019
설문지 2019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7.1%(101)	6.0%(7)	6.0%(7)	0.9%(1)	0.0%(0)	0.0%(0)	0.0%(0)
성별	남자	78.0	12.2	9.8	0.0	0.0	0.0	0.0
	여자	92.0	2.7	4.0	1.3	0.0	0.0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0.0
	20대	78.4	5.4	16.2	0.0	0.0	0.0	0.0
	30대	84.6	11.5	3.8	0.0	0.0	0.0	0.0
	40대	95.8	0.0	0.0	4.2	0.0	0.0	0.0
	50대	90.0	10.0	0.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84.6	15.4	0.0	0.0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87.1	5.0	6.9	1.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8.0	6.7	4.0	1.3	0.0	0.0	0.0
	없다	85.4	4.9	9.8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0	0.0	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2.8	4.7	10.9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4.0	16.0	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7.8	6.1	6.1	0.0	0.0	0.0	0.0
	없다	85.3	5.9	5.9	2.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4.6	0.0	15.4	0.0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92.0	8.0	0.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0.6	9.4	0.0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7.5	6.3	0.0	6.3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의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4.5%(98)	13.8%(16)	1.7%(2)	0.0%(0)	0.0%(0)	0.0%(0)
성별	남자	73.2	22.0	4.9	0.0	0.0	0.0
	여자	90.7	9.3	0.0	0.0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20대	75.7	18.9	5.4	0.0	0.0	0.0
	30대	88.5	11.5	0.0	0.0	0.0	0.0
	40대	91.7	8.3	0.0	0.0	0.0	0.0
	50대	85.0	15.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6.9	23.1	0.0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86.1	11.9	2.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6.7	13.3	0.0	0.0	0.0	0.0
	없다	80.5	14.6	4.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92.3	3.8	3.8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7.5	10.9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8.0	32.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7.8	11.0	1.2	0.0	0.0	0.0
	없다	76.5	20.6	2.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9.5	15.4	5.1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8.0	12.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3.8	6.3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1.3	18.8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5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7.6%(32)	6.9%(8)	6.0%(7)	46.6%(54)	4.3%(5)	2.6%(3)	0.0%(0)	0.0%(0)
성별	남자	31.7	12.2	7.3	36.6	2.4	7.3	0.0	2.4
	여자	25.3	4.0	5.3	52.0	5.3	0.0	0.0	8.0
연령대	10대	33.3	0.0	0.0	33.3	33.3	0.0	0.0	0.0
	20대	24.3	8.1	5.4	51.4	5.4	2.7	0.0	2.7
	30대	23.1	3.8	3.8	53.8	3.8	3.8	0.0	7.7
	40대	25.0	4.2	12.5	54.2	4.2	0.0	0.0	0.0
	50대	30.0	10.0	5.0	35.0	0.0	5.0	0.0	15.0
	60대	66.7	0.0	0.0	0.0	0.0	0.0	0.0	33.3
	70대	66.7	33.3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23.1	0.0	7.7	46.2	0.0	15.4	0.0	7.7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27.7	7.9	5.9	47.5	5.0	1.0	0.0	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4.0	4.0	5.3	53.3	4.0	2.7	0.0	6.7
	없다	34.1	12.2	7.3	34.1	4.9	2.4	0.0	4.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8	7.7	11.5	5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6.6	9.4	1.6	46.9	6.3	3.1	0.0	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0.0	12.0	40.0	4.0	4.0	0.0	12.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0.5	7.3	3.7	46.3	4.9	1.2	0.0	6.1
	없다	20.6	5.9	11.8	47.1	2.9	5.9	0.0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5.6	10.3	5.1	48.7	7.7	0.0	0.0	2.6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0	4.0	4.0	40.0	4.0	0.0	0.0	8.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3.1	9.4	50.0	3.1	6.3	0.0	9.4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7.5	6.3	6.3	5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0.0	25.0	0.0	25.0	0.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0%(7)	8.6%(10)	3.4%(4)	2.6%(3)	11.2%(13)	67.2%(78)	0.9%(1)	0.0%(0)
성별	남자	0.0	9.8	2.4	4.9	9.8	70.7	2.4	0.0
	여자	9.3	8.0	4.0	1.3	12.0	65.3	0.0	0.0
연령대	10대	33.3	0.0	0.0	0.0	33.3	33.3	0.0	0.0
	20대	0.0	10.8	5.4	0.0	24.3	56.8	2.7	0.0
	30대	3.8	11.5	0.0	7.7	3.8	73.1	0.0	0.0
	40대	8.3	4.2	4.2	0.0	4.2	79.2	0.0	0.0
	50대	10.0	5.0	5.0	5.0	0.0	75.0	0.0	0.0
	60대	33.3	33.3	0.0	0.0	0.0	33.3	0.0	0.0
	70대	0.0	0.0	0.0	0.0	33.3	66.7	0.0	0.0
당원	당원	0.0	7.7	0.0	0.0	7.7	84.6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6.9	8.9	4.0	3.0	11.9	65.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	10.7	4.0	4.0	6.7	69.3	1.3	0.0
	없다	9.8	4.9	2.4	0.0	19.5	63.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5	3.8	3.8	0.0	0.0	80.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10.9	1.6	4.7	14.1	67.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0	8.0	8.0	0.0	16.0	52.0	4.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1	7.3	3.7	1.2	14.6	67.1	0.0	0.0
	없다	5.9	11.8	2.9	5.9	2.9	67.6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0.3	5.1	2.6	23.1	53.8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4.0	0.0	4.0	4.0	88.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6.3	3.1	3.1	3.1	6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2.5	6.3	0.0	12.5	6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0.0	0.0	0.0	7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6.4%(77)	29.3%(34)	4.3%(5)	0.0%(0)	0.0%(0)	0.0%(0)
성별	남자	61.0	34.1	4.9	0.0	0.0	0.0
	여자	69.3	26.7	4.0	0.0	0.0	0.0
연령대	10대	33.3	33.3	33.3	0.0	0.0	0.0
	20대	48.6	45.9	5.4	0.0	0.0	0.0
	30대	61.5	34.6	3.8	0.0	0.0	0.0
	40대	87.5	12.5	0.0	0.0	0.0	0.0
	50대	75.0	20.0	5.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53.8	30.8	15.4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8.3	28.7	3.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3.3	22.7	4.0	0.0	0.0	0.0
	없다	53.7	41.5	4.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0.8	19.2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0.9	32.8	6.3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4.0	32.0	4.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0.7	25.6	3.7	0.0	0.0	0.0
	없다	55.9	38.2	5.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1.3	43.6	5.1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6.0	20.0	4.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8.1	18.8	3.1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8.8	31.3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6.2%(100)	12.9%(15)	0.9%(1)	0.0%(0)	0.0%(0)	0.0%(0)
성별	남자	82.9	17.1	0.0	0.0	0.0	0.0
	여자	88.0	10.7	1.3	0.0	0.0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20대	75.7	24.3	0.0	0.0	0.0	0.0
	30대	84.6	11.5	3.8	0.0	0.0	0.0
	40대	95.8	4.2	0.0	0.0	0.0	0.0
	50대	100.0	0.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84.6	7.7	7.7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86.1	13.9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9.3	9.3	1.3	0.0	0.0	0.0
	없다	80.5	19.5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4.6	15.4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4.4	14.1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92.0	8.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7.8	11.0	1.2	0.0	0.0	0.0
	없다	82.4	17.6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4.4	25.6	0.0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92.0	4.0	4.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3.8	6.3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3.8	6.3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9.1%(57)	31.0%(36)	9.5%(11)	3.4%(4)	6.0%(7)	0.9%(1)	0.0%(0)
성별	남자	43.9	34.1	14.6	2.4	4.9	0.0	0.0
	여자	52.0	29.3	6.7	4.0	6.7	1.3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0.0
	20대	45.9	32.4	8.1	5.4	8.1	0.0	0.0
	30대	46.2	34.6	7.7	3.8	3.8	3.8	0.0
	40대	70.8	12.5	12.5	4.2	0.0	0.0	0.0
	50대	45.0	35.0	15.0	0.0	5.0	0.0	0.0
	60대	33.3	66.7	0.0	0.0	0.0	0.0	0.0
	70대	0.0	33.3	0.0	0.0	66.7	0.0	0.0
당원	당원	38.5	15.4	38.5	0.0	7.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51.5	32.7	5.9	3.0	5.9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9.3	30.7	10.7	5.3	2.7	1.3	0.0
	없다	48.8	31.7	7.3	0.0	12.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4.6	7.7	0.0	3.8	0.0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7.5	39.1	14.1	3.1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4.0	36.0	4.0	4.0	12.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7.6	34.1	7.3	3.7	6.1	1.2	0.0
	없다	52.9	23.5	14.7	2.9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6.2	33.3	5.1	2.6	12.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44.0	12.0	4.0	4.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5.6	15.6	9.4	6.3	3.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43.8	12.5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0.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6.4%(77)	21.6%(25)	7.8%(9)	2.6%(3)	1.7%(2)	0.0%(0)	0.0%(0)
성별	남자	65.9	24.4	7.3	2.4	0.0	0.0	0.0
	여자	66.7	20.0	8.0	2.7	2.7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0.0
	20대	64.9	24.3	5.4	5.4	0.0	0.0	0.0
	30대	61.5	26.9	11.5	0.0	0.0	0.0	0.0
	40대	87.5	8.3	4.2	0.0	0.0	0.0	0.0
	50대	55.0	30.0	10.0	5.0	0.0	0.0	0.0
	60대	66.7	0.0	0.0	0.0	33.3	0.0	0.0
	70대	33.3	0.0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38.5	30.8	30.8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70.3	20.8	5.0	2.0	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6.7	22.7	8.0	1.3	1.3	0.0	0.0
	없다	65.9	19.5	7.3	4.9	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9.2	30.8	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4.1	18.8	10.9	3.1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2.0	20.0	4.0	4.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7.1	19.5	7.3	3.7	2.4	0.0	0.0
	없다	64.7	26.5	8.8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6.4	25.6	7.7	5.1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6.0	12.0	8.0	4.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5.6	21.9	12.5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5.0	25.0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25.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2%(35)	31.0%(36)	13.8%(16)	8.6%(10)	13.8%(16)	2.6%(3)	0.0%(0)
성별	남자	22.0	26.8	17.1	4.9	26.8	2.4	0.0
	여자	34.7	33.3	12.0	10.7	6.7	2.7	0.0
연령대	10대	33.3	33.3	33.3	0.0	0.0	0.0	0.0
	20대	21.6	40.5	10.8	5.4	21.6	0.0	0.0
	30대	19.2	38.5	15.4	7.7	11.5	7.7	0.0
	40대	45.8	20.8	16.7	12.5	0.0	4.2	0.0
	50대	35.0	20.0	10.0	15.0	20.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0.0
	70대	33.3	0.0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23.1	30.8	30.8	7.7	7.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0.7	31.7	11.9	8.9	13.9	3.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2.0	30.7	13.3	10.7	9.3	4.0	0.0
	없다	26.8	31.7	14.6	4.9	22.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3	26.9	11.5	7.7	7.7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0	35.9	12.5	9.4	14.1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0	24.0	16.0	8.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0.5	31.7	11.0	7.3	15.9	3.7	0.0
	없다	29.4	29.4	20.6	11.8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3.1	33.3	12.8	5.1	25.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0.0	24.0	16.0	16.0	12.0	12.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7.5	31.3	18.8	6.3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7.5	37.5	6.3	12.5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25.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9.7%(46)	25.0%(29)	4.3%(5)	12.9%(15)	16.4%(19)	1.7%(2)	0.0%(0)
성별	남자	34.1	19.5	2.4	19.5	24.4	0.0	0.0
	여자	42.7	28.0	5.3	9.3	12.0	2.7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0.0	0.0
	20대	29.7	29.7	2.7	16.2	21.6	0.0	0.0
	30대	38.5	19.2	7.7	19.2	7.7	7.7	0.0
	40대	62.5	16.7	0.0	12.5	8.3	0.0	0.0
	50대	40.0	25.0	5.0	5.0	25.0	0.0	0.0
	60대	33.3	66.7	0.0	0.0	0.0	0.0	0.0
	70대	33.3	0.0	0.0	0.0	66.7	0.0	0.0
당원	당원	30.8	23.1	0.0	30.8	15.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40.6	25.7	5.0	10.9	15.8	2.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2.7	26.7	2.7	13.3	12.0	2.7	0.0
	없다	34.1	22.0	7.3	12.2	24.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3.8	15.4	3.8	11.5	11.5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29.7	3.1	12.5	18.8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0	20.0	8.0	16.0	16.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6.6	26.8	4.9	9.8	19.5	2.4	0.0
	없다	47.1	20.6	2.9	20.6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8.2	33.3	5.1	15.4	17.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20.0	4.0	24.0	12.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3.1	21.9	3.1	6.3	1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25.0	6.3	0.0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4.0%(51)	20.7%(24)	17.2%(20)	15.5%(18)	2.6%(3)	0.0%(0)
성별	남자	34.1	22.0	14.6	29.3	0.0	0.0
	여자	49.3	20.0	18.7	8.0	4.0	0.0
연령대	10대	66.7	0.0	0.0	33.3	0.0	0.0
	20대	45.9	27.0	16.2	10.8	0.0	0.0
	30대	53.8	30.8	3.8	11.5	0.0	0.0
	40대	37.5	16.7	25.0	20.8	0.0	0.0
	50대	35.0	5.0	25.0	20.0	15.0	0.0
	60대	0.0	33.3	33.3	33.3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30.8	15.4	15.4	38.5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6.5	21.8	16.8	11.9	3.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2.7	20.0	18.7	16.0	2.7	0.0
	없다	46.3	22.0	14.6	14.6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5.4	23.1	3.8	7.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9	23.4	21.9	15.6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4.0	12.0	16.0	24.0	4.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6.3	19.5	17.1	14.6	2.4	0.0
	없다	38.2	23.5	17.6	17.6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3.8	23.1	7.7	15.4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6.0	16.0	20.0	24.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7.5	25.0	21.9	9.4	6.3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18.8	25.0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6%(39)	40.5%(47)	19.8%(23)	4.3%(5)	1.7%(2)	0.0%(0)
성별	남자	24.4	51.2	19.5	4.9	0.0	0.0
	여자	38.7	34.7	20.0	4.0	2.7	0.0
연령대	10대	33.3	33.3	33.3	0.0	0.0	0.0
	20대	29.7	45.9	24.3	0.0	0.0	0.0
	30대	26.9	53.8	15.4	0.0	3.8	0.0
	40대	37.5	29.2	16.7	16.7	0.0	0.0
	50대	35.0	35.0	20.0	5.0	5.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30.8	38.5	15.4	15.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3.7	41.6	19.8	3.0	2.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4.7	40.0	18.7	4.0	2.7	0.0
	없다	31.7	41.5	22.0	4.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3	42.3	11.5	0.0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8.1	45.3	21.9	3.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0	28.0	24.0	8.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4.1	37.8	22.0	3.7	2.4	0.0
	없다	32.4	47.1	14.7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3.3	43.6	23.1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8.0	28.0	28.0	8.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0.6	37.5	12.5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1.3	50.0	18.8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7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7.4%(55)	26.7%(31)	14.7%(17)	9.5%(11)	1.7%(0)	0.0%(0)
성별	남자	41.5	22.0	17.1	19.5	0.0	0.0
	여자	50.7	29.3	13.3	4.0	2.7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20대	43.2	37.8	8.1	10.8	0.0	0.0
	30대	42.3	30.8	15.4	7.7	3.8	0.0
	40대	41.7	20.8	25.0	12.5	0.0	0.0
	50대	60.0	10.0	15.0	10.0	5.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23.1	23.1	30.8	23.1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50.5	27.7	12.9	6.9	2.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9.3	21.3	17.3	9.3	2.7	0.0
	없다	43.9	36.6	9.8	9.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7.7	23.1	11.5	3.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2.2	25.0	20.3	10.9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2.0	32.0	4.0	12.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8.8	26.8	14.6	7.3	2.4	0.0
	없다	44.1	26.5	14.7	14.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3.8	30.8	5.1	10.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0	24.0	20.0	8.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7.5	28.1	25.0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2.5	18.8	12.5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6.2%(42)	28.4%(33)	21.6%(25)	10.3%(12)	3.4%(4)	0.0%(0)
성별	남자	31.7	31.7	22.0	12.2	2.4	0.0
	여자	38.7	26.7	21.3	9.3	4.0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20대	43.2	40.5	13.5	2.7	0.0	0.0
	30대	38.5	26.9	23.1	7.7	3.8	0.0
	40대	25.0	29.2	20.8	20.8	4.2	0.0
	50대	30.0	10.0	35.0	15.0	10.0	0.0
	60대	66.7	0.0	33.3	0.0	0.0	0.0
	70대	33.3	0.0	33.3	33.3	0.0	0.0
당원	당원	7.7	30.8	46.2	15.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9.6	28.7	18.8	8.9	4.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0	25.3	21.3	9.3	4.0	0.0
	없다	29.3	34.1	22.0	12.2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6.2	23.1	19.2	7.7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29.7	23.4	9.4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0	28.0	20.0	16.0	4.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4.1	26.8	23.2	11.0	4.9	0.0
	없다	41.2	32.4	17.6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6.2	35.9	12.8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8.0	16.0	28.0	16.0	12.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1.9	37.5	21.9	15.6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12.5	37.5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2%(6)	17.2%(20)	19.8%(23)	32.8%(38)	25.0%(29)	0.0%(0)	0.0%(0)
성별	남자	31.7	12.2	7.3	36.6	2.4	0.0	2.4
	여자	25.3	4.0	5.3	52.0	5.3	0.0	8.0
연령대	10대	33.3	0.0	0.0	33.3	33.3	0.0	0.0
	20대	24.3	8.1	5.4	51.4	5.4	0.0	2.7
	30대	23.1	3.8	3.8	53.8	3.8	0.0	7.7
	40대	25.0	4.2	12.5	54.2	4.2	0.0	0.0
	50대	30.0	10.0	5.0	35.0	0.0	0.0	15.0
	60대	66.7	0.0	0.0	0.0	0.0	0.0	33.3
	70대	66.7	33.3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23.1	0.0	7.7	46.2	0.0	0.0	7.7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27.7	7.9	5.9	47.5	5.0	0.0	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4.0	4.0	5.3	53.3	4.0	0.0	6.7
	없다	34.1	12.2	7.3	34.1	4.9	0.0	4.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8	7.7	11.5	5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6.6	9.4	1.6	46.9	6.3	0.0	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0.0	12.0	40.0	4.0	0.0	12.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0.5	7.3	3.7	46.3	4.9	0.0	6.1
	없다	20.6	5.9	11.8	47.1	2.9	0.0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5.6	10.3	5.1	48.7	7.7	0.0	2.6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0	4.0	4.0	40.0	4.0	0.0	8.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3.1	9.4	50.0	3.1	0.0	9.4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7.5	6.3	6.3	5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0.0	25.0	0.0	0.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6)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 할 생각이십니까?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9.0%(22)	51.7%(60)	26.7%(31)	2.6%(3)	0.0%(0)	0.0%(0)
성별	남자	24.4	39.0	36.6	0.0	0.0	0.0
	여자	16.0	58.7	21.3	4.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24.3	32.4	35.1	8.1	0.0	0.0
	30대	0.0	69.2	30.8	0.0	0.0	0.0
	40대	29.2	58.3	12.5	0.0	0.0	0.0
	50대	20.0	55.0	25.0	0.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0.0	33.3	66.7	0.0	0.0	0.0
당원	당원	23.1	38.5	38.5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18.8	52.5	25.7	3.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7.3	58.7	24.0	0.0	0.0	0.0
	없다	22.0	39.0	31.7	7.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2	61.5	19.2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8	53.1	25.0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40.0	40.0	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9	53.7	28.0	2.4	0.0	0.0
	없다	26.5	47.1	23.5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3.1	35.9	33.3	7.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2.0	72.0	16.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46.9	34.4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62.5	18.8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7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對남한인식

문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0%(7)	50.0%(58)	2.6%(3)	11.2%(13)	30.2%(35)	0.0%(0)	0.0%(0)
성별	남자	0.0	51.2	2.4	12.2	34.1	0.0	0.0
	여자	9.3	49.3	2.7	10.7	28.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0.0	33.3	0.0	0.0
	20대	2.7	51.4	2.7	13.5	29.7	0.0	0.0
	30대	7.7	42.3	3.8	15.4	30.8	0.0	0.0
	40대	8.3	54.2	0.0	4.2	33.3	0.0	0.0
	50대	5.0	50.0	5.0	5.0	35.0	0.0	0.0
	60대	33.3	66.7	0.0	0.0	0.0	0.0	0.0
	70대	0.0	33.3	0.0	66.7	0.0	0.0	0.0
당원	당원	0.0	23.1	0.0	15.4	61.5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9	53.5	3.0	9.9	26.7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7	48.0	4.0	8.0	33.3	0.0	0.0
	없다	4.9	53.7	0.0	17.1	24.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7	50.0	3.8	3.8	34.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46.9	3.1	10.9	32.8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60.0	0.0	20.0	16.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47.6	2.4	11.0	31.7	0.0	0.0
	없다	2.9	55.9	2.9	11.8	26.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53.8	2.6	17.9	23.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44.0	0.0	4.0	48.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2.5	50.0	3.1	9.4	25.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3	50.0	6.3	12.5	25.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0.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5.5%(18)	31.9%(37)	22.4%(26)	30.2%(35)	0.0%(0)	0.0%(0)
성별	남자	14.6	39.0	24.4	22.0	0.0	0.0
	여자	16.0	28.0	21.3	34.7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33.3	0.0	0.0
	20대	8.1	32.4	27.0	32.4	0.0	0.0
	30대	3.8	26.9	30.8	38.5	0.0	0.0
	40대	25.0	33.3	20.8	20.8	0.0	0.0
	50대	30.0	30.0	15.0	25.0	0.0	0.0
	60대	33.3	33.3	0.0	33.3	0.0	0.0
	70대	33.3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15.4	38.5	15.4	30.8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5.8	31.7	22.8	29.7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7	28.0	26.7	30.7	0.0	0.0
	없다	17.1	39.0	14.6	29.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6.9	26.9	23.1	23.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5	39.1	21.9	26.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0	20.0	24.0	44.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9	31.7	19.5	32.9	0.0	0.0
	없다	14.7	32.4	29.4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3	35.9	20.5	33.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4.0	20.0	28.0	28.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4	37.5	15.6	37.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1.3	25.0	31.3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5.18 항쟁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1.9%(37)	33.6%(39)	19.8%(23)	14.7%(17)	0.0%(0)	0.0%(0)
성별	남자	29.3	41.5	14.6	14.6	0.0	0.0
	여자	33.3	29.3	22.7	14.7	0.0	0.0
연령대	10대	33.3	33.3	0.0	33.3	0.0	0.0
	20대	16.2	32.4	29.7	21.6	0.0	0.0
	30대	15.4	34.6	26.9	23.1	0.0	0.0
	40대	50.0	37.5	8.3	4.2	0.0	0.0
	50대	60.0	25.0	15.0	0.0	0.0	0.0
	60대	33.3	66.7	0.0	0.0	0.0	0.0
	70대	33.3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23.1	30.8	23.1	23.1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33.7	34.7	18.8	12.9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9.3	34.7	21.3	14.7	0.0	0.0
	없다	36.6	31.7	17.1	14.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30.8	7.7	11.5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6.6	35.9	23.4	14.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32.0	24.0	16.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5.4	31.7	17.1	15.9	0.0	0.0
	없다	23.5	38.2	26.5	11.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5	38.5	20.5	20.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6.0	16.0	24.0	2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0.6	37.5	12.5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7.5	43.8	18.8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5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88 서울 올림픽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4.7%(17)	19.0%(22)	29.3%(34)	35.3%(41)	0.0%(0)	0.0%(0)
성별	남자	17.1	31.7	19.5	31.7	0.0	0.0
	여자	13.3	12.0	34.7	37.3	2.7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0.0
	20대	10.8	16.2	27.0	45.9	0.0	0.0
	30대	3.8	26.9	26.9	42.3	0.0	0.0
	40대	20.8	16.7	33.3	25.0	4.2	0.0
	50대	30.0	10.0	35.0	20.0	5.0	0.0
	60대	33.3	33.3	0.0	33.3	0.0	0.0
	70대	0.0	33.3	33.3	33.3	0.0	0.0
당원	당원	7.7	23.1	38.5	30.8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5.8	18.8	27.7	35.6	2.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6.0	17.3	28.0	36.0	2.7	0.0
	없다	12.2	22.0	31.7	34.1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2	19.2	26.9	30.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23.4	28.1	32.8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0	8.0	36.0	44.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3.4	13.4	31.7	39.0	2.4	0.0
	없다	17.6	32.4	23.5	26.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25.6	25.6	41.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4.0	12.0	28.0	3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4	21.9	31.3	37.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6.3	43.8	12.5	12.5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	19.8%(23)	27.6%(32)	44.0%(51)	0.0%(0)	0.0%(0)
성별	남자	7.3	41.5	19.5	31.7	0.0	0.0
	여자	8.0	8.0	32.0	50.7	1.3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66.7	0.0	0.0
	20대	8.1	18.9	27.0	45.9	0.0	0.0
	30대	3.8	23.1	30.8	42.3	0.0	0.0
	40대	8.3	16.7	41.7	33.3	0.0	0.0
	50대	10.0	20.0	15.0	50.0	5.0	0.0
	60대	33.3	0.0	33.3	33.3	0.0	0.0
	70대	0.0	33.3	0.0	66.7	0.0	0.0
당원	당원	0.0	38.5	30.8	30.8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8.9	16.8	27.7	45.5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0	20.0	26.7	44.0	1.3	0.0
	없다	7.3	19.5	29.3	43.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7	19.2	34.6	34.6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20.3	28.1	43.8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16.0	20.0	56.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14.6	26.8	50.0	1.2	0.0
	없다	8.8	32.4	29.4	29.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25.6	23.1	43.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0	20.0	32.0	4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15.6	34.4	5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18.8	18.8	37.5	6.3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0.0	25.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1.6%(25)	31.0%(36)	15.5%(18)	31.0%(36)	0.0%(0)	0.0%(0)
성별	남자	31.7	39.0	9.8	19.5	0.0	0.0
	여자	16.0	26.7	18.7	37.3	1.3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33.3	0.0	0.0
	20대	21.6	37.8	13.5	27.0	0.0	0.0
	30대	23.1	30.8	11.5	34.6	0.0	0.0
	40대	20.8	29.2	20.8	29.2	0.0	0.0
	50대	25.0	15.0	25.0	30.0	5.0	0.0
	60대	33.3	33.3	0.0	33.3	0.0	0.0
	70대	0.0	33.3	0.0	66.7	0.0	0.0
당원	당원	23.1	46.2	7.7	23.1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21.8	29.7	15.8	31.7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8.7	32.0	20.0	28.0	1.3	0.0
	없다	26.8	29.3	7.3	36.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19.2	15.4	26.9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39.1	17.2	29.7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20.0	12.0	4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4	28.0	15.9	30.5	1.2	0.0
	없다	14.7	38.2	14.7	3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5.4	41.0	12.8	30.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24.0	20.0	2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31.3	15.6	34.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18.8	18.8	31.3	6.3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4.1%(28)	47.4%(55)	19.8%(23)	7.8%(9)	0.9%(1)	0.0%(0)
성별	남자	29.3	53.7	12.2	4.9	0.0	0.0
	여자	21.3	44.0	24.0	9.3	1.3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0.0
	20대	16.2	45.9	27.0	10.8	0.0	0.0
	30대	26.9	53.8	15.4	3.8	0.0	0.0
	40대	25.0	50.0	20.8	4.2	0.0	0.0
	50대	25.0	50.0	10.0	10.0	5.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23.1	53.8	15.4	7.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4.8	46.5	20.8	6.9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7	53.3	17.3	5.3	1.3	0.0
	없다	26.8	36.6	24.4	12.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3	30.8	19.2	3.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7.2	54.7	21.9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4.0	44.0	16.0	16.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8.0	40.2	22.0	8.5	1.2	0.0
	없다	14.7	64.7	14.7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3.1	41.0	25.6	10.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6.0	40.0	20.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62.5	18.8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43.8	6.3	25.0	6.3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주 접해 봤다	한 두번 접해 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7.4%(55)	44.0%(51)	8.6%(10)	0.0%(0)	0.0%(0)
성별	남자	31.7	39.0	9.8	19.5	0.0
	여자	16.0	26.7	18.7	37.3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33.3	0.0
	20대	21.6	37.8	13.5	27.0	0.0
	30대	23.1	30.8	11.5	34.6	0.0
	40대	20.8	29.2	20.8	29.2	0.0
	50대	25.0	15.0	25.0	30.0	0.0
	60대	33.3	33.3	0.0	33.3	0.0
	70대	0.0	33.3	0.0	66.7	0.0
당원	당원	23.1	46.2	7.7	23.1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21.8	29.7	15.8	31.7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8.7	32.0	20.0	28.0	0.0
	없다	26.8	29.3	7.3	36.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19.2	15.4	26.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39.1	17.2	29.7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20.0	12.0	4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4	28.0	15.9	30.5	0.0
	없다	14.7	38.2	14.7	3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5.4	41.0	12.8	30.8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24.0	20.0	2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31.3	15.6	34.4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18.8	18.8	31.3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0.0	5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25)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까?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0.3%(70)	27.6%(32)	3.4%(4)	0.0%(0)	1.7%(2)	0.0%(0)
성별	남자	53.7	36.6	7.3	0.0	2.4	0.0
	여자	71.6	25.4	1.5	0.0	1.5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20대	61.1	36.1	2.8	0.0	0.0	0.0
	30대	64.0	28.0	8.0	0.0	0.0	0.0
	40대	78.3	17.4	0.0	0.0	4.3	0.0
	50대	62.5	31.3	6.3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0.0	50.0	0.0	0.0	50.0	0.0
당원	당원	53.8	30.8	7.7	0.0	7.7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6.7	29.0	3.2	0.0	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1.8	23.9	4.2	0.0	0.0	0.0
	없다	51.4	40.5	2.7	0.0	5.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3.9	17.4	4.3	0.0	4.3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7.7	27.4	3.2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5.5	50.0	4.5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4.5	30.3	2.6	0.0	2.6	0.0
	없다	65.6	28.1	6.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0.5	34.2	5.3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0	36.0	4.0	0.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3	33.3	3.7	0.0	3.7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3.3	6.7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유통경로

문26)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까?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6%(3)	62.9%(73)	19.0%(22)	5.2%(6)	0.9%(1)	2.6%(3)
성별	남자	0.0	63.4	19.5	9.8	2.4	4.9
	여자	4.5	70.1	20.9	3.0	0.0	1.5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77.8	13.9	5.6	0.0	2.8
	30대	0.0	72.0	20.0	0.0	0.0	8.0
	40대	13.0	56.5	13.0	13.0	4.3	0.0
	50대	0.0	43.8	50.0	6.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50.0	50.0	0.0	0.0	0.0
당원	당원	0.0	46.2	15.4	15.4	7.7	15.4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2	71.0	21.5	3.2	0.0	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2	66.2	21.1	5.6	0.0	2.8
	없다	0.0	70.3	18.9	5.4	2.7	2.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3	60.9	26.1	4.3	4.3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2	71.0	19.4	3.2	0.0	3.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8.2	18.2	9.1	0.0	4.5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6	69.7	23.7	0.0	1.3	2.6
	없다	3.1	62.5	12.5	18.8	0.0	3.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84.2	7.9	5.3	0.0	2.6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56.0	28.0	4.0	4.0	8.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7	70.4	18.5	7.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3.3	40.0	40.0	6.7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66.7	33.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문27) 귀하는 남한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호감도가 매우 증가 하였다	호감도가 약간 증가 하였다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호감도가 약간 감소 하였다	호감도가 매우 감소 하였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2.9%(73)	20.7%(24)	7.8%(9)	0.9%(1)	0.9%(1)	0.0%(0)	0.0%(0)
성별	남자	56.1	29.3	12.2	0.0	2.4	0.0	0.0
	여자	74.6	17.9	6.0	1.5	0.0	0.0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0.0
	20대	66.7	30.6	2.8	0.0	0.0	0.0	0.0
	30대	64.0	16.0	16.0	4.0	0.0	0.0	0.0
	40대	82.6	13.0	4.3	0.0	0.0	0.0	0.0
	50대	62.5	18.8	12.5	0.0	6.3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0.0
	70대	50.0	0.0	50.0	0.0	0.0	0.0	0.0
당원	당원	46.2	30.8	23.1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72.0	20.4	6.5	1.1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4.6	14.1	8.5	1.4	1.4	0.0	0.0
	없다	54.1	37.8	8.1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8.3	17.4	4.3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6.1	22.6	8.1	1.6	1.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9.1	27.3	13.6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9.7	21.1	7.9	0.0	1.3	0.0	0.0
	없다	62.5	25.0	9.4	3.1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3.2	28.9	7.9	0.0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0.0	28.0	4.0	4.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4.1	11.1	14.8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6.7	6.7	6.7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3.3	66.7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2.2%(107)	4.3%(5)	1.7%(2)	0.9%(1)	0.9%(1)	0.0%(0)
성별	남자	95.1	2.4	0.0	2.4	0.0	0.0
	여자	90.7	5.3	2.7	0.0	1.3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91.9	5.4	2.7	0.0	0.0	0.0
	30대	88.5	3.8	3.8	0.0	3.8	0.0
	40대	91.7	4.2	0.0	4.2	0.0	0.0
	50대	95.0	5.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92.3	0.0	0.0	7.7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92.1	5.0	2.0	0.0	1.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94.7	1.3	1.3	1.3	1.3	0.0
	없다	87.8	9.8	2.4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8.5	3.8	3.8	0.0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6.9	1.6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0	12.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91.5	4.9	2.4	0.0	1.2	0.0
	없다	94.1	2.9	0.0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94.9	2.6	2.6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8.0	4.0	4.0	0.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0.6	6.3	0.0	3.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3.8	6.3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언어사용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4.7%(75)	27.6%(32)	3.4%(4)	3.4%(4)	0.9%(1)	0.0%(0)
성별	남자	65.9	24.4	4.9	2.4	2.4	0.0
	여자	64.0	29.3	2.7	4.0	0.0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67.6	24.3	8.1	0.0	0.0	0.0
	30대	65.4	30.8	0.0	3.8	0.0	0.0
	40대	62.5	37.5	0.0	0.0	0.0	0.0
	50대	60.0	25.0	5.0	5.0	5.0	0.0
	60대	66.7	0.0	0.0	33.3	0.0	0.0
	70대	33.3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61.5	30.8	0.0	7.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65.3	27.7	4.0	3.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9.3	24.0	1.3	4.0	1.3	0.0
	없다	56.1	34.1	7.3	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5.4	23.1	7.7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7.2	25.0	3.1	3.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0.0	36.0	0.0	4.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5.9	24.4	3.7	4.9	1.2	0.0
	없다	61.8	35.3	2.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9.2	20.5	5.1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8.0	28.0	0.0	0.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3.1	37.5	3.1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5.0	25.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5.7%(53)	37.1%(43)	11.2%(13)	3.4%(4)	1.7%(2)	0.0%(0)
성별	남자	46.3	39.0	12.2	2.4	0.0	0.0
	여자	45.3	36.0	10.7	4.0	2.7	1.3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20대	48.6	35.1	10.8	0.0	2.7	2.7
	30대	42.3	38.5	11.5	3.8	3.8	0.0
	40대	54.2	33.3	12.5	0.0	0.0	0.0
	50대	45.0	35.0	15.0	5.0	0.0	0.0
	60대	0.0	66.7	0.0	33.3	0.0	0.0
	70대	33.3	33.3	0.0	33.3	0.0	0.0
당원	당원	30.8	46.2	23.1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47.5	35.6	9.9	4.0	2.0	1.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5.3	38.7	10.7	4.0	1.3	0.0
	없다	46.3	34.1	12.2	2.4	2.4	2.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46.2	11.5	3.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2.2	39.1	10.9	4.7	1.6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4.0	24.0	12.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2.7	36.6	13.4	3.7	2.4	1.2
	없다	52.9	38.2	5.9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1.3	30.8	7.7	7.7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4.0	40.0	8.0	0.0	4.0	4.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4.4	43.8	18.8	3.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2.5	31.3	6.3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가족중시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1.0%(36)	32.8%(38)	26.7%(31)	7.8%(9)	1.7%(2)	0.0%(0)
성별	남자	34.1	34.1	24.4	7.3	0.0	0.0
	여자	29.3	32.0	28.0	8.0	2.7	0.0
연령대	10대	33.3	33.3	33.3	0.0	0.0	0.0
	20대	40.5	18.9	29.7	8.1	2.7	0.0
	30대	23.1	38.5	30.8	3.8	3.8	0.0
	40대	37.5	41.7	16.7	4.2	0.0	0.0
	50대	15.0	40.0	25.0	20.0	0.0	0.0
	60대	0.0	66.7	33.3	0.0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15.4	53.8	30.8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1.7	30.7	26.7	8.9	2.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2.0	29.3	32.0	5.3	1.3	0.0
	없다	29.3	39.0	17.1	12.2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8	46.2	11.5	7.7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6.6	34.4	31.3	6.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0	16.0	32.0	1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2.9	31.7	25.6	7.3	2.4	0.0
	없다	26.5	35.3	29.4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9	23.1	28.2	12.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4.0	32.0	28.0	8.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3	43.8	18.8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1.3	43.8	25.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0.0	7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1.0%(94)	11.2%(13)	1.7%(2)	5.2%(6)	0.9%(1)	0.0%(0)
성별	남자	80.5	14.6	0.0	4.9	0.0	0.0
	여자	81.3	9.3	2.7	5.3	1.3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20대	75.7	16.2	2.7	5.4	0.0	0.0
	30대	76.9	15.4	0.0	3.8	3.8	0.0
	40대	91.7	0.0	4.2	4.2	0.0	0.0
	50대	90.0	0.0	0.0	10.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0.0
당원	당원	84.6	15.4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81.2	10.9	2.0	5.0	1.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8.0	8.0	0.0	2.7	1.3	0.0
	없다	68.3	17.1	4.9	9.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4.6	7.7	0.0	3.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1.3	10.9	3.1	4.7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6.0	16.0	0.0	8.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0.5	11.0	1.2	6.1	1.2	0.0
	없다	82.4	11.8	2.9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4.4	20.5	2.6	2.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6.0	12.0	4.0	4.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87.5	6.3	0.0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3.8	0.0	0.0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0.0	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돈 중시

문3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7.8%(67)	19.0%(22)	14.7%(17)	6.9%(8)	1.7%(2)	0.0&(0)
성별	남자	58.5	17.1	9.8	12.2	2.4	0.0
	여자	57.3	20.0	17.3	4.0	1.3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0.0
	20대	56.8	18.9	16.2	8.1	0.0	0.0
	30대	61.5	19.2	7.7	3.8	7.7	0.0
	40대	66.7	12.5	12.5	8.3	0.0	0.0
	50대	45.0	25.0	20.0	10.0	0.0	0.0
	60대	66.7	0.0	33.3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1.5	23.1	0.0	15.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56.4	18.8	16.8	5.9	2.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1.3	13.3	16.0	6.7	2.7	0.0
	없다	51.2	29.3	12.2	7.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5.4	11.5	19.2	0.0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0.9	18.8	10.9	7.8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0	28.0	20.0	1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8.5	19.5	14.6	6.1	1.2	0.0
	없다	55.9	17.6	14.7	8.8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9.0	20.5	12.8	5.1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0	16.0	16.0	8.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6.3	18.8	15.6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2.5	25.0	12.5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9.0%(22)	27.6%(32)	33.6%(39)	19.8%(23)	0.0%(0)	0.0%(0)
성별	남자	7.3	39.0	34.1	19.5	0.0	0.0
	여자	25.3	21.3	33.3	2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0.0
	20대	8.1	32.4	40.5	18.9	0.0	0.0
	30대	7.7	38.5	38.5	15.4	0.0	0.0
	40대	25.0	12.5	33.3	29.2	0.0	0.0
	50대	30.0	25.0	20.0	25.0	0.0	0.0
	60대	66.7	0.0	33.3	0.0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23.1	38.5	23.1	15.4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18.8	25.7	34.7	20.8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0.0	28.0	33.3	18.7	0.0	0.0
	없다	17.1	26.8	34.1	22.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6.9	30.8	23.1	19.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8	26.6	37.5	17.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28.0	36.0	28.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9.5	28.0	34.1	18.3	0.0	0.0
	없다	17.6	26.5	32.4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2.8	28.2	41.0	17.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36.0	40.0	8.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3	18.8	25.0	25.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31.3	25.0	31.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핵무기 위협

문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위협적이다	다소 위협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2.9%(73)	24.1%(28)	8.6%(10)	4.3%(5)	0.0%(0)	0.0%(0)
성별	남자	63.4	19.5	12.2	4.9	0.0	0.0
	여자	62.7	26.7	6.7	4.0	0.0	0.0
연령대	10대	33.3	66.7	0.0	0.0	0.0	0.0
	20대	51.4	40.5	8.1	0.0	0.0	0.0
	30대	57.7	30.8	3.8	7.7	0.0	0.0
	40대	79.2	8.3	12.5	0.0	0.0	0.0
	50대	70.0	5.0	15.0	10.0	0.0	0.0
	60대	66.7	0.0	0.0	33.3	0.0	0.0
	7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1.5	15.4	15.4	7.7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3.4	25.7	6.9	4.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9.3	17.3	8.0	5.3	0.0	0.0
	없다	51.2	36.6	9.8	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9.2	19.2	3.8	7.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5.6	21.9	9.4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8.0	36.0	12.0	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8.3	20.7	6.1	4.9	0.0	0.0
	없다	50.0	32.4	14.7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1.3	38.5	7.7	2.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4.0	24.0	12.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8.1	3.1	12.5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8.8	18.8	0.0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7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9%(8)	40.5%(47)	34.5%(40)	18.1%(21)	0.0%(0)	0.0%(0)
성별	남자	2.4	51.2	26.8	19.5	0.0	0.0
	여자	9.3	34.7	38.7	17.3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66.7	0.0	0.0
	20대	0.0	37.8	48.6	13.5	0.0	0.0
	30대	0.0	50.0	23.1	26.9	0.0	0.0
	40대	16.7	37.5	33.3	12.5	0.0	0.0
	50대	0.0	50.0	30.0	20.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7.7	46.2	30.8	15.4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6.9	39.6	35.6	17.8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0	41.3	32.0	18.7	0.0	0.0
	없다	4.9	39.0	39.0	17.1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7	46.2	26.9	19.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34.4	40.6	17.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48.0	28.0	2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37.8	35.4	19.5	0.0	0.0
	없다	5.9	47.1	32.4	14.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33.3	43.6	20.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40.0	24.0	3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2.5	43.8	37.5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50.0	18.8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5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5.3%(41)	19.8(23)	5.2%(6)	7.8%(9)	29.3%(34)	2.6%(3)	0.0%(0)
성별	남자	29.3	14.6	4.9	9.8	39.0	2.4	0.0
	여자	38.7	22.7	5.3	6.7	24.0	2.7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0.0
	20대	43.2	21.6	10.8	5.4	13.5	5.4	0.0
	30대	38.5	15.4	3.8	19.2	23.1	0.0	0.0
	40대	33.3	12.5	0.0	0.0	54.2	0.0	0.0
	50대	10.0	35.0	0.0	10.0	40.0	5.0	0.0
	60대	33.3	33.3	33.3	0.0	0.0	0.0	0.0
	70대	33.3	0.0	0.0	0.0	66.7	0.0	0.0
당원	당원	30.8	0.0	0.0	7.7	61.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6.6	22.8	5.9	6.9	24.8	3.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8.7	18.7	2.7	8.0	32.0	0.0	0.0
	없다	29.3	22.0	9.8	7.3	24.4	7.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3	19.2	0.0	3.8	34.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20.3	6.3	9.4	28.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20.0	8.0	8.0	28.0	8.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1.7	24.4	4.9	8.5	26.8	3.7	0.0
	없다	44.1	8.8	5.9	5.9	35.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1.0	17.9	10.3	7.7	17.9	5.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6.0	20.0	0.0	12.0	3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3	21.9	0.0	6.3	37.5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25.0	6.3	6.3	37.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25.0	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지원

문3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2.2%(49)	24.1%(28)	23.3(27)	3.4%(4)	6.0%(7)	0.9%(1)	0.0%(0)
성별	남자	36.6	19.5	31.7	4.9	7.3	0.0	0.0
	여자	45.3	26.7	18.7	2.7	5.3	1.3	0.0
연령대	10대	66.7	0.0	33.3	0.0	0.0	0.0	0.0
	20대	35.1	35.1	27.0	2.7	0.0	0.0	0.0
	30대	46.2	15.4	23.1	3.8	7.7	3.8	0.0
	40대	45.8	20.8	25.0	0.0	8.3	0.0	0.0
	50대	40.0	25.0	15.0	5.0	15.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0.0
	70대	33.3	0.0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38.5	0.0	30.8	15.4	15.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42.6	27.7	21.8	2.0	5.0	1.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2.7	24.0	25.3	2.7	4.0	1.3	0.0
	없다	41.5	24.4	19.5	4.9	9.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3.1	15.4	0.0	7.7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0.6	23.4	28.1	4.7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6.0	28.0	20.0	4.0	1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3.9	23.2	20.7	4.9	6.1	1.2	0.0
	없다	38.2	26.5	29.4	0.0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3.3	35.9	23.1	2.6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0	20.0	24.0	8.0	4.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3.1	25.0	12.5	3.1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6.3	37.5	0.0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5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문3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0.9%(59)	25.9%(30)	18.1%(21)	3.4%(4)	1.7%(2)	0.0%(0)	0.0%(0)
성별	남자	39.0	31.7	22.0	4.9	2.4	0.0	0.0
	여자	57.3	22.7	16.0	2.7	1.3	0.0	0.0
연령대	10대	66.7	0.0	33.3	0.0	0.0	0.0	0.0
	20대	37.8	32.4	27.0	2.7	0.0	0.0	0.0
	30대	57.7	19.2	15.4	3.8	3.8	0.0	0.0
	40대	54.2	25.0	12.5	8.3	0.0	0.0	0.0
	50대	55.0	30.0	10.0	0.0	5.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0.0
당원	당원	53.8	15.4	15.4	15.4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50.5	27.7	17.8	2.0	2.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7.3	26.7	13.3	1.3	1.3	0.0	0.0
	없다	39.0	24.4	26.8	7.3	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1.5	15.4	15.4	3.8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8.4	32.8	15.6	1.6	1.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4.0	20.0	28.0	8.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4.9	22.0	17.1	4.9	1.2	0.0	0.0
	없다	41.2	35.3	20.6	0.0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6.2	23.1	25.6	2.6	2.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0.0	28.0	4.0	8.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6.3	25.0	15.6	3.1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25.0	25.0	0.0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자부심

문40)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추제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4.5%(40)	26.7%(31)	29.3%(34)	9.5%(11)	0.0%(0)	0.0%(0)
성별	남자	29.3	31.7	26.8	12.2	0.0	0.0
	여자	37.3	24.0	30.7	8.0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20대	40.5	24.3	21.6	13.5	0.0	0.0
	30대	34.6	34.6	23.1	7.7	0.0	0.0
	40대	29.2	20.8	41.7	8.3	0.0	0.0
	50대	25.0	30.0	35.0	10.0	0.0	0.0
	60대	33.3	0.0	66.7	0.0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15.4	38.5	30.8	15.4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6.6	24.8	29.7	8.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3.3	28.0	30.7	8.0	0.0	0.0
	없다	36.6	24.4	26.8	12.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6.2	15.4	34.6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26.6	32.8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4.0	40.0	16.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6.8	34.1	31.7	7.3	0.0	0.0
	없다	52.9	8.8	23.5	14.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6.2	20.5	20.5	12.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8.0	36.0	24.0	1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3	28.1	31.3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31.3	56.3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김정은 지지도

문4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2%(6)	5.2%(6)	10.3%(12)	7.8%(9)	20.7%(24)	9.5%(11)	9.5%(11)	13.8%(16)	18.1%(21)	0.0%(0)	0.0%(0)
성별	남자	12.2	7.3	7.3	9.8	22.0	4.9	7.3	0.1	0.1	0.0	0.0
	여자	1.3	4.0	12.0	6.7	20.0	12.0	10.7	0.1	0.2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33.3	0.0	33.3	0.0	0.3	0.0	0.0
	20대	5.4	2.7	5.4	2.7	18.9	13.5	16.2	0.2	0.2	0.0	0.0
	30대	3.8	11.5	7.7	3.8	26.9	7.7	7.7	0.2	0.1	0.0	0.0
	40대	4.2	8.3	4.2	12.5	25.0	12.5	4.2	0.0	0.3	0.0	0.0
	50대	10.0	0.0	20.0	20.0	10.0	5.0	5.0	0.1	0.2	0.0	0.0
	60대	0.0	0.0	66.7	0.0	0.0	0.0	0.0	0.3	0.0	0.0	0.0
	70대	0.0	0.0	33.3	0.0	33.3	0.0	0.0	0.0	0.3	0.0	0.0
당원	당원	7.7	7.7	0.0	15.4	30.8	15.4	0.0	0.2	0.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5.0	5.0	11.9	6.9	18.8	8.9	10.9	0.1	0.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7	5.3	9.3	5.3	24.0	8.0	9.3	0.1	0.2	0.0	0.0
	없다	2.4	4.9	12.2	12.2	14.6	12.2	9.8	0.1	0.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0.0	3.8	11.5	19.2	11.5	11.5	0.1	0.3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4.7	14.1	4.7	23.4	7.8	10.9	0.1	0.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12.0	8.0	12.0	16.0	12.0	4.0	0.2	0.1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9	6.1	13.4	9.8	19.5	8.5	6.1	0.1	0.2	0.0	0.0
	없다	5.9	2.9	2.9	2.9	23.5	11.8	17.6	0.1	0.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1	5.1	5.1	2.6	20.5	12.8	12.8	0.1	0.2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4.0	12.0	16.0	28.0	4.0	8.0	0.1	0.1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	3.1	15.6	3.1	25.0	9.4	6.3	0.1	0.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12.5	12.5	18.8	6.3	12.5	6.3	0.1	0.1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0.0	0.0	0.0	25.0	0.8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2.1%(14)	19.0%(22)	53.4%(62)	15.5%(18)	0.0%(0)	0.0%(0)
성별	남자	14.6	26.8	46.3	12.2	0.0	0.0
	여자	10.7	14.7	57.3	17.3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66.7	0.0	0.0	0.0
	20대	5.4	29.7	45.9	18.9	0.0	0.0
	30대	7.7	7.7	80.8	3.8	0.0	0.0
	40대	12.5	20.8	50.0	16.7	0.0	0.0
	50대	30.0	10.0	35.0	25.0	0.0	0.0
	60대	33.3	33.3	0.0	33.3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23.1	23.1	46.2	7.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0.9	17.8	54.5	16.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2.0	18.7	50.7	18.7	0.0	0.0
	없다	12.2	19.5	58.5	9.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2	23.1	34.6	23.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17.2	57.8	15.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0	16.0	64.0	8.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3.4	15.9	54.9	15.9	0.0	0.0
	없다	8.8	26.5	50.0	14.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23.1	53.8	15.4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16.0	56.0	1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15.6	50.0	1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3	18.8	56.3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5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0%(7)	41.4%(48)	30.2%(35)	22.4%(26)	0.0%(0)	0.0%(0)
성별	남자	4.9	53.7	24.4	17.1	0.0	0.0
	여자	6.7	34.7	33.3	25.3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0.0
	20대	10.8	35.1	43.2	10.8	0.0	0.0
	30대	0.0	42.3	30.8	26.9	0.0	0.0
	40대	4.2	41.7	16.7	37.5	0.0	0.0
	50대	5.0	55.0	20.0	20.0	0.0	0.0
	60대	0.0	33.3	33.3	33.3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7.7	38.5	15.4	38.5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5.9	41.6	31.7	20.8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	48.0	29.3	18.7	0.0	0.0
	없다	9.8	29.3	31.7	29.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38.5	23.1	34.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46.9	29.7	15.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32.0	40.0	24.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5	37.8	32.9	20.7	0.0	0.0
	없다	0.0	50.0	23.5	26.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33.3	38.5	20.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52.0	28.0	2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	43.8	18.8	34.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37.5	31.3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5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4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2%(6)	13.8%(16)	2.6%(3)	2.6%(3)	6.0%(7)	28.4%(33)	41.4%(48)	0.0%(0)	0.0%(0)
성별	남자	7.3	12.2	2.4	2.4	7.3	34.1	34.1	0.0	0.0
	여자	4.0	14.7	2.7	2.7	5.3	25.3	45.3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0.0	33.3	0.0	33.3	0.0	0.0
	20대	5.4	5.4	2.7	5.4	5.4	27.0	48.6	0.0	0.0
	30대	7.7	7.7	0.0	0.0	11.5	30.8	42.3	0.0	0.0
	40대	4.2	25.0	0.0	0.0	4.2	29.2	37.5	0.0	0.0
	50대	0.0	20.0	5.0	0.0	0.0	35.0	40.0	0.0	0.0
	60대	33.3	33.3	0.0	0.0	0.0	33.3	0.0	0.0	0.0
	70대	0.0	33.3	0.0	33.3	0.0	0.0	33.3	0.0	0.0
당원	당원	7.7	7.7	0.0	7.7	0.0	38.5	38.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5.0	14.9	3.0	2.0	6.9	27.7	40.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3	17.3	0.0	2.7	6.7	28.0	40.0	0.0	0.0
	없다	4.9	7.3	7.3	2.4	4.9	29.3	43.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9.2	0.0	0.0	3.8	30.8	46.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15.6	0.0	3.1	6.3	28.1	37.5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2.0	4.0	8.0	28.0	48.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1	11.0	3.7	2.4	6.1	31.7	39.0	0.0	0.0
	없다	2.9	20.6	0.0	2.9	5.9	20.6	47.1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5.1	5.1	5.1	10.3	25.6	41.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16.0	0.0	0.0	4.0	20.0	5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3	15.6	3.1	3.1	0.0	40.6	31.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8.8	0.0	0.0	12.5	31.3	37.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4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1.0%(36)	19.0%(22)	25.9%(30)	10.3%(12)	13.8%(16)	0.0%(0)	0.0%(0)
성별	남자	34.1	22.0	26.8	4.9	12.2	0.0	0.0
	여자	29.3	17.3	25.3	13.3	14.7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0.0
	20대	35.1	27.0	32.4	0.0	5.4	0.0	0.0
	30대	42.3	11.5	26.9	7.7	11.5	0.0	0.0
	40대	25.0	16.7	12.5	16.7	29.2	0.0	0.0
	50대	20.0	20.0	25.0	20.0	15.0	0.0	0.0
	60대	33.3	0.0	0.0	33.3	33.3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0.0
당원	당원	38.5	15.4	15.4	15.4	15.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0.7	18.8	27.7	9.9	12.9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4.7	18.7	17.3	10.7	18.7	0.0	0.0
	없다	24.4	19.5	41.5	9.8	4.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6.2	11.5	15.4	7.7	19.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3	20.3	28.1	9.4	10.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24.0	32.0	16.0	12.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0.5	19.5	25.6	13.4	11.0	0.0	0.0
	없다	32.4	17.6	26.5	2.9	20.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9	23.1	30.8	2.6	7.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0	20.0	24.0	4.0	1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4.4	15.6	15.6	15.6	18.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8.8	25.0	31.3	25.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0.0	7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 경제 어려움 이유

문46)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응답 오류, 중복 응답
		0.0% (0)	31.0% (36)	6.9% (8)	4.3% (5)	13.8% (16)	21.6% (25)	7.8% (9)	0.9% (1)	0.0% (0)	0.0% (0)	13.8% (16)
성별	남자	0.0	24.4	7.3	9.8	17.1	19.5	9.8	0.0	0.0	0.0	0.1
	여자	0.0	34.7	6.7	1.3	12.0	22.7	6.7	0.0	0.0	0.0	0.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0.0
	20대	0.0	29.7	8.1	10.8	10.8	24.3	8.1	0.0	0.0	0.0	0.1
	30대	0.0	30.8	7.7	3.8	3.8	23.1	11.5	0.0	0.0	0.0	0.2
	40대	0.0	25.0	0.0	0.0	25.0	20.8	8.3	0.0	0.0	0.0	0.2
	50대	0.0	40.0	10.0	0.0	20.0	15.0	0.0	0.0	0.0	0.0	0.2
	60대	0.0	66.7	0.0	0.0	33.3	0.0	0.0	0.0	0.0	0.0	0.0
	70대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3
당원	당원	0.0	7.7	15.4	0.0	23.1	15.4	7.7	0.0	0.0	0.0	0.3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3.7	5.9	5.0	12.9	22.8	7.9	0.0	0.0	0.0	0.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3.3	8.0	1.3	13.3	21.3	8.0	0.0	0.0	0.0	0.1
	없다	0.0	26.8	4.9	9.8	14.6	22.0	7.3	0.0	0.0	0.0	0.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3.1	3.8	3.8	7.7	19.2	7.7	0.0	0.0	0.0	0.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4.4	9.4	4.7	17.2	15.6	10.9	0.0	0.0	0.0	0.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0	4.0	4.0	12.0	36.0	0.0	0.0	0.0	0.0	0.1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32.9	6.1	4.9	17.1	22.0	7.3	0.0	0.0	0.0	0.1
	없다	0.0	26.5	8.8	2.9	5.9	20.6	8.8	0.0	0.0	0.0	0.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28.2	2.6	7.7	10.3	28.2	7.7	0.0	0.0	0.0	0.2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32.0	4.0	0.0	8.0	20.0	12.0	0.0	0.0	0.0	0.2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31.3	12.5	3.1	18.8	9.4	9.4	0.0	0.0	0.0	0.2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1.3	6.3	0.0	25.0	37.5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25.0	25.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47)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5%(11)	25.0%(29)	34.5%(40)	29.3%(34)	1.7%(2)	0.0%(0)
성별	남자	4.9	31.7	39.0	24.4	0.0	0.0
	여자	12.0	21.3	32.0	32.0	2.7	0.0
연령대	10대	33.3	0.0	0.0	66.7	0.0	0.0
	20대	2.7	21.6	40.5	32.4	2.7	0.0
	30대	15.4	19.2	38.5	26.9	0.0	0.0
	40대	12.5	33.3	33.3	20.8	0.0	0.0
	50대	10.0	40.0	20.0	25.0	5.0	0.0
	60대	0.0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38.5	53.8	7.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0.9	22.8	31.7	32.7	2.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2.0	26.7	34.7	26.7	0.0	0.0
	없다	4.9	22.0	34.1	34.1	4.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3.1	26.9	26.9	23.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26.6	35.9	31.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20.0	36.0	32.0	8.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5	24.4	34.1	30.5	2.4	0.0
	없다	11.8	26.5	35.3	26.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7.9	41.0	35.9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36.0	36.0	2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5.0	18.8	34.4	18.8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3	37.5	18.8	37.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25.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참석률

문48)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30%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7.2%(20)	12.1%(14)	28.4%(33)	25.9%(30)	15.5%(18)	0.9%(1)	0.0%(0)
성별	남자	14.6	22.0	29.3	26.8	7.3	0.0	0.0
	여자	18.7	6.7	28.0	25.3	20.0	1.3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33.3	33.3	0.0	0.0
	20대	8.1	13.5	40.5	27.0	8.1	2.7	0.0
	30대	30.8	11.5	26.9	19.2	11.5	0.0	0.0
	40대	29.2	8.3	20.8	16.7	25.0	0.0	0.0
	50대	5.0	10.0	20.0	40.0	25.0	0.0	0.0
	60대	33.3	33.3	33.3	0.0	0.0	0.0	0.0
	70대	0.0	33.3	0.0	66.7	0.0	0.0	0.0
당원	당원	15.4	7.7	23.1	46.2	7.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17.8	11.9	29.7	22.8	16.8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0.0	12.0	29.3	24.0	14.7	0.0	0.0
	없다	12.2	12.2	26.8	29.3	17.1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5	7.7	23.1	30.8	26.9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4	15.6	28.1	21.9	10.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8.0	32.0	32.0	16.0	4.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8.3	9.8	29.3	29.3	12.2	1.2	0.0
	없다	14.7	17.6	26.5	17.6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3	15.4	38.5	25.6	7.7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16.0	24.0	32.0	12.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1.9	3.1	28.1	21.9	25.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12.5	18.8	25.0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4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	5.2%(6)	14.7%(17)	42.2%(49)	30.2%(35)	0.0%(0)	0.0%(0)
성별	남자	7.3	7.3	17.1	29.3	39.0	0.0	0.0
	여자	8.0	4.0	13.3	49.3	25.3	0.0	0.0
연령대	10대	33.3	0.0	0.0	66.7	0.0	0.0	0.0
	20대	8.1	8.1	18.9	35.1	29.7	0.0	0.0
	30대	11.5	0.0	11.5	53.8	23.1	0.0	0.0
	40대	0.0	8.3	25.0	29.2	37.5	0.0	0.0
	50대	10.0	5.0	5.0	45.0	35.0	0.0	0.0
	60대	0.0	0.0	0.0	33.3	66.7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7.7	7.7	61.5	23.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8.9	5.0	14.9	40.6	30.7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	5.3	14.7	42.7	33.3	0.0	0.0
	없다	14.6	4.9	14.6	41.5	24.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5.4	0.0	19.2	34.6	30.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6.3	12.5	46.9	29.7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4.0	16.0	40.0	32.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5	2.4	9.8	46.3	32.9	0.0	0.0
	없다	5.9	11.8	26.5	32.4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3	5.1	12.8	38.5	33.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2.0	8.0	16.0	36.0	28.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3	3.1	15.6	56.3	18.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6.3	12.5	31.3	5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25.0	5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2%(35)	37.1%(43)	31.9%(37)	0.9%(1)	0.0%(0)
성별	남자	39.0	41.5	17.1	2.4	0.0
	여자	25.3	34.7	40.0	0.0	0.0
연령대	10대	33.3	0.0	66.7	0.0	0.0
	20대	24.3	37.8	37.8	0.0	0.0
	30대	23.1	57.7	19.2	0.0	0.0
	40대	37.5	41.7	20.8	0.0	0.0
	50대	35.0	10.0	50.0	5.0	0.0
	60대	66.7	33.3	0.0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당원	당원	38.5	46.2	15.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29.7	35.6	34.7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6.0	38.7	24.0	1.3	0.0
	없다	19.5	34.1	46.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6.9	23.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9.7	37.5	31.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0	48.0	4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8.0	35.4	35.4	1.2	0.0
	없다	35.3	41.2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8.2	35.9	35.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0.0	52.0	24.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4.4	34.4	31.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7.5	31.3	31.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5%(11)	8.6%(10)	74.1%(86)	7.8%(9)	0.0%(0)	0.0%(0)
성별	남자	9.8	4.9	75.6	9.8	0.0	0.0
	여자	9.3	10.7	73.3	6.7	0.0	0.0
연령대	10대	33.3	0.0	66.7	0.0	0.0	0.0
	20대	2.7	13.5	70.3	13.5	0.0	0.0
	30대	7.7	7.7	84.6	0.0	0.0	0.0
	40대	16.7	4.2	66.7	12.5	0.0	0.0
	50대	15.0	0.0	80.0	5.0	0.0	0.0
	60대	0.0	66.7	33.3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5.4	7.7	69.2	7.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8.9	8.9	74.3	7.9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0	9.3	77.3	5.3	0.0	0.0
	없다	12.2	7.3	68.3	12.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6.9	7.7	57.7	7.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10.9	78.1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0	84.0	1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1	9.8	78.0	6.1	0.0	0.0
	없다	17.6	5.9	64.7	11.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2.8	74.4	10.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0	8.0	80.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5.0	6.3	65.6	3.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6.3	75.0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3.3%(27)	35.3%(41)	37.9%(44)	3.4%(4)	0.0%(0)	0.0%(0)
성별	남자	14.6	39.0	41.5	4.9	0.0	0.0
	여자	28.0	33.3	36.0	2.7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20대	27.0	29.7	32.4	10.8	0.0	0.0
	30대	19.2	38.5	42.3	0.0	0.0	0.0
	40대	20.8	33.3	45.8	0.0	0.0	0.0
	50대	20.0	45.0	35.0	0.0	0.0	0.0
	60대	33.3	33.3	33.3	0.0	0.0	0.0
	70대	0.0	33.3	66.7	0.0	0.0	0.0
당원	당원	7.7	46.2	46.2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4.8	33.7	37.6	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1.3	36.0	40.0	2.7	0.0	0.0
	없다	26.8	34.1	34.1	4.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19.2	46.2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0.3	35.9	40.6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0	48.0	24.0	8.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0.7	39.0	37.8	2.4	0.0	0.0
	없다	29.4	26.5	38.2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8.2	30.8	35.9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48.0	32.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8.1	37.5	34.4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18.8	62.5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문5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 통신, 삐라 등)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5%(11)	10.3%(12)	58.6%(68)	7.8%(9)	9.5%(11)	4.3%(5)	0.0%(0)
성별	남자	9.8	4.9	53.7	4.9	19.5	0.0	7.3
	여자	9.3	13.3	61.3	9.3	4.0	0.0	2.7
연령대	10대	0.0	66.7	0.0	0.0	33.3	0.0	0.0
	20대	2.7	13.5	59.5	10.8	5.4	0.0	8.1
	30대	15.4	3.8	73.1	0.0	7.7	0.0	0.0
	40대	12.5	4.2	50.0	12.5	16.7	0.0	4.2
	50대	15.0	15.0	60.0	0.0	10.0	0.0	0.0
	60대	0.0	0.0	66.7	33.3	0.0	0.0	0.0
	70대	0.0	0.0	33.3	33.3	0.0	0.0	33.3
당원	당원	15.4	7.7	61.5	0.0	7.7	0.0	7.7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8.9	10.9	58.4	8.9	8.9	0.0	4.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3	5.3	54.7	9.3	13.3	0.0	4.0
	없다	2.4	19.5	65.9	4.9	2.4	0.0	4.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5.4	7.7	57.7	3.8	3.8	0.0	11.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10.9	51.6	12.5	14.1	0.0	3.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12.0	80.0	0.0	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5	13.4	56.1	9.8	7.3	0.0	4.9
	없다	11.8	2.9	64.7	2.9	14.7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5.4	51.3	12.8	10.3	0.0	7.7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2.0	8.0	60.0	4.0	1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8.8	9.4	59.4	3.1	3.1	0.0	6.3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3	6.3	62.5	12.5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5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9%(1)	0.9%(1)	21.6%(25)	69.0%(80)	5.2%(6)	2.6%(3)	0.0%(0)
성별	남자	0.0	2.4	22.0	65.9	4.9	0.0	4.9
	여자	1.3	0.0	21.3	70.7	5.3	0.0	1.3
연령대	10대	0.0	0.0	0.0	66.7	33.3	0.0	0.0
	20대	0.0	0.0	10.8	81.1	5.4	0.0	2.7
	30대	0.0	3.8	26.9	65.4	3.8	0.0	0.0
	40대	4.2	0.0	29.2	66.7	0.0	0.0	0.0
	50대	0.0	0.0	25.0	60.0	10.0	0.0	5.0
	60대	0.0	0.0	33.3	33.3	0.0	0.0	33.3
	70대	0.0	0.0	33.3	66.7	0.0	0.0	0.0
당원	당원	0.0	0.0	23.1	69.2	7.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0	1.0	21.8	68.3	5.0	0.0	3.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	1.3	25.3	68.0	2.7	0.0	1.3
	없다	0.0	0.0	14.6	70.7	9.8	0.0	4.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0.0	23.1	65.4	3.8	0.0	3.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6	21.9	68.8	6.3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72.0	4.0	0.0	4.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2	0.0	23.2	67.1	4.9	0.0	3.7
	없다	0.0	2.9	17.6	73.5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0.0	15.4	76.9	5.1	0.0	2.6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4.0	28.0	56.0	8.0	0.0	4.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0.0	18.8	75.0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3	0.0	37.5	50.0	0.0	0.0	6.3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평화위협국가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7.6%(90)	5.2%(6)	2.6%(3)	13.8%(16)	0.0%(0)	0.0%(0)	0.9%(1)
성별	남자	65.9	7.3	2.4	24.4	0.0	0.0	0.0
	여자	84.0	4.0	2.7	8.0	0.0	0.0	1.3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0.0
	20대	86.5	5.4	2.7	5.4	0.0	0.0	0.0
	30대	88.5	3.8	0.0	7.7	0.0	0.0	0.0
	40대	50.0	8.3	8.3	33.3	0.0	0.0	0.0
	50대	80.0	0.0	0.0	20.0	0.0	0.0	0.0
	60대	33.3	33.3	0.0	0.0	0.0	0.0	33.3
	70대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1.5	0.0	7.7	30.8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79.2	5.9	2.0	11.9	0.0	0.0	1.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7.3	4.0	1.3	16.0	0.0	0.0	1.3
	없다	78.0	7.3	4.9	9.8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6.9	3.8	3.8	15.4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5.0	6.3	3.1	14.1	0.0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0	4.0	0.0	8.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8.0	4.9	3.7	12.2	0.0	0.0	1.2
	없다	76.5	5.9	0.0	17.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9.7	2.6	2.6	5.1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2.0	4.0	8.0	16.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8.1	6.3	0.0	15.6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2.5	6.3	0.0	25.0	0.0	0.0	6.3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5%(11)	10.3%(12)	33.6%(39)	43.1%(50)	3.4%(4)	0.0%(0)
성별	남자	9.8	9.8	31.7	48.8	0.0	0.0
	여자	9.3	10.7	34.7	40.0	5.3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13.5	5.4	40.5	40.5	0.0	0.0
	30대	7.7	23.1	23.1	42.3	3.8	0.0
	40대	8.3	8.3	25.0	54.2	4.2	0.0
	50대	5.0	10.0	25.0	50.0	10.0	0.0
	60대	33.3	0.0	66.7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7	30.8	15.4	46.2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9.9	6.9	36.6	42.6	4.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3	13.3	30.7	38.7	4.0	0.0
	없다	2.4	4.9	39.0	51.2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2	3.8	15.4	53.8	7.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10.9	37.5	42.2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16.0	44.0	32.0	4.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5	13.4	39.0	35.4	3.7	0.0
	없다	11.8	2.9	20.6	61.8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7	2.6	46.2	43.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20.0	24.0	44.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5.6	12.5	28.1	37.5	6.3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2.5	31.3	5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25.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3%(5)	15.5%(18)	37.1%(43)	41.4%(48)	1.7%(2)	0.0%(0)
성별	남자	4.9	9.8	26.8	58.5	0.0	0.0
	여자	4.0	18.7	42.7	32.0	2.7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2.7	18.9	48.6	29.7	0.0	0.0
	30대	3.8	15.4	30.8	50.0	0.0	0.0
	40대	8.3	16.7	25.0	50.0	0.0	0.0
	50대	5.0	10.0	20.0	55.0	10.0	0.0
	60대	0.0	33.3	66.7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5.4	0.0	23.1	61.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0	17.8	38.6	38.6	2.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7	17.3	38.7	36.0	1.3	0.0
	없다	0.0	12.2	34.1	51.2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5	19.2	23.1	46.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14.1	43.8	39.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0	36.0	44.0	4.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7	12.2	40.2	41.5	2.4	0.0
	없다	5.9	23.5	29.4	41.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5.4	48.7	33.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16.0	24.0	56.0	4.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2.5	9.4	40.6	34.4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8.8	31.3	5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50.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9%(1)	4.3%(5)	35.3%(41)	56.9%(66)	2.6%(3)	0.0%(0)
성별	남자	0.0	2.4	31.7	65.9	0.0	0.0
	여자	1.3	5.3	37.3	52.0	4.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2.7	48.6	48.6	0.0	0.0
	30대	0.0	3.8	19.2	73.1	3.8	0.0
	40대	4.2	8.3	29.2	58.3	0.0	0.0
	50대	0.0	5.0	25.0	60.0	10.0	0.0
	60대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7.7	38.5	53.8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0	4.0	34.7	57.4	3.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	4.0	41.3	50.7	2.7	0.0
	없다	0.0	4.9	24.4	68.3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3.8	26.9	61.5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	40.6	53.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0	32.0	60.0	4.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9	40.2	51.2	3.7	0.0
	없다	2.9	2.9	23.5	70.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2.6	46.2	51.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8.0	20.0	64.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	3.1	43.8	46.9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6.3	25.0	6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5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6%(3)	18.1%(21)	40.5%(47)	34.5%(40)	4.3%(5)	0.0%(0)
성별	남자	2.4	14.6	36.6	46.3	0.0	0.0
	여자	2.7	20.0	42.7	28.0	6.7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0.0	21.6	48.6	29.7	0.0	0.0
	30대	0.0	15.4	38.5	38.5	7.7	0.0
	40대	8.3	25.0	33.3	29.2	4.2	0.0
	50대	5.0	15.0	15.0	55.0	10.0	0.0
	60대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7	15.4	30.8	46.2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0	18.8	41.6	32.7	5.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	17.3	44.0	29.3	5.3	0.0
	없다	0.0	19.5	34.1	43.9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7	11.5	23.1	50.0	7.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1.9	46.9	28.1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0	44.0	36.0	4.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2	12.2	48.8	32.9	4.9	0.0
	없다	5.9	32.4	20.6	38.2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20.5	48.7	30.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16.0	28.0	48.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4	12.5	40.6	28.1	9.4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25.0	43.8	31.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25.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협조필요국가

문6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6%(39)	25.9%(30)	5.2%(6)	0.9%(1)	31.0%(36)	0.0%(0)	3.4%(4)
성별	남자	36.6	19.5	9.8	0.0	31.7	0.0	2.4
	여자	32.0	29.3	2.7	1.3	30.7	0.0	4.0
연령대	10대	0.0	66.7	0.0	0.0	33.3	0.0	0.0
	20대	40.5	24.3	2.7	0.0	32.4	0.0	0.0
	30대	19.2	26.9	15.4	3.8	30.8	0.0	3.8
	40대	33.3	29.2	0.0	0.0	33.3	0.0	4.2
	50대	40.0	20.0	5.0	0.0	30.0	0.0	5.0
	60대	33.3	0.0	0.0	0.0	33.3	0.0	33.3
	70대	66.7	33.3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0.8	7.7	15.4	0.0	38.5	0.0	7.7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3.7	28.7	4.0	1.0	29.7	0.0	3.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2.0	26.7	5.3	1.3	30.7	0.0	4.0
	없다	36.6	24.4	4.9	0.0	31.7	0.0	2.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5	19.2	3.8	3.8	30.8	0.0	3.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9	26.6	6.3	0.0	29.7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0	32.0	4.0	0.0	36.0	0.0	8.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4.1	24.4	4.9	1.2	31.7	0.0	3.7
	없다	32.4	29.4	5.9	0.0	29.4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9	28.2	5.1	0.0	30.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8.0	24.0	8.0	4.0	3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7.5	21.9	6.3	0.0	25.0	0.0	9.4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5.0	31.3	0.0	0.0	37.5	0.0	6.3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0.0	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발전에 필요한 국가

문6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3.8%(16)	0.9%(1)	43.1%(50)	38.8%(45)	2.6%(3)	0.0%(0)	0.9%(1)
성별	남자	14.6	2.4	46.3	34.1	2.4	0.0	0.0
	여자	13.3	0.0	41.3	41.3	2.7	0.0	1.3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13.5	2.7	54.1	29.7	0.0	0.0	0.0
	30대	26.9	0.0	30.8	42.3	0.0	0.0	0.0
	40대	12.5	0.0	37.5	45.8	4.2	0.0	0.0
	50대	5.0	0.0	35.0	45.0	10.0	0.0	5.0
	60대	0.0	0.0	33.3	66.7	0.0	0.0	0.0
	70대	0.0	0.0	66.7	33.3	0.0	0.0	0.0
당원	당원	23.1	0.0	23.1	46.2	7.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12.9	1.0	44.6	38.6	2.0	0.0	1.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9.3	1.3	44.0	42.7	2.7	0.0	0.0
	없다	22.0	0.0	41.5	31.7	2.4	0.0	2.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5	0.0	53.8	30.8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1.6	37.5	43.8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0.0	48.0	32.0	0.0	0.0	4.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9	0.0	45.1	37.8	0.0	0.0	1.2
	없다	8.8	2.9	38.2	41.2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2.8	0.0	53.8	33.3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0.0	40.0	44.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5.6	0.0	31.3	40.6	9.4	0.0	3.1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0.0	43.8	43.8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5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문62)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6%(39)	55.2%(64)	11.2%(13)	0.0%(0)	0.0%(0)	0.0%(0)
성별	남자	29.3	58.5	12.2	0.0	0.0	0.0
	여자	36.0	53.3	10.7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27.0	62.2	10.8	0.0	0.0	0.0
	30대	19.2	65.4	15.4	0.0	0.0	0.0
	40대	45.8	41.7	12.5	0.0	0.0	0.0
	50대	40.0	50.0	1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0.0
당원	당원	15.4	69.2	15.4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6.6	52.5	10.9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9.3	57.3	13.3	0.0	0.0	0.0
	없다	41.5	51.2	7.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42.3	7.7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8.1	57.8	14.1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0	64.0	8.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7.8	51.2	11.0	0.0	0.0	0.0
	없다	23.5	64.7	11.8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8.2	64.1	7.7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48.0	2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4.4	53.1	12.5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50.0	6.3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5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3)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2.4%(26)	56.9%(66)	19.0%(22)	1.7%(2)	0.0%(0)	0.0%(0)
성별	남자	12.2	75.6	7.3	4.9	0.0	0.0
	여자	28.0	46.7	25.3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16.2	54.1	24.3	5.4	0.0	0.0
	30대	7.7	73.1	19.2	0.0	0.0	0.0
	40대	37.5	50.0	12.5	0.0	0.0	0.0
	50대	25.0	50.0	25.0	0.0	0.0	0.0
	60대	66.7	33.3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0.0
당원	당원	23.1	61.5	15.4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2.8	55.4	19.8	2.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1.3	64.0	14.7	0.0	0.0	0.0
	없다	24.4	43.9	26.8	4.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50.0	15.4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8	62.5	17.2	1.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52.0	28.0	4.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4	54.9	18.3	2.4	0.0	0.0
	없다	17.6	61.8	20.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5	59.0	17.9	2.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64.0	2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8.1	53.1	18.8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1.3	37.5	25.0	6.3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국민의식

문64) 귀하는 남한에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8.1%(79)	25.0%(29)	6.0%(7)	0.0%(0)	0.0%(0)
성별	남자	70.7	19.5	7.3	0.0	2.4
	여자	66.7	28.0	5.3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20대	75.7	18.9	5.4	0.0	0.0
	30대	69.2	19.2	11.5	0.0	0.0
	40대	62.5	33.3	4.2	0.0	0.0
	50대	55.0	35.0	5.0	0.0	5.0
	60대	100.0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당원	당원	69.2	7.7	15.4	0.0	7.7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비당원	67.3	27.7	5.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8.0	24.0	6.7	0.0	1.3
	없다	68.3	26.8	4.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5.4	30.8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7.2	25.0	7.8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2.0	20.0	4.0	0.0	4.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8.3	24.4	6.1	0.0	1.2
	없다	67.6	26.5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9.2	25.6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2.0	24.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5.6	25.0	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2.5	25.0	6.3	0.0	6.3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5.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생활 만족도

문65)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6%(39)	46.6%(54)	18.1%(21)	1.7%(2)	0.0%(0)	0.0%(0)	0.0%(0)
성별	남자	24.4	53.7	17.1	4.9	0.0	0.0	0.0
	여자	38.7	42.7	18.7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0.0
	20대	18.9	48.6	27.0	5.4	0.0	0.0	0.0
	30대	30.8	46.2	23.1	0.0	0.0	0.0	0.0
	40대	50.0	41.7	8.3	0.0	0.0	0.0	0.0
	50대	35.0	50.0	15.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0.8	61.5	7.7	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3.7	44.6	19.8	2.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6.0	48.0	14.7	1.3	0.0	0.0	0.0
	없다	29.3	43.9	24.4	2.4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8	46.2	23.1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50.0	14.1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0	40.0	24.0	4.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7.8	45.1	15.9	1.2	0.0	0.0	0.0
	없다	23.5	50.0	23.5	2.9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3.1	51.3	25.6	0.0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52.0	12.0	4.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6.9	37.5	15.6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37.5	18.8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75.0	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66)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0.0%(58)	35.3%(41)	12.9%(15)	0.9%(1)	0.9%(1)	0.0%(0)	0.0%(0)
성별	남자	41.5	39.0	17.1	0.0	2.4	0.0	0.0
	여자	54.7	33.3	10.7	1.3	0.0	0.0	0.0
연령대	10대	66.7	33.3	0.0	0.0	0.0	0.0	0.0
	20대	45.9	35.1	18.9	0.0	0.0	0.0	0.0
	30대	42.3	46.2	11.5	0.0	0.0	0.0	0.0
	40대	50.0	37.5	4.2	4.2	4.2	0.0	0.0
	50대	55.0	25.0	20.0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70대	66.7	33.3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0.8	53.8	7.7	0.0	7.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53.5	32.7	12.9	1.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7.3	33.3	9.3	0.0	0.0	0.0	0.0
	없다	36.6	39.0	19.5	2.4	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5.4	23.1	7.7	0.0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5.3	37.5	17.2	0.0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8.0	40.0	8.0	4.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1.2	32.9	13.4	1.2	1.2	0.0	0.0
	없다	47.1	41.2	11.8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3.8	33.3	12.8	0.0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4.0	36.0	16.0	0.0	4.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6.9	43.8	6.3	3.1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6.3	25.0	18.8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25.0	25.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문화적 차이

문67)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7.2%(20)	63.8%(74)	13.8%(16)	3.4%(4)	1.7%(2)	0.0%(0)
성별	남자	24.4	63.4	7.3	4.9	0.0	0.0
	여자	13.3	64.0	17.3	2.7	2.7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0.0
	20대	16.2	59.5	18.9	5.4	0.0	0.0
	30대	11.5	73.1	11.5	3.8	0.0	0.0
	40대	29.2	58.3	12.5	0.0	0.0	0.0
	50대	15.0	70.0	5.0	0.0	10.0	0.0
	60대	0.0	66.7	0.0	33.3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15.4	53.8	23.1	7.7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16.8	65.3	12.9	3.0	2.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7.3	62.7	14.7	4.0	1.3	0.0
	없다	17.1	65.9	12.2	2.4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3.1	57.7	15.4	3.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57.8	14.1	4.7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0	12.0	0.0	4.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9	61.0	15.9	4.9	2.4	0.0
	없다	20.6	70.6	8.8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5.4	59.0	17.9	7.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72.0	4.0	0.0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1.9	62.5	12.5	3.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68.8	18.8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건강의 문제

문68)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	19.0%(22)	43.1%(50)	25.0%(29)	5.2%(6)	0.0%(0)
성별	남자	9.8	19.5	41.5	24.4	4.9	0.0
	여자	6.7	18.7	44.0	25.3	5.3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2.7	16.2	45.9	32.4	2.7	0.0
	30대	7.7	19.2	42.3	26.9	3.8	0.0
	40대	16.7	20.8	29.2	29.2	4.2	0.0
	50대	10.0	20.0	55.0	0.0	15.0	0.0
	60대	0.0	33.3	33.3	33.3	0.0	0.0
	70대	0.0	33.3	33.3	33.3	0.0	0.0
당원	당원	7.7	23.1	46.2	15.4	7.7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7.9	16.8	43.6	26.7	5.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0	22.7	44.0	20.0	5.3	0.0
	없다	7.3	12.2	41.5	34.1	4.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5.4	7.7	46.2	19.2	11.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21.9	42.2	26.6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0	20.0	44.0	28.0	4.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13.4	46.3	26.8	6.1	0.0
	없다	8.8	32.4	35.3	20.6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5.4	41.0	38.5	2.6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0	28.0	36.0	16.0	16.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5.6	18.8	40.6	25.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12.5	62.5	6.3	6.3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5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적 문제

문69)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6.7%(31)	43.8%(56)	18.1%(21)	4.3%(5)	2.6%(3)	0.0%(0)
성별	남자	24.4	56.1	14.6	4.9	0.0	0.0
	여자	28.0	44.0	20.0	4.0	4.0	0.0
연령대	10대	33.3	0.0	33.3	33.3	0.0	0.0
	20대	21.6	51.4	21.6	5.4	0.0	0.0
	30대	19.2	50.0	23.1	3.8	3.8	0.0
	40대	33.3	50.0	12.5	4.2	0.0	0.0
	50대	35.0	55.0	0.0	0.0	10.0	0.0
	60대	33.3	0.0	66.7	0.0	0.0	0.0
	70대	33.3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15.4	61.5	15.4	7.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8.7	46.5	17.8	4.0	3.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6.7	49.3	18.7	2.7	2.7	0.0
	없다	26.8	46.3	17.1	7.3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4.6	50.0	7.7	3.8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0	45.3	25.0	3.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0	56.0	12.0	8.0	4.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4	48.8	17.1	6.1	3.7	0.0
	없다	32.4	47.1	20.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5	48.7	23.1	7.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2.0	52.0	4.0	0.0	12.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3	43.8	18.8	6.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1.3	56.3	12.5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7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인간관계

문70)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5%(11)	25.0%(29)	47.4%(55)	14.7%(17)	3.4%(4)	0.0%(0)
성별	남자	9.8	29.3	46.3	12.2	2.4	0.0
	여자	9.3	22.7	48.0	16.0	4.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2.7	37.8	45.9	13.5	0.0	0.0
	30대	7.7	23.1	50.0	15.4	3.8	0.0
	40대	12.5	29.2	41.7	16.7	0.0	0.0
	50대	15.0	10.0	50.0	10.0	15.0	0.0
	60대	0.0	0.0	66.7	33.3	0.0	0.0
	70대	66.7	0.0	33.3	0.0	0.0	0.0
당원	당원	15.4	15.4	53.8	15.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8.9	25.7	47.5	14.9	3.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0.7	25.3	45.3	14.7	4.0	0.0
	없다	7.3	24.4	51.2	14.6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5.4	15.4	46.2	19.2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28.1	46.9	12.5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8.0	52.0	16.0	4.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23.2	48.8	15.9	4.9	0.0
	없다	14.7	29.4	44.1	11.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1	30.8	43.6	20.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24.0	52.0	8.0	16.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1.9	21.9	40.6	1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18.8	56.3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7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적 편견

문71)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6%(10)	41.4%(48)	36.2%(42)	11.2%(13)	2.6%(3)	0.0%(0)
성별	남자	12.2	39.0	39.0	9.8	0.0	0.0
	여자	6.7	42.7	34.7	12.0	4.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0.0
	20대	5.4	40.5	43.2	10.8	0.0	0.0
	30대	7.7	46.2	30.8	11.5	3.8	0.0
	40대	12.5	41.7	37.5	8.3	0.0	0.0
	50대	15.0	35.0	25.0	15.0	10.0	0.0
	60대	0.0	33.3	66.7	0.0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0.0
당원	당원	7.7	38.5	46.2	7.7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7.9	42.6	34.7	11.9	3.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0	44.0	36.0	9.3	2.7	0.0
	없다	9.8	36.6	36.6	14.6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5	46.2	19.2	19.2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0.9	43.8	39.1	4.7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0	44.0	20.0	4.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3	41.5	35.4	12.2	3.7	0.0
	없다	11.8	41.2	38.2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43.6	41.0	12.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6.0	52.0	20.0	0.0	12.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3	40.6	40.6	12.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2.5	31.3	31.3	25.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0.0	7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심리적 외로움

문72)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8.1%(21)	41.4%(48)	23.3%(27)	14.7%(17)	2.6%(3)	0.0%(0)
성별	남자	22.0	41.5	17.1	19.5	0.0	0.0
	여자	16.0	41.3	26.7	12.0	4.0	0.0
연령대	10대	0.0	33.3	66.7	0.0	0.0	0.0
	20대	18.9	51.4	16.2	13.5	0.0	0.0
	30대	15.4	38.5	23.1	19.2	3.8	0.0
	40대	25.0	29.2	25.0	20.8	0.0	0.0
	50대	20.0	35.0	30.0	5.0	10.0	0.0
	60대	0.0	33.3	33.3	33.3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0.0	61.5	23.1	15.4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0.8	37.6	23.8	14.9	3.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6.0	44.0	24.0	13.3	2.7	0.0
	없다	22.0	36.6	22.0	17.1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3.1	30.8	23.1	19.2	3.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7.2	45.3	23.4	12.5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40.0	24.0	16.0	4.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4.6	40.2	24.4	17.1	3.7	0.0
	없다	26.5	44.1	20.6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7.9	51.3	15.4	15.4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2.0	40.0	20.0	16.0	12.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1.9	37.5	25.0	1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25.0	43.8	12.5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2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정부지원 제외 가장 도움 된 것

문73) 귀하가 남한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NGO 등 민간 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 단체의 지원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4.1%(28)	26.7%(31)	19.8%(23)	28.4%(33)	0.9%(1)	0.0%(0)
성별	남자	12.2	31.7	19.5	36.6	0.0	0.0
	여자	30.7	24.0	20.0	24.0	1.3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66.7	0.0	0.0
	20대	29.7	35.1	2.7	32.4	0.0	0.0
	30대	19.2	15.4	23.1	42.3	0.0	0.0
	40대	20.8	20.8	33.3	25.0	0.0	0.0
	50대	30.0	30.0	30.0	5.0	5.0	0.0
	60대	33.3	0.0	66.7	0.0	0.0	0.0
	70대	0.0	66.7	0.0	33.3	0.0	0.0
당원	당원	7.7	30.8	30.8	30.8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6.7	25.7	18.8	27.7	1.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5.3	24.0	24.0	26.7	0.0	0.0
	없다	22.0	31.7	12.2	31.7	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3.1	19.2	23.1	34.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0	28.1	21.9	25.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4.0	32.0	8.0	32.0	4.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6.8	24.4	20.7	26.8	1.2	0.0
	없다	17.6	32.4	17.6	32.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5.6	33.3	2.6	38.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4.0	16.0	24.0	3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5.0	28.1	28.1	15.6	3.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8.8	18.8	43.8	1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50.0	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탈북결심이유

문74)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9%(44)	8.6%(10)	19.0%(22)	15.5%(18)	12.9%(15)	0.0%(0)	6.0%(7)
성별	남자	53.7	2.4	22.0	12.2	4.9	0.0	4.9
	여자	29.3	12.0	17.3	17.3	17.3	0.0	6.7
연령대	10대	0.0	0.0	33.3	66.7	0.0	0.0	0.0
	20대	24.3	10.8	35.1	27.0	2.7	0.0	0.0
	30대	38.5	3.8	11.5	11.5	23.1	0.0	11.5
	40대	45.8	12.5	8.3	8.3	16.7	0.0	8.3
	50대	55.0	10.0	10.0	0.0	20.0	0.0	5.0
	60대	66.7	0.0	0.0	0.0	0.0	0.0	33.3
	70대	33.3	0.0	33.3	33.3	0.0	0.0	0.0
당원	당원	69.2	0.0	7.7	7.7	0.0	0.0	15.4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33.7	9.9	20.8	15.8	14.9	0.0	5.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6.7	5.3	12.0	10.7	16.0	0.0	9.3
	없다	22.0	14.6	31.7	24.4	7.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3	11.5	15.4	23.1	7.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3.8	6.3	15.6	9.4	15.6	0.0	9.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0	12.0	32.0	24.0	12.0	0.0	4.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4.1	6.1	26.8	13.4	12.2	0.0	7.3
	없다	47.1	14.7	0.0	20.6	14.7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0.8	7.7	25.6	30.8	5.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4.0	0.0	8.0	8.0	32.0	0.0	8.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0.6	15.6	21.9	9.4	3.1	0.0	9.4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3.8	6.3	18.8	0.0	25.0	0.0	6.3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5.0	25.0	0.0	25.0	0.0	0.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에 온것 후회정도

문75)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중복응답, 응답오류
		4.3%(5)	15.5%(18)	25.0%(29)	55.2%(64)	0.0%(0)	0.0%(0)
성별	남자	2.4	31.7	12.2	53.7	0.0	0.0
	여자	5.3	6.7	32.0	56.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5.4	21.6	35.1	37.8	0.0	0.0
	30대	0.0	23.1	26.9	50.0	0.0	0.0
	40대	4.2	8.3	12.5	75.0	0.0	0.0
	50대	10.0	10.0	15.0	65.0	0.0	0.0
	60대	0.0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0.0	15.4	7.7	76.9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4.0	15.8	27.7	52.5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	17.3	20.0	61.3	0.0	0.0
	없다	9.8	12.2	34.1	43.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9.2	34.6	46.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	14.1	20.3	62.5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0	16.0	28.0	44.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1	15.9	22.0	56.1	0.0	0.0
	없다	0.0	14.7	32.4	5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6	17.9	35.9	43.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2.0	12.0	20.0	56.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1	15.6	15.6	65.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2.5	18.8	68.8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5.0	50.0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연 구 과 제 명 : 2019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연구 책임자명 : 임경훈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본 연구가 왜 수행되고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Q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 본 조사는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 남한사회, 북한사회, 주변국가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Q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 2018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만18세 이상인 분들 중 100여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Q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귀하는 본 설문지를 읽고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질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Q4.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약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Q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 예,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성하신 설문지는 즉시 폐기 처리되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Q6.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아니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7.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 예,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4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게 될 것입니다.

Q8.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연구 담당자: 김학재 HK교수 · 전화번호: 02-880-2208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02-880-5153

Q9. 연구에 대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경훈 교수(02-880-1325)입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범위는 설문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소득수준, 혼인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설문지 원자료는 연구 책임자가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중 철재 보관함에 넣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통일평화연구원 209E호)에 1년 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이 외에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설문참여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수집되며 이 정보는 사례비 지급과 동시에 폐기됩니다. 2차 코딩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2019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 구 과 제 명 : 2019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연구 책임자명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 구 과 제 명 : 2019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연구 책임자명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통일 인식

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한다. ② 약간 원한다.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같은 민족이니까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③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④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⑤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⑥ 기타(적을 것:)

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30년 이상 ⑥ 불가능하다.

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 그럼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1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제국주의 교양
② 남한에 대한 이해
③ 남조선 해방
④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⑤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⑥ 통일의 이익

대남 인식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 4.19 혁명	1	2	3	4
㉯ 5.18 광주항쟁	1	2	3	4
㉰ 88서울올림픽	1	2	3	4
㉱ 2002 월드컵	1	2	3	4
㉲ 세월호 사건	1	2	3	4
㉳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접해봤다.
② 한두 번 접해봤다.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3-1. (13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까?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3-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① 매우 친숙했다.
② 약간 친숙했다.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3-3.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②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③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④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4.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사회복지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위협적이다.
② 다소 위협적이다.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20.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10% 미만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
⑦ 70% ⑧ 80%
⑨ 90% 이상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대체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20년
⑤ 20~30년 ⑥ 30년 이상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찬성했다.
② 다소 찬성했다.
③ 반반/그저 그랬다.
④ 다소 반대했다.
⑤ 매우 반대했다.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②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⑨ 기타 ( )

2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30%미만 ② 30~50%
③ 50~70% ④ 70~90%
⑤ 90% 이상

3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① 자주 가보았다.
② 가끔 가보았다.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③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④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① 로동신문
② 방송
③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④ 강연, 학습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삐라 등)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북한돈_____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중국 ② 미국
③ 러시아 ④ 일본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4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남한사회 적응실태

4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2.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포용적이다.
② 약간 포용적이다.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3.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4.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차이	1	2	3	4
㉯ 질병 등 건강의 문제	1	2	3	4
㉰ 취업 등 경제적 문제	1	2	3	4
㉱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1	2	3	4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	2	3	4
㉳ 타향살이에서 오는 심리적 외로움	1	2	3	4

46.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7.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②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③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④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48.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9.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정치적 탄압
② 경제적 어려움
③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④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⑤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① 평양 ② 남포
③ 개성 ④ 평안남도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⑨ 양강도 ⑩ 황해남도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사무원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⑤ 학생 ⑥ 군인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한 적 없다.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③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④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Q16.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Q17.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Q18.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8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인 쇄	2020. 02. 28
발 행	2020. 0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김학재 · 김병로 · 문인철 · 엄현숙 · 조동준 · 천경효 · 임경훈 · 조용신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전 화	02)880-4052-4, 874-730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저자: 김학재, 김병로, 문인철, 엄현숙, 조동준, 천경효, 임경훈, 조용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8)
ISBN 979-11-966513-2-9 93340 :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